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
다만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6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9호 2017년 8월 9일 수요일

대세된 '出寫信心' '주목' Photo포교

불교계, 시니어 사진 강좌·동호회 '활발'

5060세대의 취미생활로 사진촬영이 각광받는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찰들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사찰 내 사진촬영 문화 확산에 맞춰 에티켓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가의 장비로 인해 전문 활동으로 평가받았던 사진촬영은 스마트폰과 DSLR의 보급으로 인해 일반적인 취미활동으로 변모했다. 특히 최근에는 5060세대의 취미로 손꼽히고 있다.

G마켓이 2016년 공개한 스포츠 · 레저 · 사진 · 미술 · 악기 등 취미 품목의 3년간 판매량 조사결과를 보면 50대 이상의 구매가 최대 4배 증가했는데, 특히 사진기의 50대 이상의 구매가 23%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행사마다 카메라를 든 불자들을 쉽게 찾아 본지 오래다. 불자들을 위해 각 사찰들은 사진 강좌와 동아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지난해 9월부터 사진촬영 강좌를 열고 있다. 김현성 사진가를 강사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 열리는 이 강좌는 인기절정이다. 지난해 진행된 3개월 과정의 초급반에는 30명 정원에 55명이 몰렸다. 이어 마련된 중급반에도 30명 정원에 42명이 신청했으며 정기적으로 출사(사진 촬영을 위한 외부활동)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연말 전시전을 목표로 개설된 고급반에도 30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봉은사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있어도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5060세대의 비중이 높다"며 "사찰 입장에서 보면 신도들의 취미 · 문화생활을 사찰에서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봉사조직으로 활동을 유도해 사찰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경우에는 강진형 사진가를 강사로 매주 월요일 사진촬영 강좌를 열고 있다. 특히 국제선센터는 2015년 1월 스님 4명이 포함된 사진동호회 '인연'을 구성했다. 동호회 회원 21명이 매월 2회 출사 및 양천불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진촬영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강석훈 국제선센터 주임은 "봉축행사를 비롯해 연합회 소속 사찰들의 행사 홍보도 진행해 사찰들의 호응이 높다. 최근에는 사찰 달력 제작에도 동호회 회원들의 사진을 보시받아 사용했다"고 말했다.

사진촬영을 취미로 하는 불자들은 사찰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촬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일부 사진가들의 무분별한 사진 촬영으로 사찰에서 이를 금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 광주불교연합회가 지난해 3월 구성한 사진문화기획단(지도법사 무등)은 불자 사진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연합회 사찰의 사전 협조를 얻고,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문화기획단 강민협 회원은 "사찰 동호회의 경우 다른 사찰에서 촬영을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연합회 차원에서 구성되어 협조가 원할하다"며 "초기에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있었지만 기획단 활동을 하며 모두 불자가 됐다. 사찰 촬영을 하다보면 불교문화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신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5060세대 '사진촬영' 취미
봉은사 사진 강좌 정원초과
국제선센터 동호회 설립돼
광주지역 사찰들 연합 활동

사찰 촬영하며 신심 증장해
몰지각 행태에 촬영금지도
"기본 에티켓 보급 필요해야"

사진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불교계 사진촬영 인구만큼 사찰 내 에티켓 보급에도 각 사찰들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한국불교사진협회 협회장은 "사진강좌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활동은 포교의 또 다른 기회"라면서도 "취미활동은 타인의 피해가 없게 하며 유지해야 한다. 특히 사찰은 신행공간인 만큼 사진촬영도 중요하지만 기본예절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찰 사진촬영 에티켓을 신도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더위 잊은 연꽃 삼매경 태고종 신촌 봉원사에는 8월 5일부터 시작된 연꽃축제 기간 동안 만개한 연꽃을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연꽃을 환희심 넘치게 바라보는 불자 모녀의 모습에서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느껴지지 않는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태고종 새 집행부 인사추천위 구성

8월 2일 춘천서 종단 발전 · 화합 연찬회

전국 종무원장 중심으로 구성
오는 15일까지 3배수로 추천
"인재 적재적소 배치에 최선"

태고종이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해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8월 2일 춘천 베어스호텔 소양홀에서 '태고종 종단발전과 종도화합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종회의장 설운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 종회의원,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동룡 춘천시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찬회 참가자들은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시도교구종무원장 29명과 선암사 · 봉원사 · 백련사 · 청련사 · 법륜사 주지 5명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종무원장들은 차기 집행부 인사를 3배수로 오는 8월 15일까지 추천한다.

이에 대해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당선자인 편백운 스님은 "좋은 총무원장의 요소는 자기가 일을 잘 하기보다는 좋은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각 시도교구종무원장 스님들은 숙고해서 종단 발전을 위한 인재들을 3배수로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종단 발전을 위한 당부들도 이어졌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 부채 등 태고종은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집행부는 다시 뛰는 태고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구종무원장 등 종도들의 원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저 역시 차기 집행부에 최대한 협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종무원장협의회장 도광 스님은 "차기 집행부는 종단 운영을 주관이 아닌 객관적이며 상식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내부 문제를 외부 쟁송으로 비하하지 말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찬회 참가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춘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정한 수행자에겐 대오견성이 해제라"

2000여 운수납자 정유년 하안거 해제

불기2561년 정유년 하안거 해제가 8월 6일 전국 조계종 100여개 선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 대중현황을 정리한 '정유년 하안거 선사 방함록'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99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7 · 비구니선원34)서 총 2,053명(총림276 · 비구1,092 · 비구니685)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안거 해제에 앞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8월 3일 운수납자들의 수행을 독려하는 해제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다시금 심기일전해 마음속의 모든 반연을 다 쉬어버리고, 오로지 화두와 씨름하고 씨름해서 한 생각이 간단없이 지속되게끔 해야 할 것"이라며 "한 생각이 지속되는 이 삼매에 들게 되면 천 사람이면 천 사람이 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어 있음이라"고 당부했다.

〈종정 · 방장 해제 법어 A7〉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159호 INDEX

시방세계 A5
염불만일회 20주년 염불정진대회



미국서 날아온 수행편지 B1~2
잔까를로 크로세티(베링거 잉겔하임 이사)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呑虛講塾) 2017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공고

2017년도 2학기(9월 4일 개강) 탄허강숙에서는 선(禪)과 불교사, 인문학의 고전인『벽암록』·『노자 도덕경』·『삼국유사』·『대혜 서장』을 강의합니다. 각 텍스트의 사상과 내용은 물론, 시대적 배경, 그리고 한문의 구조와 용례, 훈고 등에 대해서도 강의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공자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였습니다. '공부' '학문' '탐구'는 인간의 탐구이고 지성(知性)과의 만남입니다.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눌 학인들을 기다립니다.

1 2017년도 2학기 강의일정 및 장소
- 일시 : 9월 4일(월) ~ 12월 28일(목) 저녁 7시 ~ 9시 (10월 첫 주는 연휴로 휴강)
- 방식 : 한문 원전 중심 강독 및 내용 해설 (초심자도 수강 가능)
- 장소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 5분 거리)

2 2017년 2학기 개설 강좌

	월	화	수	목
강좌 및 원전명	벽암록 1학기에 이어 2학기 20칙부터 강의	노자 도덕경 2학기 신규개설 강좌	삼국유사 2학기 신규개설 강좌	서장(書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연속 강의
강 사	석지현 벽암록, 종용록, 선시감상사전 완역자	성태용 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노자 도덕경, 장자, 주역 강의	정병삼 교수 숙명여대 교수, 한국사, 불교사, 화엄 전공	이상하 교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3 지원서 제출 및 등록
- 접수 기간 : 2017년 7월 18일(화) ~ 8월 30일(수)
- 접수 방법 : 민족사 홈페이지(www.minjoksa.org)에서 지원서 다운받은 후 이메일(minjoksabook@naver.com)로 제출
- 수 강 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일시불). ※ 대학원생은 50% 할인 ※ 전과목 수강할 경우 50만원(4과목 4개월 일시불)
- 수강 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 선착순 마감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예금주: 윤재승) 수강료 입금시 수강자의 이름(수강자와 동일한 이름) 표시 요망.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교재는 당일 배포.

4 안내 및 문의
- 자세한 사항은 TEL 02-732-2403~4, H·P 010-5226-2149

5 강사 프로필
- 석지현(벽암록 강의) : 동국대 졸업. 인도 유학. 선어록《벽암록》·《종용록》《禪詩감상사전》,《우파니샤드》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 성태용 교수(노자도덕경) : 서울대 철학과 졸업. 건국대 철학과 교수, 정년퇴임(2017년). 건국대 철학과 명예 교수. EBS에서 '주역과 21세기'라는 제목으로 48회 주역 강의하며 인문학 대중화에 공헌. 노자(도덕경)와 장자(莊子) 강의. 한국철학회 회장. 재가불교단체 '우리는 선우' 공동 대표 역임.
- 정병삼 교수(삼국유사 강의) : 서울대 사학과 졸업. 간송미술관 수석 연구원. 현재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한국사, 불교사 전공. ※ 주요 관심분야 : 화엄학, 불교문화. '불교미술로 보는 삼국유사', '삼국유사와 신라불교' 등을 주제로 강연. ※ 저서 :《일연一然과 삼국유사》,《의상 화엄사상 연구》,《찬란한 우리 문화의 꽃 진경문화》,《중국화엄사상사》(공역) 등 다수.
- 이상하 교수(서장 강의) : 고려대학교 박사.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교수.《십지경론》·《십송률》·《한암 · 탄허 선사 서간문》·《경허집》·《월사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

8월 13일 인제 만해마을 광장서… 시 · 시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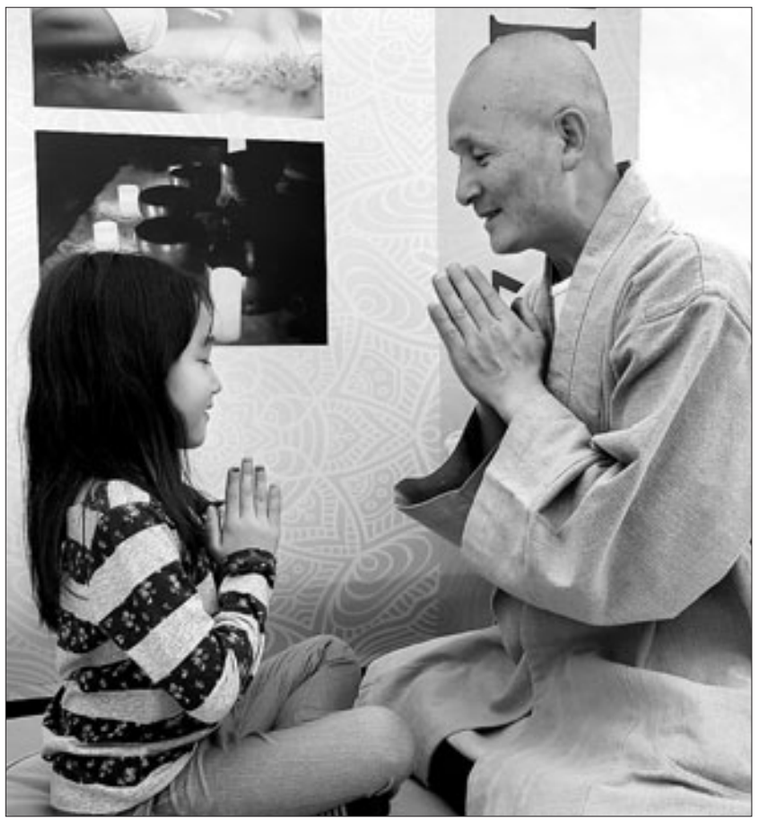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사랑 정신과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력을 되새겨보고자 열리는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8월 13일 인제 만해마을 광장서 열린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2017 만해축전 일환으로 열리며, 강원도 · 인제군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등이 주최하고 인제신문사가 주관한다. 시와 시조 부문으로 나뉘며, 시제는 당일 현장서 발표된다. 지난해에는 시와 시조 부문을 통틀어 시상했으나 올해는 분리 시상한다.

시 부문은 △장원 1명(강원도지사상) 상금 150만원 △차상 1명(인제군수상) 상금 100만원 △차사 1명(인제군의회 의장상) 상금 50만원 △장려 5명(인제신문사 발행인상) 상금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시조 부문도 시상 내역은 동일하다.

나이 · 성별 ·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인제신문 홈페이지(www.okinjenews.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1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injenews@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 참가비 무료. (033)461-1588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스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유아들의 심리 · 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축제서 불교명상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7월 27~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서 열린 영유아박람회 '키더페어'에 참여, 유아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명상 등을 소개했다. 사진은 27일 봉인사 적경 스님이 부스를 찾아온 한 아이에게 명상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명상하는 모습.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봉인사 한길정진원

책에서 느낀 화쟁, 글로 풀어보자

화쟁委,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

독서를 통한 화쟁사상의 사회 확산을 도모하는 독후감 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화쟁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화쟁도서 독후감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는 초등부 · 중고등부 · 대학일반부로 나뉘며 각 부문별로 선정된 책 3권 중 1권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도서는 초등부 △강아지똥(권정생) △똥장군하고 놀면 안돼요?(원유순) △무기 팔지 마세요!(위기철), 중고등부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든 진짜 부자들(이향안) △내 이름은 공동체입니다(장성익) △쉽게 읽는 백범일지(김구), 일반부 △담론(신영복) △대담(도정일 · 최재천) △비폭력 대화(마셜 B. 로젠버그)다. 수상작은 11월 발표되며, 수상자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상 등 총상금 약 2000만원이 수여된다. 윤호섭 기자

"출가자의 삶, 人天의 스승 그 위대한 길"

해인사, 8월 3일 방장 원각 스님 금산식 봉행

출가자 감소 현실을 극복하고
불퇴전의 고귀한 발심 되새겨
출가 25 · 60년 축하법회 계획
단기출가로 출가자 양성 추진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왼쪽)이 방장 원각 스님에게 대가사를 봉정하고 있다.

승가 대중들이 대가사, 주장자, 금강저 그리고 경전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에게 봉정했다. 출가의 삶,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경외이자 물러섬 없는 불퇴전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향적)는 8월 3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출가 50주년 금산식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식에는 방장 원각 스님, 주지 향적 스님을 비롯해 선원 및 율원 등 사중 스님과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강석진 국회의원, 하창완 합천군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해인사 대중은 방장 스님의 금산식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출가자의 고귀한 발심을 기렸다. 아울러 한평생 불퇴전의 정진으로 스승이 되어준 스님들을 높이 받드는 불가 전통을 되살렸다. 특히 출가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극복하고 출가의 본래 뜻을 전하기 위한 행사로 개최됐다.

법회는 방장 원각 스님의 헌화로 시작해 주지 향적 스님이 봉행사로 개최 취지를 전했다. 또한 금산식 참여 대중은 이어 대가사와 주장자, 금강저, 경전을 봉정하며 원각 스님의 출가 5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원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심수만경전(心隨萬境轉) 전처실능유(轉處悉能幽) 수류인득성(隨流認得性) 무희역무우(無喜亦無憂)다"며 "마음은 만가지 경계를 따라서 다니나 그 가는 곳마다 모두 다 깊고 깊다. 흐름을 따르더라도 본 성품을 알면 기쁨도 없고 또한 슬픔도 없다"고 설했다.

스님은 이어 "50년 전 출가했을 당시 방은 비좁고 대중이 많아 불편함도 있었지만 새벽에 자다 깨면 곳곳에 용맹정진하는 도반의 모습에 놀라곤 했다. 그 삶이 바탕이 되어 변함없는 본래 성품을 오늘 이야기한다"며 "흐름을 따르더라도 그 본래 성품을 알면 불고불락의 경계에 이른다"고 대중들에게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주지 향적 스님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방장 스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자신만을 위한 축하행사라 극구 반대하셨다"면서 "오늘 행사는 출가자가 없어 승가 공동체 위기를 맞은 현실을 극복하고 출가를 독려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현재 법랍 50년을 맞으면 성대히 축하행사를 한다. 한국불교도 법랍 60년이 되면 혜납이라 해 축하법회를 했다. 전통을 잇고 출가 발심의 위대함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각회장은 "방장 스님의 입산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런 희유한 자리에 같이 하는 것은 큰 영광이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납자뿐 아니라 국민들의 스승으로 큰 가르침을 부탁한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해인사는 앞으로 출가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가오는 가을 출가 25년, 60년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단기 출자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출가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원각 스님은 194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966년 해인사 중봉암에서 출가해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혜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았다. 수계 후에는 성철, 전강, 경봉, 구산 스님 아래서 공부했으며 해인사 송광사 상원사 범어사에서 수행 정진했다. 거창 고견사 주지, 원당암 감원 소임, 달마선원 선원장, 해인사 유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2015년 3월 해인총림 9대 방장으로 추대됐다.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미등록 법인 사찰, 가등록 길 열려

조계종, 법인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권리제한 면제

조계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 법인 소속 사찰들이 권리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지난 제208회 중앙종회서 가결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에 따라 7월 19일 관련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31일 가등록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개정된 법령은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 중 개별적으로 종단에 가등록한 사찰 권리인과 관리인, 그 도제에 대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등록 절차는 사찰법 및 사찰법시행령의 사찰 예비등록 절차를 준용하며, 가등록 사찰의 교구는 직할교구로 지정된다. 특히 가등록 사찰의 관리인은 가등록 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인소유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사'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사찰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인증여 가등기나 유언공증, 합유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등록 신청은 신청서 및 사찰관리인 품신 서류를 총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가등록 결정 여부가 통지되며, 3개월 내에 조계종 명의 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가등록 신청과 동시에 사찰관리인을 품신하고, 법인소유 재산을 포함한 해당사찰 재산 모두를 재산목록에 작성해야 한다.

사찰관리인 품신 시 자격은 본말사주지 인사규정에 의하지만 말사주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는 예외로 한다. 다만 품신 당시 법계 중덕(정덕)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유언장 작성 시 당시 날짜를 연월일 모두 기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02)2011-1701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토론 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까

조계종 교육원, 9월 7~8일 교수 연찬회

토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찰 승가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 연찬회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9월 7~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질문과 토론이 활성화되는 교육 현장을 위해'를 주제로 사찰 승가대학 교수

'질문 · 토론' 주제 교육
대립 · 원탁토론 등 실습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사찰승가대학에서 질문과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연찬회는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연찬회 첫 날에는 유동걸 영동일고 교사가 철학적 사고를 일깨우는 발문과 화두법을 시작으로 경전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식 토론과 소크라틱 세미나, 하브루타를 비롯해서 사고력을 기르는 고전식 토론과 세타토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등의 대립토론, 창조성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원탁토론,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 노란 테이블 토론, 승가대학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수법에 대한 자유토론 등을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한다. 2일차에는 강영미 한미 메디칼 매너 서비스센터 원장이 경청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교수법을 강의하고 실습을 한다.

교육원은 "이번 연찬회는 승가대학 전 수업이 토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찰승가대학의 상주 교수스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를 토대로 승가교육이 경전이나 선어록 등 질문과 토론 형식으로 이뤄진 승가교육의 전통을 확산하고, 전법포교 현장에서도 살아 숨쉬는 설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이기봉 스님	월	오후 1시 ~ 7시	약간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조현성 스님	수	오후 1시 ~ 7시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최원허 스님	목	오후 1시 ~ 7시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조인각 스님	금	오후 1시 ~ 7시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심만춘 스님	화	오후 1시 ~ 4시	*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7년 8월 14일 ~ 8월 25일**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사찰청년회 네트워크로 불교 미래 다진다

대불청 미래세대委, 하반기 청년불자 결집 목표

2030 프로그램 기획 등
눈높이 맞춘 접근 통해
흩어진 청년불심 모은다
종단과 시너지 효과 기대

종교인구 감소와 젊은 세대 이탈이 두드러지는 한국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불교청년회가 올 하반기부터 사찰청년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불자 결집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0일 출범하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불교청년회 산하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장재열)는 최근 내부진단을 통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각지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찰청년회들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불청은 현재 구성원 대부분이 과거 청년세대인 데다 젊은 불자의 부족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사찰청년회 네트워크 조직 △지구단위 청년불자 유입경로 확보 △2030세대 위한 프로그램 마련 △자유로운 신행활동 장려 등 4가지 주제의 계획을 세웠다.

대불청이 사찰청년회 네트워크 조직을 핵심사업으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사찰청년회 임원들간 교류 욕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BTN불교라디오 '울림'서 방송을 진행하는 장재열 위원장이 패널로 참가하는 사찰청년회장들과 만나며 알 수 있었다. 특히 조계사와 봉은사 청년회가 교류하면서 서로 행사를 지원하고, 친밀도가 높아지는 유의미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대불청 미래세대위는 수도권부터 시범적으로 네트워킹 욕구가 있는 사찰청년회장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장재열 위원장은 "많은 사찰청년회장들이 다른 청년회는 어떻게 활동하고, 회장으로서의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지 관심이 크다. 대불청은 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소위 '마담 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청대회 같은 공식행사를 벗어나 젊은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청년불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게 한국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불청은 청년불자 유입경로 확보를 위해 광역시·도별 지구에 20~30대 미래세대위원들을 두고, 지방서 불교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또래의 불자가 없어 이탈하는 청년이 발생하는 농어촌 불교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대불청은 전망하고 있다. 미래세대위원들은 각 지역에서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추후 인원 유입에 따라 그룹단위로 활동한다.

또한 2030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기존 대불청이 실시한 다양한 행사 중 청년불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을 선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과거 청년불자이기에 참여자격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불자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대불청에 따르면 남북통일을 주제로 한 '통일열차'와 만해 스님 유택인 심우장서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생생문화재', 카라반 20여동을 빌려 실시한 '글램핑 송년법회' 등이 청년불자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신행활동 장려를 위해 일원화된 법회서 벗어나 청년불자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신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김성권 대불청 중앙회장은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종단 미래세대위원회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단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 등 거시적인 관점서 접근한다면 대불청은 일선 현장서 미래불자를 양성해내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흩어져 있는 청년불자들이 규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불청은 2030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존 행사 중 청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것을 선별할 계획이다. 사진은 대불청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청년불자 육성 프로젝트로 2013년 기획한 통통콘서트. **현대불교 자료사진**

'막말파문' 금강대 총장 자진 사퇴

7월 28일 서울 관문사서 열린 금강대 제89차 이사회서

한광수 금강대 총장이 7월 28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제89차 이사회서 자진 사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5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이사장인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의 불참으로 회의를 주재한 부이사장 춘광 스님은 이사회 직후 "한광수 총장이 자진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고, 현 상황 수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참석한 재가이사 전원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가이사로는 이봉춘·홍승기·조창희·최방길 이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사표 수리 등 공식절차는 8월 11일 열리는 이사회서 진행된다.

당초 오후 1시에 예정된 이사회는 1시간 늦춰진 2시경 시작됐다. 이사회 전 이사들이 모여 인사를 나눈다는 명목이었지만 이 자리서 몇몇 이사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인 측은 언론보도 내용과 노조 측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마련했지만 결국 총장 자진사퇴로 금강대 사태는 일단락됐다.

한편 금강대는 학교규정에 따라 당분간 김창남 교무지원처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또 최근 금강대 법인사무처장이 교체된 만큼 낮아진 학교 위상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섭 기자



文 대통령, 오대산 상원사서 시민들과 '찰칵' 7월 30일~8월 5일 6박7일간의 여름휴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2일차인 31일,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고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시민들과 셀카를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개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평창을 첫 휴가지로 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 사진출처=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④ 파리에 대하여

박쥐와 동거… 자연 이치 깨닫다

제목만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프랑스 파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짐작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예술의 도시 파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름철만 되면 극성을 부리는 집 안의 불청객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아마도 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음식에 붙어 있는 파리는 혐오감 내지는 적대감이 든다. 너석이 음식에 붙어 먼저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파리가 음식을 훔쳐간 일은 없을 터. 파리가 음식에 붙는 까닭은 눈곱만큼이라도 좀 나눠먹자는 너석의 배짱이 아닐까.

사람들은 파리를 보면 유독 적의를 드러낸다. 파리채를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파리에게 치명적인 살충제를 뿌린다. 이처럼 잔인한 가해자인 사람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파리는 사람만 보면 지레 '용서해 주세요' '세상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듯 앞다리를 내밀고는 싹싹 빈다. 그런데 파리가 앞다리를 비비는 것은 잔털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 앞다리의 빨판으로 먹이를 잘 빨고, 냄새를 맡기 위해서라고 한다. 동정심이 싹 가시는 파리지만 그래도 앞다리를 들고 비는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은 왠지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법정 스님도 깔끔한 성격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방 안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꼴을 보지 못했지만 연세가 드신 뒤부터는 앞다리를 들어 비는 파리를 어쩌지 못하겠더라고 얘기하며 웃으셨다. 그 말씀 끝에 나는 내 얘기를 덧붙였다. 한때는 인정사정없이 파리를 잡았지만 산중으로 내려와 살다 보니 미물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사실 내 산방 터는 원래 파리와 같은 곤충, 벌레들이 살던 곳이었으니 나는 그들의 주거지를 빼앗은 무단침입자일 수도 있었다. 산방을 지은 지 한두 해 동안 나는 모기와 파리는 물론이고 뱀과 지네 등이 출현하여 애를 먹었다. 집개로 지네를 집어 산방 밖으로 보내주는 일은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일러스트 · 정윤경

나는 파리를 퇴치하되 살생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했다. 파리채로 살짝 충격을 주면 파리가 기절한다는 것을 알고 살려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는 파리와 모기가 방안에서 저절로 사라졌다. 나는 그 이유를 우연히 알았다. 박쥐가 산방의 환기구로 들어와 살면서 파리와 모기를 끼니거리로 삼았던 것이다.

물론 그날 이후 산방에서는 살충제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박쥐와의 동거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린 박쥐가 밤중에 머리맡에 떨어져 잠을 깬 적도 있었던 것이다. 안사람은 기겁을 했지만 어린 박쥐를 보니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린 박쥐 등을 만져보니 찹살모찌처럼 감촉이 말랑말랑 부드러웠다.

올해는 겨울잠에서 깬 박쥐가 늦게 돌아온 것 같다. 보름 전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루에 검은 쌀알 같은 박쥐 똥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박쥐가 돌아와 활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파리에게는 몹시 불운한 일이지만.

"박찬주 부인 갑질, 헌법·법률 위배"

공관병에 종교행사 강요 의혹… 시민사회 비난 '봇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자신의 종교행사 동반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8월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박 대장의 부인은 일요일이면 불자인 병사를 강제로 교회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수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들의 간식을 챙기라고 하는 등 도 넘은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박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한 공관병이 이들 부부의 갑질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줬다.

불교계에서도 군인의 종교 자유 및 인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를 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류상태)은 8월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면 공관병 및 조리병을 교회에 데려갔다. 불자도 있었으나 별수 없이 교회를 따라갔다고 한다"면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종자연은 이번 사태가 박 대장의 문제만이 아닐 것임을 시사하며 "인권친화적 환경의 군대 문화로 가꿔 가야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 고위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기2561 단기4350년

기(氣)에너지가 넘치는 호신불 달마시계!!

부부화합, 건강, 명예, 재물, 합격,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만사형통의 상징입니다.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불자님들께 성불하시라고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

기(氣) 심령연구가 정음스님
www.kgf21.kr

옴은 우주, 마니는 지혜 반메는 자비를 뜻하며 훔은 마음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
이 시계를 착용한 사람은 모든 팔란이 소멸될 것이다.

부처님의 의미는 첫째는 지대한 관심과 둘째는 확신과 의욕이며 셋째는 성취와 깨달음이 담겨있어야 한다. 부처님과 합일하려면 자신과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옴마니반메훔은 모든 번뇌와 죄악은 소멸되고
지혜와 바른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





호신불 시계(1개) : 138,000원
(남녀셋트(2개) : 238,000원)

시계구입 불자님들께
큰스님께서 축원기도 올려 드립니다.

(제조사 : 오리엔트)

- IPG 24K공법으로 완성된 케이스
- 세미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 최상의 금도금 24각 커팅 베젤 스타일
- 최고급 사각보석 12개 문자판에 식입
- 최고급 JAPAN 무브먼트
- 3기압방수, 3ATM
- 최고급 보석 용두
- 문자판 내부에 부처님상 양각화
- 스테인레스 스틸 메탈밴드



호신불 벽시계(고급비단표구액자)
가로 : 29.5cm 세로 : 59cm 두께 : 4.5cm
천가지 재난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만가지 복이 구름일듯이 일어난다.

호신불 벽시계 : 180,000원

큰스님을 모시고 시계점안식 장면



일체의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옴의 형상과 부처님 상을 양각하여 부처님의 법력으로 만사형통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불전에 큰스님을 모시고 점안식을 거행하여 모든 분들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며 또한 삼재팔란 액운을 소멸하여 사업, 운전, 건강, 취직, 학업의 성취를 이루도록 축원하여 드립니다.

호신불 달마 시계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번창을 원하시는 분
- 가정에 평안을 발원하시는 분
- 육신에 병고가 찾아와 기운이 없으신 분
- 마음이 어지러워 꿈자리가 뒤숭숭 하신 분
- 수험생 자녀가 계신 분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문화 포교회
등록번호 : 017-05-01

추천 : 사법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문화관광부 법인설립허가 제 6 호

상담문의 1588-4164

입금계좌 (농협) 351-0949-7000-63 예금주: 불교조계종관음사

일 주 문



동국대 2000만 원 기부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8월 3일 동국대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칠석맞이 3일기도

지현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8월 26일 대웅전에서 칠석맞이 3일 기도 '좋은인연 발원'을 개최한다.



학업원만성취 관음기도

원명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8월 9일 경내 법왕루에서 제2차 학업원만성취 100일 관음기도를 개최한다.



목포대 명예박사

여연 스님은 8월 24일 한국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에 대한 공헌으로 목포대서 국제차문화과학협동과정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



청와대 국가안보 자문 임명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7월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내소사, '한여름밤의 시' 템플스테이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석정문학관장 정군수 시인을 초청해 '한여름밤의 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7월 29~30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린 템플스테이에는 석정문학관 회원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첫날인 29일에는 정군수 시인이 '시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조 5수를 낭송하고, 송도 3절에 버금가는 변산 3절인 매창과 유희경, 직소폭포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매창의 시조 한 편을 소개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그동안 개방하지 않던 봉래루를 일반인에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대중이 불교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바로 잡습니다〉 제1158호(8월 2일 발행) A11면의 '노인요양시설 자비원 선재관 낙성' 기사에서 제목 및 본문에 '신재관'으로 나간 것을 **'선재관'**으로 바로잡습니다.

"사천왕상 장학회 정착에 앞장설 터"

Interview

김경숙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자라나는 청소년을 불자로 키워내는 인재불사는 불교대학 동문들을 더욱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천왕상 장학회의 활동을 주목해주세요."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동문회장 김경숙)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불교대학 총동문회 장학회'를 출범했다. 조계사 불교대학은 1989년 설립 이후 3000여 졸업생을 배출해 온 불교계 대표 불교대학으로, 동문들의 힘을 모아 청소년 인재불사에도 나선 것이다.

김경숙 6대 총동문회장은 8월 3일 "3대부터 고민해온 장학사업을 구체화했다. 향후 청소년 불자를 양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들이 만든 장학회의 별칭은 사천왕상 장학회다. 초기 장학기금 1000만원에 1000명의 동문이 월 1000원을 모연해 100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시작은 좋다. 벌써부터 1500만원이 넘는 장학기금이 모였다.

보통 다른 사찰의 경우 불교대학 출신 동문들이 따로 뭉치기가 쉽지 않다. 동문 조직이 활성화돼있지 않아 신도회 차원서 불교대학 출신들을 관리한다. 하지만 조계사 불교대학의 경우 불교대학 건물 내 사무실을 두고 회원 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다.

불교대학 졸업자 역량 결집

CMS 등 모연 진행 예정

청소년 인재불사에 사용

성지순례 · 체육대회도 개최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기획부, 교육부, 문화부, 포교부, 신행부, 봉사부, 재무부, 홍보부 등 총 8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교대학 졸업 기수별로 부서장이 배정돼있다. 고문 10명을 포함해 전체 임원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

장학사업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총동문회장은 "조계사 홍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했으면 한다. 특히 최근 줄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CMS 후원 모연을 비롯해 봄, 가을 성지순례와 체육대회 등 더 많은 참여와 봉사정신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불교대학을 통해 맺은 인연공덕을 실천으로 회향하는 동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불사는 한국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로 조계사 내에서 시작하지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회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한편, 7월 2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창립기념법회에는 300여 불교대학 졸업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53선지식 구법여행 21번째로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을 초청해 '보르부드르에 꽃핀 선재동자'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주지역 수재민돕기, 자비의 손길 이어져

불교 각 종단 수해 구호·지원 나서

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이사장 홍파)은 8월 1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청주지역 수재민들을 위하여 구호물품 백미 2,000Kg를 청주시청에 전달했다.

7월 중순 청주시 전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진행하여 27일 청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관음종복지재단 이사장 홍파 스님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많은 수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행정당국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도산)과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안)도 수해의연금 1000만원을 충북도청을 찾아 전달했다. 도안 스님은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불자들이 십시일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사진 오른쪽 세 번째)이 청주시청에 쌀 2000kg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7월 25일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도 충북도청에 3000만원을 전달하고, 총지종이 7월 27일 괴산군청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보은 법주사가 8월 1일 충북도청에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청주시불교연합회(회장 현진)가 100만원을 청주시청에 기탁했다. BBS청주불교방송(사장 장산)이 7월 31일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불자들의 수해 복구 기금 전달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 수해의연금은 8월 2일 기준 총 1만 2119건에 24억 4000여 만원이 모연됐다. 자원봉사인력은 총 4만 1255명이 동원된 상태다. **노덕현 기자**

달라이라마방한위, 총무원 예방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공동대표 금강)는 7월 28일 조계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추진회의 지난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자리에는 금강 스님, 월호 스님, 목종 스님, 구본일 BTN사장 및 김행수 불자영화감독과 배우 전무송 씨가 참석했다. 금강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달라이라마 어록이 담긴 책을 선물로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법주사 승려 스피치 특강



보은 법주사(주지 정도)는 7월 28일 본말사 스님들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스피치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는 임흥순 KBS청주방송 총국장이 나서 사회 이슈에 맞는 법문 형식에 대해 강연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스피치 특강을 통해 보다 많은 스님들이 설법의 현대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 7월 환자 치료비 지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8월 2일 경기 남양주 불암사에서 '7월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7월 선정환자는 △압박골절 환자 박백순(여 · 72) 100만원 지원 △급성 호흡부전 환자 무스탁(남 · 43) 200만원 지원 △구획증후군 환자 김재윤(가명 · 남 · 44) 100만원 지원을 비롯해 간이식을 받은 익명의 스님 100만원 지원 등 총 4명이다.

일면 스님은 이날 "많은 분들이 정성으로 모금해 준 치료비를 통해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여름보다 뜨거운 '염불행자' 수행 열기

[현장]
전국염불만일회, 20주년 염불정진대회

"모든 이들 차별 없고 나무아미타불, 정각세계 이뤄지고 나무아미타불, 국토장엄 선행하며 나무아미타불…."

뜨거운 여름, 아미타 48대원이 밀양 재악산 자락에 울려 퍼졌다. 아미타부처님 명호 한 번에 절을 하는 사람, 박수를 치는 사람, 합장하는 사람까지 모습은 제각기 다르다. 하루 1만 번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염불 속에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를 외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여름보다 뜨거운 염불정진대회 현장이다.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는 7월 28~30일 2박3일간 밀양 표충사에서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20년차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염불만일회는 1998년 8월 6일 고성 건봉사에서 1100여 명의 염불행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염불만일회를 결성한 바 있다.

호국성지 표충사서 용맹정진
전국 염불행자 250여명 동참
"힘차게! 신나게!" 환희 가득


전국에서 모인 염불행자들이 목탁소리에 맞춰 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있다. 전각 뒤로 우거진 재악산의 녹음이 한여름 더위를 잊게 만든다.


동산불교대학 능인풍물반의 천수북 공연은 염불행자들의 신명난 정진을 독려했다.


두 눈을 감은 채 염주를 돌리며 아미타불 염불에 매진하는 불자의 얼굴이 진지하다.

20년차를 맞아 열린 이번 염불정진대회는 특별히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에서 열렸다. IMF 시기 국난극복을 위해 결성된 전국염불만일회 의미를 새롭게 하자는 취지였다.

입재식에서 동산반야회 법주 법산 스님은 "조선시대 국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당시 사명대사가 일본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곳에서 새롭게 인연을 쌓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상우 전국염불만일회 염불정진대회장은 "사명대사의 얼이 담긴 호국성지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로 가득 채워 가벼운 마음으로 귀향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은 "불교는 일찍이 옛날부터 민중의 귀의처 역할을 담당해왔다. 호국불교의 기치를 더 높이고 갈등과 분열 속에 방황 중인 한국에 화합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자"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염불결사의 목적으로 △한국불교 정토화 △호국불교역할 담당 △신원행(信願行) · 믿음 · 발원 · 행으로 일심불란의 신심염불 △경전 공부를 통한 균형 잡힌 신행 등을 강조한 뒤 새로운 염불결사에 불자 대중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은 "염불결사를 통해 호국의 의미를 찾고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했다.

올해 염불정진대회는 28일 입재식으로 시작해 철야로 이어졌다. 동산범패반의 신중작법, 법산 스님의 법문, 나무아미타불 1만송 염불정진이 밤새 이뤄졌으며, 29일 새벽예불과 더불어 표충사 경내서 행선염불 · 선무도 체조가 진행됐다. 또한 신명나는 공연도 이어졌다. 동산불교대학 능인풍물반의 천수북 소리에 맞춰 불자들은 함께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신명난 정진으로 나아갔다.

한여름 주말 표충사 계곡을 찾은 관광객들도 염불정진이 이뤄진 표충사 우화루 옆에서 발길을 멈추고 천수북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재악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은 뜨거운 열기를 식혔고, 바람에 땀을 씻은 250여 불자들은 합장한 채 눈을 감고 산골 깊은 곳에서 아미타부처님을 칭명하며 장엄한 메아리를 연출했다. 이외에도 한국전통무용과 다도 퍼포먼스, 영남 농악, 선무도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30일 마지막 날에는 아미타 독경과 안동일 회장의 염불법문 및 회향식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도반들과 함께 정진해 얻는 힘이 크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동훈 동산불교대학 33기 회장은 "목탁 소리만 들어도 평소 신바람이 났다. 그러다 포교사 활동을 하면서 '집에서 혼자 염불 수행하는 게 어렵다'는 도반의 말을 듣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며 "염불정진대회는 도반과 염불을 하면서 환희심을 얻고 배우는 기회가 된다. 함께하는 힘은 정말 크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혜진 불자(동산불교대학 45기)는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 또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염불행자 도반들을 만나니 즐겁기 그지없다"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하루하루 기도의 연속이라 환희심 그 자체"라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염불대회 20년차를 축하하고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서로 격려하는 선물증정식도 이어졌다. 김성우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대표는 책 〈반주삼매경 심요〉를 보시했으며, 태고종 혜견 스님은 부채에 직접 〈반야심경〉을 적어 대중에게 선물했다.

김성우 대표는 "염불결사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선물했다"며 "처음 염불결사를 시작할 때 공동 대표였던 김재일 법사님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분과의 인연이 떠올라 이 자리가 더욱 귀하게 생각돼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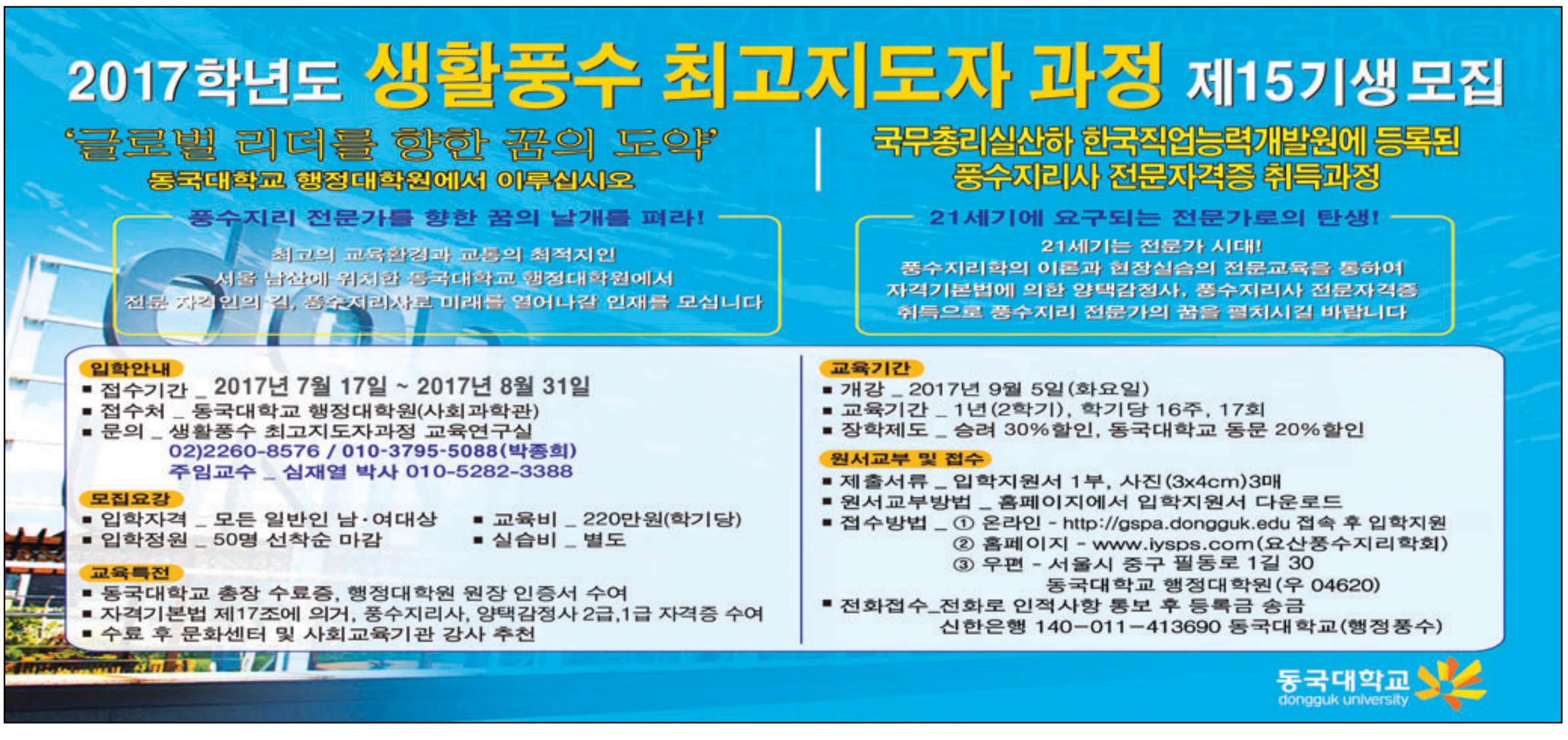
혜견 스님은 "현장 법사님이 적으신 여러 〈반야심경〉 가운데 특별히 해인사의 장경각에 적힌 것을 인용했다"며 "염불과 함께 경전을 바탕으로 더욱 수행 정진하고, 무더운 여름 번뇌를 식히듯 청량한 바람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20차년도 염불정진대회'에는 동산법주 법산 스님,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 표충사 성천 스님, 진홍 스님, 이상우 전국염불만일회 염불정진대회장,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 박문태 동산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종현 동산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염불만일회는 통일신라 758년(경덕왕 17년) 발징 화상이 고성 건봉사에서 염불만일결사를 맺은 것이 효시다. 이후 제2차는 1802년(순조 2년)에 결성해 1850에 회향, 제3차는 1851년(철종 2년)에 벽오유총 스님이 결성해 1863년에 회향, 제4차는 1881년 만화관준 스님이 결성 1908년에 회향, 제5차는 1908년 금암의훈 스님이 열어 정진 회향했다.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던 염불만일회는 잠시 중단됐다가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故김재일 법사와 건봉사 주지 해장 스님, 현재 동국대 총장인 보광 스님 등이 공동대표로 6차를 결성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밀양 표충사=하성미 기자



"행자생활 경험, 나를 돌아보는 계기"

월정사 단기출가 50기 배출

3000여 명 입교해 행자 체험
10%인 300명 출가 이끌어
연중 · 연령별 출가학교로 변모



단기출가 20기 졸업식에서 참가자들은 출가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사찰은 불교 신행의 공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속세의 번뇌를 끊고, 잠시나마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머리나 깎고 출가나 할까'란 말은 '농사나 지으며 살까'란 말과 함께 속세의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중들의 말이다. 하지만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없듯이 출가 또한 쉽게 할 수 없다. 이 또한 또 다른 인연이 닿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출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이 있다. 바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7월 23일 50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세상에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는 출가학교의 표어처럼 단기출가학교는 진정한 출가의 의미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2004년 9월 개설됐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서는 남성은 모두 삭발하며,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삭발한다. 행자과정을 체험하는 일이기에 스님들과 선문답을 나누는 시민선방이나 템플스테이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예불하고, 5시에 108배와 참선, 6시 30분에 발우공양, 7시 20분에 운력 및 도량 청소, 9시 강의, 11시 20분 점심 공양, 12시 30분 걷기, 13시 30분 강의, 16시 소임별 운력, 17시 20분 저녁 공양, 18시 30분 저녁 예불, 19시 정진, 21시 취침으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행자생활을 그대로 가져왔다.

빡빡한 일정에도 개설 당시부터 행자생활을 체험하는 단기출가학교는 인기였다. 접수 10일만에 600명이 신청해 조기마감하기도 했다.

단기출가를 통해 그동안 동경해 오던 출가생활을 경험한 불자들은 13년간 3000명에 달했다. 이중 10%인 300명이 출가했다.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에서 종사하거나 불자로서 봉사로 회향의 삶을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50기 동안 출가학교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매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연중 출가학교로 변모했다. 성격도 세분화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를 비롯해 가족출가학교, 주부 여성 출가학교, 마음출가학교, 청년 출가학교, 외국인 출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 출가학교도 운영 중이다.

50기 졸업식에서는 새로운 변화 지점이 시사됐다.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0기 행자들에게 '비워낸 후 또 다시 채워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시대 흐름과 사회 변화에 맞춘 단기출가학교의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월정사는 10월 11일부터 1주일간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를 운영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터민 불교 인재들, 월악산서 소통하다

통일바라밀숲, 7월 18~19일 한벗학교 청소년에 멘토링



통일바라밀숲은 7월18~19일 KDB산업은행의 지원으로 닷돈재 야영장서 새터민 생태나누리 캠프를 진행했다.

남한 사회가 아직 서툰 10대 새터민들에게 대학생 새터민들이 나서 멘토링을 해주는 뜻 깊은 캠프가 진행됐다.

통일바라밀숲(대표 남지심)과 새터민 대안학교 한벗학교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7월 18~19일 충북 제천 닷돈재 야영장서 '월악산 생태나누리 캠프'를 실시했다. 이 캠프는 새터민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사회의 정착과 통일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40여명의 참가자들은 △월악산국립공원학습 △캠핑교육 △캠핑용품만들기 △월악산계곡물놀이 △캠핑음식 만들기 △모닥불과함께 낭만토크쇼 △만수계곡 관찰로 트레킹 등을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특히 낭만토크쇼에서는 한벗학교 청소년들의 입시 · 진로 문제를 통일바라밀숲 대학생들이 멘토링 해주기도 했다.

남한 사회서 동떨어진 것 같다는 한 고등학생의 고민에 대학생 참가자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남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고 고민하라. 또래 아이들과 무조건 부딪치며 남한 아이들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서 오래 살아 한국말과 공부가 어렵다는 학생에게는 "북한과 교육과정이 다르기에 공부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럴 땐 책을 많이 읽어라. 나는 고등학교 야자시간 내내 책만 읽었다. 그것이 대학 와서 큰 도움이 됐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벗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김미진 양(가명)은 "다른 새터민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공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많아서 놀랐다"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서 꼭 언니, 오빠들처럼 멋진 대학생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일바라밀숲은 2013년 출범이후 매년 30여명의 새터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매 해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캠프를 진행해 새터민 아이들의 단합을 도모해왔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남한의 이슈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화엄경 등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다.

통일바라밀숲서 불교신도가 됐다는 새터민 대학생 홍재원 군(가명)은 "불교를 알게 되고 매주 법회를 나간다.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함께 법회에 참여하고 싶다. 남한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때 법구경 보왕삼매론이 힘이 됐다"며 보왕삼매론을 줄줄 외웠다.

또 다른 새터민 대학생 최지언 군(가명)은 "기독교는 이미 탈북자를 많이 돕고 있다. 중국으로 '전진 배치'해 선교 · 지원하며 은신도 돕는다"고 밝히며 "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교단체는 많지 않다. 불교적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진실을 가깝게 볼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를 주최한 남지심 대표는 "통일이 되기 위해, 또 통일 된 이후를 위해 새터민들에게 남한과 불교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금 새터민의 90%는 기독교와 직 ·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남지심 대표는 "기독교 단체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새터민을 돕고 있다. 반면 불교의 새터민 지원은 미미하다.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됐을 때 불교가 설 자리가 없다. 미래 불교인재로 대학생 새터민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통일바라밀숲은 현재 25명의 대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불교계서 이 일에 관심을 가지면 대학생 108명 모으는 것은 금방일 것"이라며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제천=박진형 수습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선 사이코 드라마' 특강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8월 18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개운사 내 불교상담개발원 강의실에서 서울불교대학원대 초빙교수 효록 스님을 강사로 여름방학 특강 '선 사이코 드라마'를 개최한다.

사이코 드라마는 즉흥극을 이용하는 하나의 상담기법으로 각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치료를 돕는다.

불교상담개발원 측은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발성과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불자들은 적극적으로 연락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8월 31일 불교상담개발원 강의실서 불교상담심리 전문가인 장영수 한국상담심리학회 수퍼바이저를 초청해 면접상담 공개사례 발표회를 연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수행자 과정 모집

동국대 국제선센터(센터장 수불)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선수행자 과정을 개강한다. 선수행자 과정은 모두 5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9월 7일 개강하는 비교선수행실습은 달마 이입사행론, 혈맥론, 천태의 오성론, 신수의 관심론 등 중국 선사상과 인도의 요가수행을 비교 연구하는 강좌로 김택단 교수가 진행한다.

9월 6일에는 현견 스님의 유마경 강의 김홍근 교수의 전심법요 강의도 개강한다. 9월 8일에는 박재용 박사의 '명상과 과학' 강좌가 개강해 마음의 안정과 행복한 생활로 이끄는 명상의 과학적 근거와 체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9월 7일에는 황수경 박사의 선과 마음치유 실습도 열린다.

이 과정은 11월까지 12주에 걸쳐 열리며 수강료는 28만원이다. 3과목 이상 수강할 시 '간화선 집중수행' 수료증이 발급된다. (02)2260-3891

노덕현 기자

복지종사자, 죽음준비교육 실시

태평1동복지회관서 8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12주간

태평1동복지회관(관장 박왕호)은 노인관련 보건 · 복지 ·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Well Bye) - 생(生)과 사(死)의 인생수업'을 주제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8월 23일 오후 4시 개강하는 이번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씩 총 12회에 걸쳐 죽음의 공포와 불안, 노인자살, 애도, 임종기환자 케어, 호스피스, 상장례 제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죽음 교육은 특히 노인복지관 등에서 진행해온 노년층 대상 '웰다잉' 교육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의 및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노인 상담과 케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박왕호 관장은 "노인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죽음교육을 받음으로써 노인들에게 죽음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개발시킬 수 있다"며 교육 취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생명존중 동화구연 자격증 특강

불교여성개발원, 8월 30일부터 개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8월 30일부터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강의실에서 생명존중운동을 위한 동화구연 3급 자격증 과정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조정현 동화구연가와 임정애 건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말하기 표정, 동작의 연기술' '특성있는 동화구연과 창작' '3급 실기 대비 연기 지도와 연습' 등을 지도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그동안 동화구연에 대한 강좌를 6월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왔으며, 이번 특강은 9월 17일 3급 시험에 대비한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생명존중 강연분야는 다양한 사회 각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화구연을 비롯한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불자들의 사회참여를 늘릴 수 있다"며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화두와 씨름해 한 생각 지속되게 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서인완월문생각(犀因翫月紋生角)이요 상피뇌경화입아(象被雷驚花入牙)이로다.

물소가 밤에 달을 구경하니 뿔에서 문채가 남이요, 코끼리가 우레 소리에 놀라니 꽃잎이 어금니 안으로 들어감이로다.

일구(一句)의 진리를 파헤치는 이 최상승의 선법(禪法)은 알기가 무척 어렵거니와 담담해서 별 맛이 없는 고로, 소인지배(小人之輩)는 대개 소승법(小乘法)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이라. 그러나 이 법을 닦아 행(行)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부처님의 대도(大道)의 진리를 얻을 수 없음이라. 부처님의 대도의 진리는 허공보다도 넓고 넓어 가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외도(外道)들이 비방하려고 해도 비방할 수가 없고 칭찬하려고 해도 칭찬할 수가 없는 법이다.

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삼하구순동안 불철주야 참선정진을 한 것은 바로 이 심오한 진리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다.

금일은 삼하구순(三夏九旬)의 날들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하안거 해제일이라. 만약 대중들이 구순안거(九旬安居) 동안에 목숨을 떼어놓고 모든 반연(攀緣)과 습기(習氣)를 다 놓아 버리고 참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두를 들었을진대는, 개개인이 모두가 장부(丈夫)의 활개를 쳤을 것이다.

산승이 회상(會上)을 열어 몇 번이나 결제를 하고 해제를 맞이했던가! 다시금 해제일이 돌아온 금일, 과연 이 해제일을 맞아 장부의 활개를 칠 자가 있는가! 그런데 '알았다' 고 당당하게 나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니, 대체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온갖 분별(分別)과 망상(妄想)과 혼침(昏沈)에 시간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화두일념(話頭一念)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니 그 허물을 뉘우치고 각성(覺醒)하여, 해제일이 되었다고 이산 저산으로 정신없이 유랑(流浪)을 다니거나 화두를 걸망에 넣어두고 불수(不修)의 만행(萬行)으로 정진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됨이라.

이 공부란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 정진의 열기를 식히지 않아야 함이라. 그렇지 않으면 안거의 수만 늘어날 뿐, 수행의 진취가 없는 것이 이 때문이라.

다시금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마음속의 모든 반연을 다 쉬어 버리고 오로지 화두와 씨름하고 씨름해서 한 생각이 간단(間斷)없이 지속되게끔 하여야 할 것이라. 한 생각이 지속되는 이 삼매(三昧)에 들게 되면 천 사람이면 천 사람이 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어 있음이라.

수행자는 대오견성(大悟見性)만이 해제하는 것이라고 다짐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발심하고 발원하여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만번 하여야 할 것이라. 〈중략〉

중국의 오대산(五臺山)은 예로부터 문수보살 도량(道場)이라고 하여, 문수보살을 예배하고 친견하고자 하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당시에, 이 오대산 가는 길목에 한 노파가 있었다. 오대산을 찾아가는 스님들이 그 노파에게 오대산 가는 길을 물으면, 노파는 "바로 쭉 가시면 됩니다"하고는, 그 스님이 너 댓 걸음 걸어가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라고 말했다. 길을 묻는 스님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인도했던 것이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趙州) 선사께 이 일을 말씀드리니, 조주 선사께서 들으시고는 "내가 가서 그 노파를 혼내주겠다"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도 지혜의 눈이 열린 이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그 뜻을 아는 법이다. 조주 선사께서 즉시 그 노파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는 다른 스님들처럼 오대산 가는 길을 물었다. 그러자 노파 역시 다른 스님들에게 했던 것처럼 "바로 쭉 가시오"라고 했다.

조주 선사께서 몇 걸음 옮기시자, 이번에도 노파는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했다. 조주 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절로 돌아오셔서 대중들에게, "내가 그 노파를 혼내주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부처님의 진리의 눈이 있다. 대체 어느 곳이 조주 선사께서 그 노파를 혼내준 곳인가? 산승(山僧)이 그 노파를 보건대는, 백주(白晝)에 도적을 지어 천 사람 만 사람을 기만하고 있음이요, 조주 선사를 보건대는, 후백(侯白)의 도적이라 하더니, 다시 후흑(侯黑)의 도적이 있음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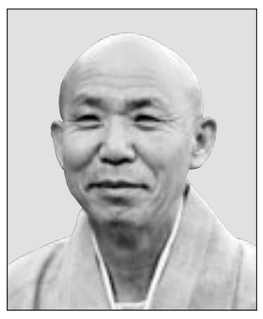
어느 날 조주 선사께서 행각(行脚)시에 한 암자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있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암주(庵主)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주먹을 내미니, 조주 선사께서 "물이 얕아서 이곳에는 배를 대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가버리셨다.

또 어느 암자를 방문하셔서, "있고, 있느냐" 하시자, 이 암주(庵主)도 역시 주먹을 내밀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주 선사께서, "능히 주기도 하고, 능히 빼앗기도 하며, 능히 죽이기도 하고, 능히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禮拜)하고 가셨다.

두 암주(庵主)가 똑같이 주먹을 내밀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보는 바가 다르냐!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조주 선사의 기봉(機鋒)을 알겠는가? 〈하략〉

불법이 세간법, 세간법이 불법이로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법원재세간(法元在世間)이요
어세출세간(於世出世間)이라
출세간법은 원래 세간에 있나니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야 하느니라.

본분 상에서 말하자면 결제가 곧 해제이고 해제가 곧 결제입니다. 결제할 줄 아는 자가 해제할 줄도 압니다. 만약 결제와 해제가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는다면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이라 할 것입니다. 〈중략〉

마른 것은 결제법입니다. 무성한 것은 해제법입니다. 결제법은 털어내는 공부이니 마를수록 좋고 해제법은 더하는 공부이니 무성할수록 좋습니다. 마른 것은 출세간법이고 무성한 것은 세간법입니다. 마른 법을 써야할 때는 가차 없이 마른 법을 쓰고 무성한 법을 써야할 때는 과감하게 무성한 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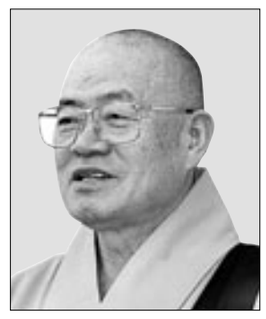
절집에서 오래 머문 운암과 담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간 법 출세간법을 나누는데 익숙했지만 절에 온지 얼마 안 된 어린 사미는 아직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나눌 줄 몰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눌 줄 모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나눌 줄 알게 되며, 나눌 줄 알게 된 이후에는 다시 불이법(不二法)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길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깨닫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더라도 그 곳은 세간이며 도를 깨달은 이후에는 어디에 있더라도 그 곳은 출세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안목(眼目)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법즉세법(佛法卽世法)이니 기가간시제비야(豈可揀是除非耶)며 세법즉불법(世法卽佛法)이니 영수척속숭진야(寧須斥俗崇眞耶)리오

불법 그대로 세간법이거늘 어찌 옳은 것을 가려내고 그른 것을 제거 하겠는가? 세간 법 그대로 불법이거늘 어찌 속계(俗界)을 배척하고 진계(眞界)만을 숭상하겠는가?

알지 못하면 해제가 아니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기괴암굴사자서(奇怪岩崛獅子棲)하고 청수심곡교룡거(淸水深谷蛟龍居)로다. 사미용수능발취(獅眉龍鬚能拔取)하고 취저롱금요사인(吹笛弄琴了事人)이로다.

기괴한 바위굴에는 사자가 머물고 맑은 물 깊은 계곡에는 교룡이 살고 있다. 사자의 눈썹과 용의 수염을 능히 뽑고 피리를 불고 거문고를 희롱해야 일 마친 사람이로다.

금일 해제일이니 삼신산 풍경을 환견요철마(還見了徹)아

약아요철자(若也了徹者) 인댄 차도일구래(且道一句來) 하라

나개시진면목(那箇是眞面目)고? 양구(良久)에 일할(一喝) 운(云)

춘개화추성실(春開花秋成實)하고 하녹음동백설(夏綠陰冬白雪)하니

여시만법(如是萬法)이 시수가풍(是誰家風)인고? 회마(會)아

약야불회(若也不會)인댄 문하해제(云何解制)리요 청제대중(請諸大衆)하노니

일념반조(一念反照)하야 즉하료철대사(卽下了徹大事)어다.

오늘은 해제날이니 삼신산 풍경을 도리어 투철히 보았는가? 만약 투철히 본 자일진댄 한마디 일러보라. 어느 것이 진면목인고?

봄에는 꽃피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여름에는 녹음 짙고 겨울에는 흰 눈 오니 이와 같은 만법이 누구의 가풍인고? 알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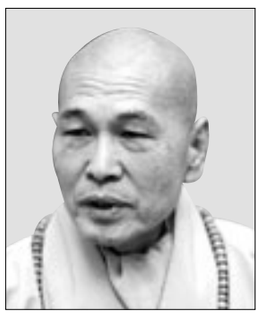
만약 또한 알지 못했을진댄 이를 어찌 해제라 하리요. 모든 대중에게 청하노니 한 생각 반조해서 즉하에 생사일대사를 요달할 지어다. 〈중략〉

제각만사상(除却萬思想)하고 긴파승두간(緊把繩頭看)하라. 반조착안시(反照着眼時)에 요득생사필(了得生死畢)하리다.

만 가지 생각을 제하고 긴하게 화두를 잡아 간하라. 반조 착안할 때에 생사 마침을 요달해 얻으리라.

是邪是正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중흥선사(仲興禪師)가 도오선사(道悟禪師) 회하에서 시봉하고 있을 당시 한번은 도오 스님께 차를 올리는데 스님께서 중흥스님에게 "사(邪)인가?, 정(正)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중흥 스님은 도오 스님 앞으로 나아가 정면으로 도오 스님 존안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도오 스님께서는 "사(邪)는 항상 사(邪)이고 정(正)은 항상 정(正)이다"라고 하셨지요.

중흥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도오 스님께서 되물으시길 "그렇다면 자네의 견해는 무엇인가?"하니 중흥 스님은 도오 스님이 잡고 계시던 찻잔을 빼앗더니 반문을 하였습니다.

"사(邪)인가?, 정(正)인가?"

도오 스님께선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시며 "자네는 나의 시자라고 일컬어 질만 하구나!"하시니

중흥 스님께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도오 스님과 중흥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正), 사(邪)란 말 속에는 깊은 선리(禪理)가 들어있습니다. 소위 "삿된 사람이 정법(正法)을 말하면 바른 법도 삿되게 되고 바른 사람이 사법(邪法)을 말하면 삿된 법도 바르게 된다"는 말이 그런 것이지요. 명의가 독약인 비소를 처방하면 좋은 약이 되듯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邪)는 항상 사(邪)이고 정(正)은 항시 정(正)"이라는 것입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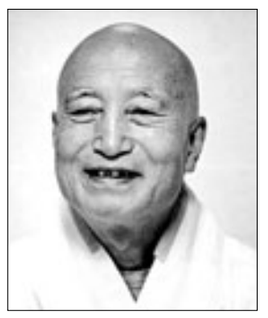
선(禪)은 자주, 해탈, 안정이 있으며 즐거움이 생기는 원천입니다. 선에는 보물이 아주 많아 늘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의 경계에도 집착은 금물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바로 그것은 환(幻)이기 때문입니다. 선의 기쁨에 마음이 일어나면 그 순간 헛된 환의 경계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금강반야경에 과거심도 잡을 수 없고 현재심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잡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니 마음이란 것은 환영이요, 무상하여 잡을 수도 없고 얻을 바도 없는 것이기에 이 이치를 깨달으면 단박에 해탈하게 됩니다.

어떠합니까? 금번 하안거가 즐겁고 좋았습니까?

마음(心)은 종잡을 수 없고 변화가 무궁하여 달리는 말이나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무궁하기로 선리(禪理)는 어떤 경우에는 사실로써 설명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리로써 해석을 합니다. 우주세간에는 사실 속에 도리가 있고 도리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수미산이 한 알의 겨자씨에 들어가기도 하고 겨자씨 한 알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말이 그러한 뜻입니다. 〈하략〉

무료함이 성불 이르게 한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자기(自己)의 본래 모습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윤회의 바퀴에서 헤매게 된다. 우리의 목적은 첫째는 자기의 참 모습을 찾는 것이요, 둘째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계율이 청정해야 한다.

삼계는 인과의 세계이고 오음의 세계이다. 오음과 습성과 번뇌를 없애려면 계행으로 수도의 몸을 만들어야 한다. 계정혜 삼학은 만고에 규범이다.

그러나 공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다생에 지은 집착과 업력 때문인데, 선(禪)을 수련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단조로우며 무료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 무료와 단조로움을 꿰뚫어야 한다.

이 무료함은 모든 망상을 해소하여 지혜를 내뿜게 하고, 무료는 비할 데 없는 침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료는 뿌리를 뽑을 수 있고, 이 무료는 인생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고, 이 무료는 결국 성불에 이르게 한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나를 찾는 공부에 쏟아 부어라.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사용하여 윤회의 업, 고통의 업을 만드는데 써서 되겠는가. 수행에 몰두하면 에너지는 수행의 에너지가 되고, 성교할 때는 에너지가 성(性)의 문으로 들어가 성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는 중성이다. 에너지가 어느 문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곧 그곳의 에너지로 변한다. 에너지를 수행에 쓰면 영성의 에너지로 변한다. 모든 에너지를 도(道)의 문으로 향하게 한다면 탁업(濁業)에 빠져들 일은 없을 것이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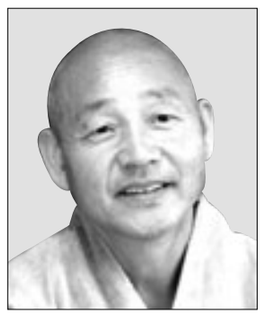
명심이 인(因)이라면 견성은 과(果)이고, 견성이 인이라면 입도가 과이다. 입도가 인이라면 무아가 과이다. 철저한 무아가 성취되기 전에는 용무생사는 있을 수 없다. 지무생사와 계무생사, 그리고 증무생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 더 높은 용무생사를 향해 갈 뿐이다. 환경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정력(定力)은 정력이라 할 수 없다. 철수개화(鐵樹開花)요, 화중생련(火中生蓮)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회광반조(回光返照)는 계속 되어야 한다.

천연한 본래 성품 어디에 있나. 밀밀히 빛을 돌려 잊지 마라. 갑자기 의심덩어리가 부서져 없어지면 산하대지를 일시에 거두리라.

천연본성재하방(天然本性在何方)
밀밀회광절막망(密密廻光切莫忘)
맥득의단성분쇄(驀得疑團成粉碎)
대지산하일시수(大地山河一時收)

그대가 약왕(藥王)입니다

영축총림 방장직무대행 성파 스님



여하시병(如何是病)고
별기시병(鼈起是病)이니라
여하시약(如何是藥)고
불속시약(不續是藥)이니라

무엇이 병인가? 잠시 일어나는 망념이 바로 병이다.

무엇이 약인가? 망념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약이다.

대중이 여름 석 달 안거 동안에 산문 출입을 삼가며 처절하게 정진해 왔는데 이는 중생의 병을 없애는 약을 찾아서 대자유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일어나는 망념을 바로 인식하고 그 망념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바로 화두참선을 하는 방법입니다. 혼침에 빠지지 않고 성성하게 망념을 살피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문득 안개가 걷힐 때 본래 경치가 그대로 드러나듯 본래 구족한 지혜덕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을 먹고 이러한 효험을 보아야만 다시는 병에 끌려 다니는 일이 생기지 않는 대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중략〉

본분사를 해결한 사람은 화살 하나로 능히 한 무리의 번뇌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대중이 미혹했을 때 일으키는 생각 생각이 병을 만들었으나 이제 그러한 일이 지속되지 않게 하는 약을 얻었으니 이 어찌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해제를 하고 산문을 나서는 납자들은 선불장에서 익힌 지혜력으로 한 무리의 병을 제거하는 양의(良醫)가 되고, 인천의 스승으로 수행과 교화를 법답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신본비식(法身本非食)이요
응화역여연(應化亦如然)이어늘
위장인천익(爲長人天益)하야
자비작복전(慈悲作福田)이로다.

법신은 본래 음식을 먹지 않으시며
응신 화신도 또한 그러하거늘
길이 인천의 이익을 위해
자비로 복전을 지으셨네

부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듯이 우리 납자들도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교화해야 합니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흰 소가 될 때까지 고삐를 이끌어라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⑤ 소와 목동 이야기 ㊥-2

십우도송의 제5단계 '목우(牧牛, 소를 길들이다)'를 보면, "채찍과 고삐를 쉼 없이 사용해 곁에서 여의지 말라. 그대가 한 걸음씩 티끌 속세로 들어감이 두렵다"라고 나옵니다. 수행이 아주 조금 된 경지에서는 마음에서 의심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타부타 의심하고 헤아리고 핑계대면, 다시 티끌 먼지(埃塵, 속세) 속으로 다시 떨어질까 두렵다고 하네요. 그러니 더욱 고삐와 채찍을 몸에서 떼지 말고 쉴 새 없이 가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자가 애초서부터 손에 들고 있던 '고삐와 채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편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많은 수행자들에 의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지속하느냐', 어떻게 하면 '오온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군요.

'채찍과 고삐'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죽비이기도 하고, 선사들의 우레와 같은 사자후이기도 하며, 허를 찌르는 공안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또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자, 선지식의 가르침이며, 격려해주는 수행 도반이기도 합니다. 염불이자 명상이자 좌선입니다. 즉, 수행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방편들입니다. 곽암선사의 십우도에서는 소를 길들이는 '목우'가 단지 한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벽화의 해당 장면을 보면, 검은 소가 반 정도가 하얗게 변하여 있습니다.〈도판 참조〉

그리고 다음 장면은 '기우귀가(騎牛歸家)'로 동자가 완전히 모두 하얗게 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입니다. 반면, 보명선사의 목우10송은, 제1 장면부터 제8 장면까지 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장면 중에 마지막 두 장면을 제외하고는, 무려 8장면이 모두 소를 길들이는 광경입니다. 그러니 제명(題名)이 소를 길들인다는 뜻의 '목우(牧牛)'임에 마땅하네요.

등불은 저절로 밝아지진 않는다

보명선사의 목우송은 '번뇌와 무명'(소)을 타파하는 과정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생의 업장은 소멸시키기 어렵군요. 나를 생기게 한 업력의 힘은 세세생생 켜켜이 묵은 것이라, 깨닫지 못한다면, 아승지겁의 세월 만큼인 듯합니다. 미쳐 날뛰는 통제 불능의 소(중생의 마음)를 잡아, 유(有)에서 무(無)로, 색(色)에서 공(空)으로 가는 여정이 수행자로서의 인생인가 봅니다.

보명선사 목우송의 제3장면 '수제(受制, 차츰 길들여지다)'에서는 검은 소의 머리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번뇌가 닦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의 한 켠에는 이 장면에부터 보름달 같은 지혜의 원상이, 목동을 지켜주는 등대처럼, 나타나 있답니다.

제4장면 '회수(回首, 머리를 돌리다)'에서는 더 이상 소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목동이 이끄는 방향으로 소의 머리를 돌렸습니다. 욕망의 질주에 고삐가 채워지고, 이제는 그 마음이 전환하여 아예 방향을 돌렸네요. 속세로 개념으로 가치로 갈애로 향하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확실하게 몸을 틀었습니다.

제5장면 '순복(馴伏, 완전히 길들이다)'에는 소의 몸 색깔의 반 이상이 하얀 색입니다.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될까요. 더 이상 번뇌와 망상이 흔들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림 속의 목동은 고삐를 더 이상 꿰고 있지 않습니다. 고삐와 채찍을 쓰지 않아도 소가 저절로 목동을 졸졸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제'의 내용은 "점점 조복되어 쉬었다가 달아나고/ 물을 건너고 구름을 뚫고 걸음걸음 따르네/ 손으로 고삐 줄잡고 조금도 늦추지 않으니/ 목동은 종일토록 스스로 피곤함도 잊었네"입니다. 수행이 되는 듯 싶다가도 다시 나락이었다가를 반복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수행이 골라지고 균형을 잡아갑니다. 목동이 잡은 고삐를 절대 늦추지 않는다 하니, 이때 중요한 것은 꾸준한 지구력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행의 결정적인 진보가 있는 '회수' 단계입니다. "날이 오래고 공력이 깊어 비로소 머리를 돌리니/ 넘어지고 미친 심력(心力)이 점점 골라져서 부드럽네/ 목동은 온전히 다스려 허여를 즐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삐를 잡고 더욱 단단히 매어서 머물게 하네" 이 단계에 오면, 수행이 퇴보할 우려는 없는 듯합니다.

'순복'은 "푸른 버들 그늘 아래 옛 시냇가에/ 놓아가든 거두어 오든 저절로 그렇구나/ 해 저물고 푸른

중반에 접어든 십우도 살피면
검은 소의 색깔이 희게 변화해
수행 통해 반야지혜 증득 표현
십우도, 화두 타파 전제한 지침

구름 낀 향기로운 땅/ 목동은 돌아가며 굳이 이끌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에 정진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혜의 마음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제6장면 무애(無碍) · 제7장면 임운(任運) · 제8장면 상망(相忘)에 이르기까지 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체에서 검은 색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 검은 기운이 엉덩이 부분에 남고, 다시 꼬리에 남고, 다시 꼬리 말단까지 남아서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검은 기운이 완전하게 사라졌을 때는 소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깨어남'이란 무엇인가

십우도에 첫 장면부터 등장하는 동자는 무명(소)은 없애는 지혜(智慧)입니다. 즉, 중생 누구나 갖고 있다는 불성(佛性)입니다. 자각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이것을 개발하느냐 못하느냐, 개발하더라도 얼마만큼 강하고 성성하게 키워 나가느냐가 수행의 관건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어째서 동자로 표현되었을까요. 지혜가 갓 깨어났기 때문일까요. 혹은 순수하고 깨끗하여 물들지 않은 지혜의 성품을 표현한 것일까요.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라는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깨어남'에서 완전한 '깨달음'으로까지의 여정을 상세하게 도해한 것이 〈십우도〉라 하겠습니다. '깨어남'의 표현인 동자가 어떻게 '완전한 열반'을 성취해가, 그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목우(牧牛, 소를 길들이다)'를 표현한 순천 송광사 〈십우도〉 벽화. 검은 소가 반 정도 하얗게 변해 있다.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의 저자 아디야 샨티는 '우리는 속이고 있는 것을 직시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자아관념에서 진정한 우리의 본성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알고 지내던 모든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동안 우리라고 여겨왔던 초라한 자아관념 따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우리를 '지켜보는 그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깨어남이 있은 뒤에는 '수행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의 은사는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그것(깨어남)은 이제 막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다.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해서 등불이 저절로 환하게 밝아지진 않는다. 이제 막 깨어난 낯선 세상 속으로 향해 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깨어남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켜보는 그것'에 대한 눈뜸입니다. 이를 '반야' 또는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대승불교는 이 반야를 완성해가는 것, 즉 '반야바라밀'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이는 선정 체험을 통해 자각될 수 있기에, 참선이 중요합니다. 참선의 방법 중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역대 선사님들을 통해 검증된 것이, 간화선입니다. 화두 참구를 통해, '보는 놈', '아는 놈'이라고도 말해지는, 반야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보는 그것이 궁극의 본성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켜진 등불이 항상 켜져 있지는 않고 또 저절로 그 빛이 환하게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갓 태어난 이 반야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갓 깨어난 반야는 십우도에서 동자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보명선사의 목우도에는 첫 장면 '미목'에서 동자와 소가 함께 등장합니다. 하지만 곽암선사의 십우도에는 '심우'와 '견적',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까지 동자만 홀로 나타납니다. 동자가 먼저 나타나 두리번거리며 소를 찾고 그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십우도는 화두 타파를 전제로 한 수행지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 속의 반야가 모습을 드러낸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야라는 불성은 중생 누구나에게 있고 만물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옷 속에 감춰진 보배일 뿐이요, 진흙 속의 진주일 뿐입니다.

반야가 이미 모습을 드러내어 주체로서 소를 찾고 있으니, 이는 돈오점수의 수행법을 암시합니다. 돈오점수란, 수행자가 진리를 문득 깨닫고(頓悟), 그것을 생활로 삼으려 하나 전생의 업력과 현생의 습관이 강하게 작용하여 단박에 실천이 되지 않기에 점차적으로 닦아 나아가는 것(漸修)을 말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묘사한 것이 〈십우도〉입니다.

자기 자신 속의 반야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는 '검은 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두 참구나 좌선 등을 통해 한 번 잠시라도 자신 속의 반야지혜에 불을 밝히면 그것에 의지하여, 업의 습관을 녹이고 완전한 지혜(또는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토막 불교상식

반야란?

반야는 2반야 · 3반야 · 5종반야 등으로 분류된다. 공반야(共般若)와 불공반야(不共般若)로 구분되는 2반야는 〈지도론(智度論)〉에서 주장한 것으로, 천태종에서 이 설을 많이 따르고 있다.

공반야는 성문 · 연각 · 보살의 삼승(三乘)을 위하여 설한 반야의 법문으로, 〈반야경〉 등의 여러 대승경전이 이에 속한다. 불공반야는 일승(一乘)의 보살만을 위하여 말한 것으로, 〈화엄경〉이 이에 속한다.

3반야는 문자반야(文字般若) · 관조반야(觀照般若) · 실상반야(實相般若)이다. 반야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채택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원효 등의 고승들은 이에 대해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다. 문자반야는 부처님이 설하여 문자화된 경 · 율 · 논을 전부 통칭한 것. 관조반야는 경 · 율 · 논의 글자나 말에 의하여 진리를 알아내고 이 진리에 의해서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 실상반야는 관조반야를 통하여 체득되는 궁극으로, 신라의 원효는 여래가 감추어진 중생이 곧 이것이라 하여 실상반야가 곧 여래장(如來藏)이라고 정의한다.

세계불교지도자 경전6차 결집 장소에 다시금 집결하다

2600년의 염원이 드디어 성취되다

세계불교 법왕청 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사야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불교지도자 정상회의에 불교 지도자이신 법하를 초청하였습니다

불교국 각 나라 승왕 및 연방승가회 회장, 세계불교지도자 총 결집 정상회의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대승과 소승(트라와다) 불교가 하나가 되어 오늘의 불교 현실을 바라보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한구석에서 안주하는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탈피하여 지구촌 구석구석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사의 해가 어둠을 뚫고 솟아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법왕청 중앙정부의 관리, 운영, 조직에 착수하였으며 미얀마에 법왕궁을 두고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왕궁 중앙정부 설립 또한 불교수호협회 관리하에 불교수호협회 회장께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환희심이 가득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루시는 경이로운 기적을 봅니다. 모든 준비는 미얀마 종교성의 후원과 불교수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미얀마 까바에 동굴사원 (6차 결집 장소)
■ 한국에서는 10월 11일 출발합니다.
■ 행사 및 성지순례 220만원
■ 자세한 일정은 문의하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국가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대만, 중국, 몽골
■ 주최 : 사단법인세계불교 법왕청 ■ 주관 : 미얀마 세계불교수호협회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참석 신청 일시 : 2017년 8월 15일까지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층)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 문의처 011-229-6061. 010-7487-7090. 010-4467-9600

‘특화 · 마케팅’ 으로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박태원 대표, 한국불교학 82집서 논문 발표

철학 · 가치 담은 브랜딩 만들고
숲 · 음식 등 특화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참여 관리체계 도입해야
지역 연계한 관광 · 지원책 필요

한국의 대표 문화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철학과 가치를 담은 브랜딩, 지역과 연계한 관광과 지원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태원 한국물류포럼 대표는 한국불교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불교학〉제82호에 발표한 ‘우리나라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 에서 현재 템플스테이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분석 · 제안했다.

현재 템플스테이 현황에 박 대표는 “템플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문화 · 사회적 기대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국내 · 외 참가자의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대표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은 증가세에 있지만 2013년 이후 증가세는 9% 선에서 머물고 있다. 이는 2004~2015년 연평균 증가율 19.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내국인 참가자 86.8%로 비중이 높았으며, 상위 20개 사찰이 전체 참가자 수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 역시 62.8%가 불교수행 문화, 사찰 생활 체험으로만 구성돼 “사찰별 특성이 반영된 특화 프로그램 비중이 낮다”고 박 대표는 분석됐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으로 △템플스테이 브랜딩 △사찰림 · 사찰음식 등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관광자원 활용 · 연계 △외국인 참여 확대 위한 관리 체계 마련 △자유학기제 연계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시장 중심형 마케팅 전략 추진 △템플스테이 전문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템플스테이 브랜딩에 대해 박 대표는 “템플스테이 기획은 프로그램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맞춰 브랜드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사찰과 차별화되는 이미지와 콘텐츠를 구축하는 시장 중심형 템플스테이, 브랜드 템플스테이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 프로그램의 예로는 사찰림을 활용한 숲 체험과 사찰음식 연계 프로그램을 들었다. 특히 박 대표는 사찰음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제시하며, “사찰음식의 관여도가 템플스테이 체험 만족과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했다”면서 “일선 운영 사찰들이 사찰음식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개발함으로서 템플스테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을 세분화해 표적 시장을 확인하고 구별할 것과 재방문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한번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SNS 상의 소통과 관련 운영을 하거나 새로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 소식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자원 연계 · 개발을 비롯해 지자체들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 대표의 제언이다.

시장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박 대표는 “템플스테이가 수요자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템플스테이 제공 가치를 관광 · 정신건강 · 교육 · 복지 · 소통 가치로 구분해 목표 시장과 추구 편익 등의 전략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신행 혁신운동을 고찰하다

불광연구원 ‘전법학연구’ 12호 발간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불교 신행 혁신운동을 통시적 관점서 고찰한 기획논문들이 담긴 〈전법학연구〉 12호 〈사진〉를 발간했다.

지난 7월 30일자로 발간된 12호는 4개 주제 총 16편의 논문으로 구성됐다. 기획논문으로 ‘불교신행 혁신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통시적으로 조명한 논문 4편과 논평 2편, ‘아시아 재가불교와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인도,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5개국 학자가 발표한 논문 6편이 게재됐다.

기획논문 첫 주제인 ‘불교신행 혁신운동의 이념과 역사’는 불교사의 변곡점마다 나타난 신행혁신 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지혜를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인 ‘아시아 재가불교와 불교의 미래’는 인도,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재가불교 현황을 살펴보고, 불교발전을 위해 재가불자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아시아불교의 현황과 미래를 다뤘다.

또한 광덕 스님과 함께 불광운동의 초석을 다졌던 흥교 스님과 송석구 前 불광법회장의 인터뷰도 눈길을 끈다. 특히, 광덕 스님의 전법행과 불광운동의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는 최초 증언이라는 데 이번 인터뷰는 의미가 크다.

동산 대종사의 제자로 오랫동안 광덕 스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전 범어사 주지 흥교 스님은 광덕 스님에 대해 “한국불교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선지식”이라고 평가했다. 흥교 스님은 인터뷰를 통해 성철 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권했지만 대중교화를 위해 도심 포교에 전념한 일화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불광법회 법회장을 지내면서 불광운동의 한 축으로 활동했던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은 “광덕 스님의 불광운동은 순수불교 운동”이라고 회고했다. 송 이사장은 광덕 스님의 순수불교는 불교의 기복적 요소를 일소하고 불교의 본래 모습을 지향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순수불교의 핵심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체”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현대 아시아 불교국가들이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불교전통을 복원하고 부흥시켰는지 짚어본 ‘전법리뷰’도 게재됐다.

신성민 기자

한국 불복장 의례 고유성을 논하다

동국대 · 이대, 11~12일 세미나

한국의 불복장 전통과 의례의 고유성을 알리는 국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이화여대박물관(관장 장남원)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화여대 박물관 강의홀서 ‘불복장’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의 국제인문학 프로젝트인 ‘불교와 동아시아 종교’와 협력해 이뤄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임스 롭슨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리처드 맥브리드 하와이 브링햄영대 교수 · 정우택 동국대 교수 · 홍지희 맥길대 교수 등이 좌장으로 참여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 발표에는 한국 불상의 복장 의례에 대한 쟁점과 과제부터 시대별 복장물에 대한 이해, 불화 복장물 등 한국과 해외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불복장 전통과 의례의 고유성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학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코자 한다”면서 “동아시아 불복장에 관심있는 학자와 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려 교장 조사 · 연구, 새 장 열겠다”

고려대장경硏 · 미노부산大 7월 31일 학술교류협약

문헌 조사 · DB 구축에 목적 “불교서지학 초석 놓는 사업”



고려대장경연구소와 일본 미노부산대학은 7월 31일 중앙신도회관 3층 회의실서 고려 교장문헌의 조사와 연구, 학술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명 ‘팔만대장경의 주석서’로 잘 알려진 고려 교장 문헌을 조사 · 연구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와 일본 미노부산대학은 7월 31일 중앙신도회관 3층 회의실서 고려 교장문헌의 조사와 연구, 학술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모치즈키 카이에 미노부산대학연구소 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 협약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추진하는 ‘동아시아 고려교장문헌 조사 및 DB구축사업(교장프로젝트Ⅱ)’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2020년 2월까지 3년간 추진된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 5년 동안 ‘디지털 대장경’을 기치로 ‘초조대장경’과 ‘고려교장’ 그리고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으로 이어지는 고려대장경의 계보를 되찾고자 ‘고려교장 결집 및 DB구축사업’을 실시했다. 그간 ‘고려교장’은 고문헌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을 통해서만 전해졌는데, 여기에 수록된 장소(章疏) 문헌을 일본과 중국, 국내 등지에서 찾아 조사하고 DB화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미노부산대학 및 구원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 교장 문헌을 조사 · 연구하게 된다. 또한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은 “교장문헌을 모아서 연구하면 당시 불교학의 판도를 읽을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주석서이니 정리해두면 동북아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에는 복각본 뿐 판본은 존재하지 않는데 미노부산대학에는 판본이 존재한다. 판본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치즈키 카이에 연구소장은 “미노부산대학은 구원사가 설립한 종립학교다. 구원사와 미노부산대학에 있는 자료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학자들이 연구해 준다니 감사하다”며 “양국 학자들이 모여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더불어 향후 세계 여러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박진형 수습기자

심화과정 신설된 ‘한문아카데미’ 오세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한문불전 역경 인재 양성과 불교학 연구자들의 한문 해독 능력 배양을 위한 ‘한문아카데미’가 문을 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한문아카데미 2학기 연수생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번학기부터 기존의 과정보다 전문화된 심화과정도 신설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 정원은 30명이며 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학력이면 지원 가능하다.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의 정원은 10명이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면 지원 가능하고 필기고사 전형이 있다.

연수 희망자는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 대학(원)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력 증명서와 함께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연수생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해야 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정규과정, 수료증 발급)의 경우 학기당 16주(3~6월, 9~12월) 강의를 총 4학기 수강하며 30학점을 이수하면 수료하게 된다. 일반연수생은 학기별로 과목당 신청 가능하다.

과목은 △유식30송(월, 묘주 스님) △원전으로 본 불교교리(화, 현진 스님) △장자(수, 이형성) △유마경(목, 정운 스님) △맹자(금, 한재훈) 강의가 실시된다. 강좌는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심화과정의 경우 별도로 일반연수생을 모집하지 않고 10여명의 선발연수생만 모집하며 기본과정과 동일하게 4학기동안 30학점을 이수하면 수료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번 학기는 △현우경(월, 성재헌) △조론(수, 박해당) △선문염송(금, 박해당) 강의가 진행된다.

문의 (02)6713-5154

신성민 기자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7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채움보다 비움의 미학으로

평범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시인은 배가 고파야 시(詩)를 쓴다. 배부른 시인, 할 일 많은 시인, 명예를 쫓는 시인은 시(詩)쓰는 일을 게을리 한다. 창작에 대한 목마름, 설렘이 졸아들었기 때문이다.

시 쓰는 작업보다 다른 일에 정신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생활이 풍요로우면 시에 대한 열망과 의욕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배부른 승려가 있다고 치자. 그 승려는 색깔만 승려일 뿐 승려의 본분사(本分事)에서 멀어진지 오래일 터이다. 순수와 진솔함은 사라져 속물근성으로 뒤바뀌고 타산적 계산놀이에 분주함만 더할 터이다.

순수해야 할 신앙마저 흥정의 대상이 되고 넘치는 재력으로 조직 따위를 길들이고 있다면 그는 무늬만 승려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구도자는 아닌 것이다.

어떤 분이던 승려가 되기 위해 처음 생각을 굳힐 때는 크고 작은 장벽의 괴로움에 뜬눈여행을 겪었을 것이다.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며 환희심으로 발심(發心)하는 분도 있고 모태신앙에 젖어 막연하게나마 승려의 꿈을 키운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출가(出家)의 관문은 통과의례처럼 석가모니의 사문유관(四門遊觀)처럼 무상함과 괴로움 허무의 그림자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출가 동기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을 리 없으므로 이쯤해서 출가이후로 넘겨보자.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變正覺)'이란 말이 있다. 처음 발심 그대로 바른 깨달음을 완성한다는 의미일 터이다. 처음에 발심했던 그 마음 그대로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라는 경책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많은 스님들이 9할이 넘는 스님들이 초발심시변정각의 마음으로 다지고 채찍질하며 게으름 없이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다만 지극히 일부이긴 하나 초발심(初發心)이 변하여 깨달음이 아닌 제도권의 오욕락에 물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신도 숫자 늘리는 일이 사찰경제에 보탬이 되는 계산놀이에서, 사찰 홍보가 부처님의 가르침 중심에서 영험설화를 흉내내는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불교계 언론매체의 광고에는 상식과 기본이 흔들리는 상업성 사찰 홍보물이 쏟아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력없는 스님들이 출연을 자제하면 좋으련만 교수와 거사설법이 공감대를 더욱 키워가는 현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열려있으나 그 열린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녹이는 구도열망은 날로 엷어지고 있다. 현실적 타협을 앞세워 제도권의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신도들의 주머니는 비어있어도 주지스님의 주머니는 비어있는 경우는 드물 터이다. 신앙이 돈으로 흥정되어 거래 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 편히 돌아가신 분들의 천도재도 사찰 찾아 지낼 수 없을 만큼 500만원, 1000만 원에서 턱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에게 가난은 부끄러움 아냐
초발심 충실한 승려 덕목을 지켜야

승려가 신도들을 위해 울리는 목탁에도 기도기간에 따라 동참금도 비례하여 올라가는 현실이다. 궤도 이탈을 즐기는 일부 사찰에서는 사주풀이와 부적을 팔아 지성인들의 실망과 외면을 키우고 있다.

지극히 일부이긴 하나 TV에 출연하는 스님들의 장삼과 가사가 천연실크로 된 몇 백만 원짜리 옷을 걸쳤다면 가난한 대중 앞의 떳떳한 옷차림일 수 있겠는가? 조금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며 승려의 본분사(本分事)에서 크게 이탈하지 말 일이다. 상식이 통할 수 있게 기본에 충실한 승려의 기본덕목을 지켜야 한다.

비구는 걸사(乞士)이다. 승려의 몸에 걸치는 가사는 원래 분소의(糞掃衣), 똥 닦고 걸레질하던 천으로 이어 만든 옷에서 비롯되었다. 수행자에게 있어 가난은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부끄러움이 될 수 없는 법이다. 욕심은 키울수록 병(病)을 키우지만 버림과 비움은 텅 빈 충만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바른 길이다.

원상(圓相)으로 법을 드러내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원상(圓相)은 둥근 모양 곧 동그라미(○)를 말한다. 보통 일원상(一圓相)이라고 말하는데 굳이 원상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하자면 모든 상대적 분별이 사라져 원만하게 최후의 절대 진리가 구현된 경지를 나타내는 부호(符號)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상을 선종에서 활용해 온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일반적으로 원상을 두고 진여(眞如), 법성(法性), 불성(佛性), 또는 실상(實相)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말해 오기도 했지만 선종에서는 그런 개념마저도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떤 의미의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손가락이나 불자(拂子) 또는 주장자 등으로 허공이나 바닥에 원상을 그려놓고 선기(禪機)를 드러내거나 상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원상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남양혜충(南陽慧忠:?~775) 스님이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 선사가 먼저 사용했다는 설도 있다.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경산도흠전(徑山道欽)〉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조 선사가 경산 스님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편지 안에는 글이 없고 원상 하나만 그려져 있었다. 편지를 뜯어본 경산 선사가 원상 안에 점을 하나 찍어 다시 봉하여 마조 선사에게 보냈다. 이 이야기를 혜충 국사가 전해 듣고 말했다.

"경산이 마조에게 속았구나."

〈선문염송설화〉 165칙에는 어떤 학인이 찾아왔을 때 마조 선사가 원상 하나를 그려 놓고 말했다.

"들어와도 때리고 들어오지 않아도 때릴 것이다."

그러자 학인이 원상 안으로 바로 들어왔고 마조 선사는 그를 때렸다. 학인이 말했다.

"스님은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마조 선사는 주장자에 기대어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또 남전이 귀종, 마곡 두 스님과 함께 혜충국사를 찾아가던 도중 길바닥에 원상 하나를 그려 놓고 말했다.

"제대로 말하면 함께 가겠다."

그러자 귀종 선사가 그려놓은 원상 안에 들어가 앉았고, 마곡 선사는 여인의 절을 하였다. 남전 스님이 이렇다면 가지 않겠다고 하자 귀종 선사는 "무슨 속셈인가?"라고 했다. 남전 선사가 두 스님을 불러 되돌아갔다.

〈설화〉에는 길바닥에 원상 하나를 그려놓은 뜻이 무엇인가? 원상의 제작이 혜충 국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상을 그려 그를 만나려 한 의도라고 하였다.

〈금강경오가해〉 '설의'에도 원상에 대한 이야기가 설해져 있다.

"원상을 만든 것이 남양혜충 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국사가 탐원(耽源) 스님에게 전해주고 탐원 스님이 앙산(仰山) 스님에게 전해 주었다. 탐원 스님이 어느 날 앙산 스님에게 말했다.

'국사가 육대조사의 원상 97개를 나에게 주시면서 내가 멸도한 뒤 30년쯤에 한 사미가 남방에서 와 크게 현풍을 드날리게 될 것이니 그때 이 원상을 전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살펴보니 그대를 두고 말한 것 같아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니 잘 받들어 지니도록 하라.'

그런데 앙산 스님이 원상을 받았다가 불에 태워버렸다고 한다. 탐원 스님이 뒤에 이를 알고 제불 조사가 전한 것인데 어째서 태웠냐고 묻자 한 번 보고 그 뜻을 이미 알아버렸으니 일상에 쓰는 것이 원상이니 견본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한다. 탐원 스님이 다시 자네는 그렇다 치고 뒤에 사람은 어쩔 것이냐고 하자 앙산 스님이 다시 원상을 그려서 탐원 스님에게 바쳤다고 한다.

원상을 그려서 주고받았다? 도대체 원상의 정체는 무엇인가?

원상송(圓相頌)이라는 게송이 전해진다.

"옛 부처 태어나기 전에 / 한 둥근 모양이 엉켰으니 /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했거늘 / 가섭이 어찌 전할 손가? (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법을 전하되 전함이 없는 부전(不傳)의 묘(妙)를 원상을 차용하여 대변시킨 것 같다. 원상의 사용이 인도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부법장전(付法藏傳)에 서천 14조 용수보살이 법좌에서 몸을 숨기고 원상(○)을 나타내자 제자 제바가 말한다.

"존자께서 부처님 몸의 형상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이시는구나."

때론 원상을 보름달에 비유한다. 무상삼매(無相三昧)가 보름달과 같다 하고, 이는 불성이 막힘없이 트여 텅 비고 밝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⑤보살의 즐거움

勝解脫品第十七

更有餘三昧定慧境界眾生皆悉作佛。以有此三昧故不欲取於解脫。頭陀除一切過惡寂滅如在口中。ßk濟者為眾生苦故而不證取。

定慧悲自生/ 見世間眾苦/ 世間ßk濟者/終不越度去

如海潮終不過限。修悲者百劫苦行。若能度於一人終不出生死力。能得解脫。為眾生故處於生死。於三種施一切時常如節會。不樂己樂為他作樂。日夜於生死中而不處。歡喜快樂如處涅槃。菩薩常為眾生作利益業歡喜樂味智。菩薩乃於夢中得歡喜樂。勝於解脫。菩薩得為他作樂歡喜氣味。諸有眾生不得氣味證於解脫。

번역 | 승해탈품 제17

한편, 나머지 삼매와 정혜의 경계로 중생이 모두 부처를 이루나니, 여기서 삼매가 있기에 해탈을 취하려하지 않으며 두타행으로 일체의 과오를 제하니 적멸이 입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된 구제자는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려 해탈을 취하지 않습니다.

선정과 지혜와 자비로 스스로 나서/ 세상의 중생을 보나니/ 세상의 진정한 구제자는/ 끝내 훌쩍 건너가지 않습니다.

조류가 끝내 한계를 넘지 않듯이 자비 수행자는 백겁의 고행을 하되, 만약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생사의 힘에서 끝내 벗어나지 않나니, 해탈을 얻을 수 있어도 중생 때문에 생사에 거합니다. 세 가지 보시에는 언제나 절기처럼 모이고, 자신의 즐거움은 즐기지 않으며 타인을 즐겁게 합니다. 밤낮으로 생사에 머물지 않으며, 환희와 쾌락에는 열반에 머무는 듯합니다. 보살은 늘 중생의 이익 되게 하려 지혜의 맛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업을 짓습니다. 보살은 꿈에라도 즐거워하는 것은 수승한 해탈이니, 보살은 타인을 위하는데서 즐겁고 환희를 맛보되 중생은 해탈을 증득할 기미를 얻지 못합니다.

해설 |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입 안에 먹을 걸 넣어두고 배고플 것을 걱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수행자에게 해탈이란 것도 그렇다.

순간순간 삼매 속에서 사니 무슨 해탈을 따로 구하려 하겠는가.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을 걱정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언제나 평안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사조차 이미 생사가 아닌 수행의 길에서는 힘겨운 삶과 생사의 파도에 휩쓸려도 두려움이 없다.

오로지 수행자는 삼시(三施)에 나아감에 있어 명절의 모임에 가는 것 같은 기쁨으로 나아간다도 제바 보살은 설한다. '삼시(三施)'란 재물을 보시하는 재시(財施), 법을 보시하는 법시(法施),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無畏施)다. 또한 보살이 즐겨 맛보는 것은 지혜라고 말한다. 그 지혜의 즐거움은 역시 남을 기쁘게 하는데서 얻을 수 있고, 남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라고 말한다.

남을 기쁘게 하는 지혜의 방법으로는 두타행(頭陀行)을 실천한다고 설한다. 두타행이란 의식주(衣食住)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말한다. 수행자는 부하면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면 가난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이다. 어떤 도반이 내게 한 고백이 생각나서 소개하고자 한다.

"출가할 때 생각했었지. 이생에 출가하여 부처님 법을 배우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저 논두렁을 베고 누운들 무슨 아쉬움이 있겠는가."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2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1대 (자체 USB탑제)
② 입력 450W 대출력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중고 앰프 다량 보유!"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삼광사 어린이 문화 캠프

7월 29~30일 250명 참가

부산 삼광사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불교문화를 익히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7월 29~30일 어린이 문화캠프를 경내에서 진행했다.〈사진〉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 삼광사에서 주관한 이번 문화캠프에는 부산경남어린이 및 인솔자 250명이 참가했다.

문화캠프는 연꽃 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발우공양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 및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며 "캠프 기간 동안 영어, 수학, 국어 등 공부는 모두 잊고 부처님 품 안에서 잘 쉬고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며 힘을 얻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삼광사 템플스테이사업단에서는 상시로 휴식형, 체험형, 일반형 등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코레일과 업무협약으로 '내일로(열차프리티켓 상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익형 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因果法, 한 치의 벗어남 없어"

천불사,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초청법회 봉행

대중에게 법공양으로 회향하고 불사의 참된 의미와 공덕을 알리는 시간이 열렸다. 이번 법석은 천불사 회주 무애 스님이 자신의 80세 생일을 맞아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법석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태고종 김해 천불사(회주 무애)는 7월 30일 경내 대웅전에서 가사불사 점안법회와 종정 혜초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무애 스님은 "올해 윤달을 맞아 가사불사에 동참하는 대중에게 감사를 전하며 참된 공양을 올릴 방법을 모색하다 혜초 종정 스님을 모시게 됐다"며 "내 인생 마지막 가사불사라 생각하며 부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방법으로 의미 있게 회향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가사 점안식에 이어 대중들은 대웅전을 돌며 가사 이운식을 진행했다. 종정 혜초 스님이 법석에 올라 공덕 및 인과에 대한 법문을 전했다.

혜초 스님은 꽃을 부처님께 올리고 황제가 된 양무제와 신라 시대 재상 김대성의 전생담을 들려주며 "부처님의 인과는 정확하며 틀림이 없다. 공덕은 지은 대로 갚아지고 인과의 법칙에서 한 치 벗어남이 없다"고 설법했다. 이어 "'콩 심은데 콩이 나며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속담은 불교의 인과에 정확히 맞는 말이며 불사 공덕에 동참할 때는 인과에 대해 강조하며 봉사를 당부하셨는데 오늘 법석에서 무료급식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기회를 주신 스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7월 30일 태고종 김해 천불사에서 열린 가사불사 점안법회와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초청법회에서 혜초 스님은 "부처님은 정직하시며 인과는 정확하다"고 설법했다.

무애 스님, 80세 맞아 법석 열어
"인생 마지막 가사불사라 생각"
가사불사 점안법회도 함께 봉행
불사 공덕 인과법 가르침 전해

한편 무애 스님은 김해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및 김해불교합창단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포교 1세대로 활동했다.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1981~1990년),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모임 운영위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회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원을 6년 동안 지냈다. 현재 한국불교태고종 서부경남종무원 종회의장으로 신생 종무원의 기반을 마련 중이다.

천불사는 포교 뿐 아니라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명절 백미를 전달하며, 매주 금요일에는 관내 노인들을 천불사로 초청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일심사 개원 "반야참회 지혜 가르칠 것"

8월 19일 오전 11시 개원법회 봉행

영천 은해사 부산 포교당 센텀 일심사(주지 혜룡)가 8월 19일 오전 11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개원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이 찾아 법문할 예정이다.

일심사는 부산에서는 생소한 '반야참회'를 수행 지도하는 도량이다.

반야참회는 108예참과 자비도량 참법 등 기본적인 참회법을 발전시켜 참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나누고 명시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참회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유해 기복신앙을 넘어서도록 돕고, 염불 수행과 함께 반야참회 목표인 해오(解悟)에 이르도록 한다. 해오는 수행으로 체험한 초발심시변정각의 낮은 단계로 생사해탈을 확인하는 단계다.

혜룡 스님은 "참회 없이 해오는 가능하나, 해오 이후 내가 무엇인가 알았다는 자만심이 부작용으로 수행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며 "바른 참회는 자신을 성찰하고 평정심을 얻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혜룡 스님은 반야참회를 △구체적인 참회법 △체계적인 수행법 △수행과 현실 갈등 해소로 특징지어 설명했다. 특히 반야참회의 장점으로 '불수자신 참회'를 강조했다. 불수자신 참회는 자신을 지키지 못함을 참회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악업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참회 하는 것이다.

혜룡 스님은 "불수자신 참회는 다른 사람의 악업에 대응하고 잘 싸워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현실 속 불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한편으론 어리석음에 속한다"고 말했다.

혜룡 스님은 서울 구로동 반야참회 교육관에서 반야법회 지도법사로 10년 동안 활동했다. 서울 반야법회에서 지도를 받은 재가자들은 반야참회가 수행의 나침판이 되었다고 한다.

장옥(60) 씨는 "참회를 통한 현실적 효과는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힘"이라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희(57) 씨는 "혜룡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회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3000배 혹은 108배를 하는데 왜 하는지, 내려 놓으라 하는데 무엇을 내려놓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고 했다.

혜룡 스님은 현재 화엄사서 안거 중이며 화엄사 학감이다. 일타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 지족암에서 출가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 석사를 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하동 쌍계사에서 강사 및 학감, 교무국장도 역임했다. (051)781-0643 하성미 기자

법륜비구니장학금 수여 "한국불교 밝히길"

청도 운문사, 7월 27일 제8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7월 27일 운문사 경내 종무소에서 제8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운문사 회주), 상임이사 진성 스님(내원사 주지), 감사 운산 스님(운문사 승가대학 학감) 외 20여 이사 스님들과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일본 동경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사과정 종본 스님과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 자혜 스님, 성균관대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지인 스님,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동우 스님,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김익환 불자 등이 각각 500만원씩 수여받았다.



청도 운문사는 7월 27일 운문사 경내 종무소에서 제8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은 "수여자들은 한국불교발전의 초석과 빛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수여자 지인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 모교인으로서 회주 어른스님의 정성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훗날 불교아동복지를 위해 회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법륜비구니장학회는 비구니 스님 및 불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불교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2009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장학금 마련 서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해 수입금 5억 원을 기부한 것이 초석이 됐고, 현재 9억 원 상당의 장학기금이 조성됐다. 누적 수여자 38명에게 총1억9,0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한편 운문사는 7월 28~30일 제38회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8路!(팔정도) Follow Me!'를 실시했다.

초등학생 170여명이 참여한 이번 여름불교학교 입재식은 운문사 학인스님의 법고 시연 후 육법공양, 장경욱 어린이의 대표 선서, 장윤경 어린이의 대표 발원문 낭독, 학인스님들의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진광 스님은 "아름다운 운문사를 찾아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8路(팔정도)의 밝은 길을 알려줄 것이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반을 나누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의 주인공이랍니다'라는 주제에 따라 학인스님들이 구성한 독창적인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연, 템플스테이와 함께면 어렵지 않다!

범어사, 9월 2~3일 금연 템플스테이 진행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부산대병원 부산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정규)와 함께 금연 의지를 다지는 '템플스테이 금연캠프'를 9월 2~3일 범어사에서 실시한다.

금연 캠프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체계화함으로써 상담과 교육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는 자리다. 발우공양, 예불, 금연을 위한 참선시간과 108배, 포행 등이 진행된다. 기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금연을 방해하는 일상에서 벗어난 '숙박형 금연 프로그램'이 결합돼 흡연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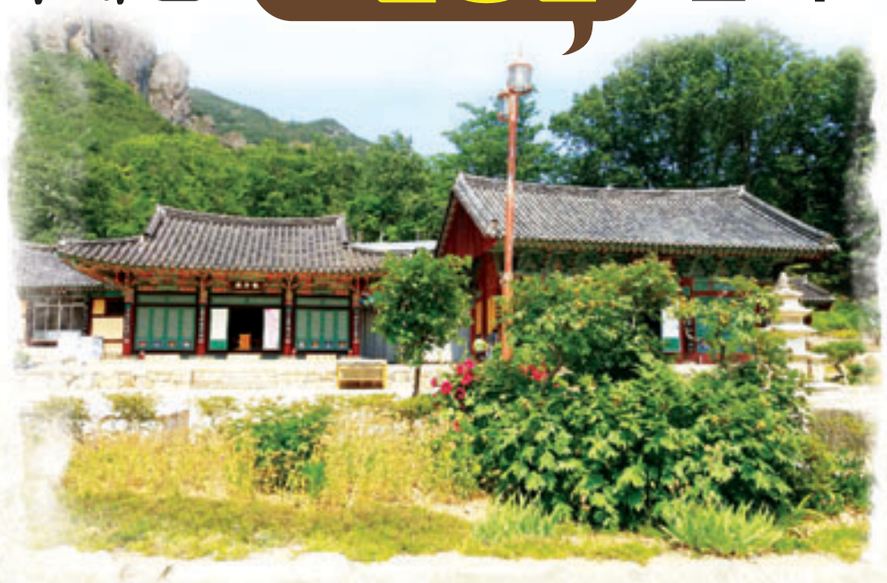
평소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있고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템플스테이 후 참가자 금연 실천을 위해 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금연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참가비용은 전액 무료다.



사진은 지난해 겨울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실시된 금연 템플스테이 모습.

부산금연지원센터는 "범어사 템플스테이 금연캠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산사체험을 통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일상에 찌든 삶을 밝히며 참다운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051)242-9030 하성미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스님! 누가 더 손해일까요?!
▣ 본사의 염불시설비가 비록 200만원대지만 명산대찰 수억대의 소리와 비교시 그 소리의 품위와 그 깊이의 차이가 비교가 안된다고 수차 말씀드렸지요! .... 자아! 스님! .. 그러면 .. 염불인생 몇십년의 소리분별 박사님들과 법당에서 귀 법당의 소리와 본사의 간단한 샘플과 마이크를 양손에 쥐고 염불을 해볼때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가 망신이고 누구의 경비가 손해일까요?! ...
▣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분만 빼고 소리구경 비교 신청을 하세요! 신청해도 안온다구요! ..... 경비 관계로 먼 곳은 여럿이 모여야만 갈 수 있기에 못갈 수도 있었음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 일반업체와 소리의 품위와 그 깊이의 차원이 전혀 다른 이유 : 음성학 전공자가 오랜 염불 오랜 소리연구 결과를 직접시공
각종 방생용 동시 구경
헤드셋 무선마이크 2개, 핀마이크 2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CD, USB겸용 1개, 스피커 2개, 완벽시설 후 200만원대 스피커 계속 연결시는 비용 추가, 스피커 16개까지 연결 가능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음성학 전공, 음향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염불소리 대표 궁희

“100만kg 쌀 나눔, 원력이라 행복해”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연꽃자비나눔본부 대표 도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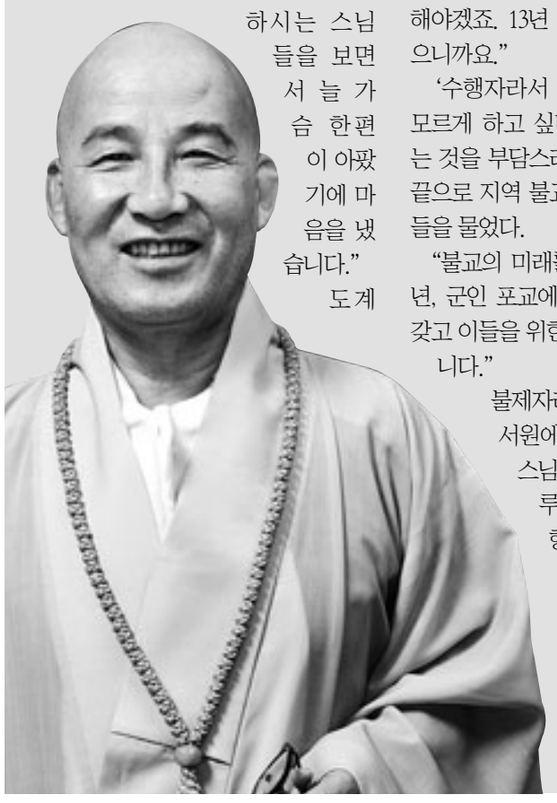
중국에서 미륵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진 고승 포대화상. 성씨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고승의 형상은 긴 눈썹과 불룩 튀어나온 배, 후덕한 인상을 하고 있다. 긴 막대기에 항상 포대를 걸친 채 모든 시줏물을 담아뒀다가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줘 ‘포대화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런데 빛고을 광주에도 어려운 이들에게 포대화상과 같이 자비의 마음을 전하는 스님이 있다. 바로 연꽃자비나눔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사진〉이다.

인터뷰를 위해 찾은 소원정사는 광주 남구에 있는 자그마한 주택을 임법당 형식으로 만든 아주 소박한 사찰이었다. 문득 ‘이 작은 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계 스님의 나눔 행적은 사찰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스님은 지난 5월 광주지역 불교단체가 실시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을 위한 승보공양’ 프로그램에 참여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 마련에 난항을 겪던 이 사업은 도계 스님의 기금 쾌척으로 탄력을 받았고, 장기간 병환 중인 두 스님에게 의료지원비를 전달할 수 있었다.

“만행을 다니다 보면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부처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들을 보면서 늘 가슴 한편이 아팠기에 마음을 냈습니다.”



도계 스님의 자비행은 봉녕사 학인스님에게 장학금 전달, 작은 시골 사찰에 불사금 시주, 지역 불교단체 및 어린이·청소년단체 후원 등 계층을 넘어 다양하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년 1회씩 지원하는 자비의 쌀 전달이다. 연꽃자비나눔본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8개 도시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무려 7만6000kg의 쌀이 모연돼 각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광주를 비롯해 대구, 인천, 화성, 강원, 대전 등 인연 있는 신도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복지 제도가 뛰어난 편이지만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처님 공양물인 쌀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졌으면 합니다.”

이처럼 도계 스님이 13년째 진행해 온 쌀 나눔은 어느덧 100만kg에 달한다. 14년 전 광주에 처음 온 후 꿈결

승보공양·단체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 모범
10만 중생 돕는 게 목표

같이 아미타불을 친견해 ‘10만 중생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원력을 세운 스님은 여태껏 주변에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고 나눔을 이어왔다.

“원력은 이제 절반쯤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3년 정도 더 나누다 보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기도해야겠죠. 13년 뒤엔 저도 80세가 넘으니까요.”

‘수행자라서 나눔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고 싶다’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도계 스님에게 끝으로 지역 불교계가 신경써야할 것들을 물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군인 포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서원을 세웠으면 합니다.”

불제자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서원에 맞춰 수행한다. 도계 스님은 자신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 나눔으로 수행한다. 스님이 광주에 첫발을 내딛으며 세운 나눔이라는 서원이 마지막 발걸음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본서 느낀 ‘海上王’ 숨결

(사)장보고아카데미, 완도 섬 아이들과 일본유적 문화답사



장보고아카데미 어린이 문화답사단이 1985년 청국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조약 장소인 춘범루를 답사하는 모습.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가 운영하는 (사)장보고아카데미가 완도 섬 아이들과 함께 문화답사를 실시해 화제다.

완도지역 어린이·청소년 문화단체인 장보고아카데미는 8월 1~5일 일본 백제문화 유적과 장보고대사 유적, 근현대 한국과의 교류가 있는 일본지역 문화답사를 진행했다. 답사에는 섬 아이들 24명을 포함해 지도교사 등 30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1일 신흥사서 입재식과 오리엔테이션, 장보고 영상 시청 등으로 시작됐다. 이후 일본 시모노세키조약 장소인 춘범루,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아카마신궁 등 근현대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기타큐슈 지역과 장보고대사가 신으로 모셔진 연력사, 백제계 양식의 건축물이 돋보인 사천왕사 등 오사카·나라 지역을 답사했다. 특히 행사 중간에 다양한 장보고 미션을 통해 해상왕 장보고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지도법사 지성 스님은 “완도의 섬 아이들이 장보고대사의 삶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고, 불교와의 많은 인연을 배워갈 수 있어서 즐겁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위대한 사무국장은 “문화적으로 소외계층인 전남의 섬 아이들이 세계무대를 장악했던 장보고대사의 기개를 배워 앞으로 우리나라의 좋은 동량으로 성장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답사에 참여한 임나한(13, 초6) 어린이는 “완도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이 배출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앞으로 장보고대사의 자랑스러운 후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당나라에서 유학한 일본 천태종 중창조인 엔닌 스님은 장보고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귀국길을 보살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엔닌 스님은 자신의 저술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己)〉에서 장보고에 대한 글을 남겼다. 현재 연력사에는 장보고를 해신(海神)으로 칭송해 신위를 모셨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문화라고 어색하지 않아요!”

사단법인 착한벗들, 다문화 어린이캠프



다꿈틔움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 장궤합장한 채 예불을 체험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2017 다꿈틔움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다.

7월 28~30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어린이 캠프는 입재식에 이어 △발우공양 △예불 △사찌명상 △참선 등의 불교문화체험과 △물놀이 △미니올림픽 △베트남 음식 체험 △공포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놀이 및 체험이 펼쳐졌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참가 어린이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비(非)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됐다.

또 놀이를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배양하고 마음을 나눠 모든 이가 평등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또한 (사)착한벗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다문화아동과 비 다문화아동 참가자에 대해 별도의 참가비를 지원했으며, 중·고등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보조교사로 참가해 어린이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다.

입재식에서 회일 스님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늘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포교대책이 절실하다”며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대비해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캠프를 통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좋은우리절은 매년 방학을 맞은 어린이불자들을 위해 10년째 캠프를 열고 있으며, 사단법인 착한벗들을 통해 본격적인 다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協 삼계탕·생수 나눔

7월 27일, 재소자 격려 차원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폭염 속에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 삼계탕과 생수를 전달했다.〈사진〉

승천 스님과 진성 스님 등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7월 27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삼계탕 1400인분의 식재료와 생수 6000병을 후원했다. 이번 물품 전달은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와 불교, 기독교, 원불교, 일반교화 분과위원장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마련했다.

구지서 전주교도소장은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의 무더위를 식히고 건강을 챙겨 주시는 교정협의회에 감사 드리며 더욱 더 솔선수범하는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승천 스님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성실히 교정에 임할 수 있도록 건강식을 준비했다”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수와 삼계탕을 먹고 수용생활을 이겨내 건강한 정신과 육체로 사회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스님떡볶이’에 담긴 전주 어린이 사랑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과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의 ‘스님 떡볶이’가 소외된 어린이들을 찾아 나섰다.

스님떡볶이봉사단은 7월 26일 전주 전통문화전당 4층 강당서 열린 덕진구 지역아동센터 스포츠스태킹 대회를 찾아 소외계층 아동 100여 명에게 아이스크림, 떡볶이를 제공하고 격려했다.

탑사 탑밴드봉사단도 동참한 이날 봉사활동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온라인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성 스님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밝고 행복한 미소를 보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한 웃음을 되찾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보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행 옥천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천년도량 옥천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장 소 : 단양 옥천사(구,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옥천사(구,천장사)
H·P 010-5960-2085

회향선원의 회향

회향선원(회향복지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입주하시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3년째 퇴실을 원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1층 : 12평 1억 (3人 까지 거주 가능)
• 2층 : 9평 5천 (2人 까지 거주 가능)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무한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상담문의:031-773-7838;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9호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백천만겁 쌓은 죄업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 없이 사라지네. 본래 없는 죄업은 마음 따라 일어나니 이 마음을 비울 때에 죄업 또한 사라지네.

– 천수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6415-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신통 방편력
땅 건물 가게 공장
속히 매매 성취
(좋은 땅도 봐드립니다)
010-2896-6689
광덕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 · 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무상 합장

예언가 육관
– 22년 김정은 사망한다
– 25년 남북통일 이루어진다
– 27년 강한 지진 발생한다
– 29년 백두화산 폭발한다
소망하는 일이 언제될까?
개인적 문제 세상사 문제?
미래를 예언하는 도력으로
예언으로 답을 해준다.
010-6357-5152
육관도원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진로적성상담사1급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원해 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대승불교염불원
(실전염불 완전정복)
• 강의일시 : 2017. 8. 7
(매주 월요일 오후2시-4시)
상담전화 010-5934-1766
경북 청송군 진보면 높은베리길 90 원광사

경기도 시흥 포교당임
불상.탱화.촛대.향로.
다기 등 모든 것
무료로 드림
다가져갈분. 문자부탁드림
010-7696-8978

편백(히노끼) 시공
사찰환경 (주지실, 요사채 및 각 방사)과 힐링공간
수행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바닥,벽, 천정까지도 정성을 다해 시공합니다.
*목조건물, 신축, 증축, 개축 상담
(도량내 편의시설도 실비로 보시)
010-5737-0317
무루건업 원일 합장

철학, 경전을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35 – 41세)
차후 사찰을 양도해 줍니다
010-6536-0120

비구
부전스님
모 십 니 다
(용인, 60세 전후)
010-7162-7134

스님 및 공양주
모십니다
(60세 전후, 남은 여생 수행하면서 함께 지내실 분)
010-6513-4771

사찰 처사
(운전가능)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도)
010-5264-8312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패몰 www.위패몰.com
염주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도심 포교당
위치: 부산 쾌법동 최고요지 / 포교당 2층 140평, 대로변 / 현재운영 중 / 4억5천 대출가능
010-3867-4747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 생활역학 강의(자격증서제도)
▷ 자강 : 이석영
▷ 단원 : 이병렬 선생님의 정통학문, 1년과정 초급, 중급,상급 (격국론)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저서 특허) 강의
육십갑자의 생극제화 원리 응용법
■ 단원육효 강의
■ 작명법 : 실증성명학전서(저서) 강의
본명사주의 자원오행법 원형이정법의 수리법, 음령법, 조후법, 통관법, 사상체질법 등의 체계적인 이론 연구의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문의 : 010-4470-631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8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 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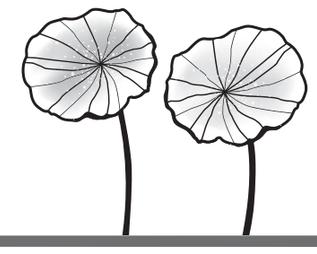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과 거짓말을
일삼으며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 중본기경 -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 위치
- 3층 134㎡(약 40평) • 방 1실 법당 주방 공양간등
- 가액 : 보 5000만, 월150만, 시설비 2000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논산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목조공양간.기도실 • 토지 400㎡
- 마을주변.교통편리.조용하고 안정된사찰
- 양도가액 : 1억 3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경남 의령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40㎡(103평) • 건물 총면적 : 92㎡(28평)
- 가액 : 2억 3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중심지 ◎ 위치 : 전남광양
◎ 부지 : 600평 ◎ 면적 : 1,2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30평,차량진입
◎ 요사 : 100평 ◎ 요사 : 40평,경관수려
◎ 양도가 : 협의 ◎ 양도가 : 9억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010-2498-7899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수덕사 IC에서 10분거리
- 천혜의 요지 예당 저수지위에 위치한 150년된 조그만 암자
- 평수 약 2만평
- 산수 물 좋은곳, 예당 저수지가 훤희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가격 : 상담후 결정

010-5097-3468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2천만원(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파트 상가 / 대로변 위치
- 2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3억7천만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 지리산 둘레길
- 대지 152평, 법당 조립식 약 10평
- 요사채 : 철근콘크리트 25평 2층 팬션형
- 건물 앞 좌우로 물이 흐르는 계곡 경치 좋음
- 기도도량으로 보살님 법사님 환영
- 가액: 2억 1천만원(대출가능)

010-3283-7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2채(공양실포함)
- 가액 : 2억7천만원

010-3508-7710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방10개,공양간,창고,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만원

010-4628-569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차량진입 잘되어있음, 큰도로와 1분거리 근접
- 법당 35평(요사, 종무소, 공양간) 60평
- 임야 4천평, 대지 800평 (수목장 하기 좋은 명당)
- 1,300년된 고목나무 소장하고 있음
- 가액 : 15억(조정가능)

010-4602-9661

사찰안내(토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1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5858-8604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40평(목조,단청,3포7포)
- 요사채:60평,기타:석등
- 산신각:10평(목조, 닷집)
- 가액:10억 5천만원
- 특징:도심인근의 대가람 사찰로 포교와 기도 정진할 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사찰안내(포교당)

- 위치 : 경남 양산시 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단청)
- 요사 : 40평
- 기타:대형입불,일주문,산신각 등
- 가액: 8억5천만
- 특징:도심사찰로 포교지로적지입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422-9번지
- 법당, 산신각, 주지방
- 주방, 몸만오시면 바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5000만원, 월 40만원

010-3927-5741

암자,수련원 안내

- 위치 : 상주시 화북면
- 대지 : 407평, 전 : 500평
- 법당 : 14평, 요사 : 70평
- 가액 : 5억 천만원
- 앞뒤로 병풍같이 애워싼 산이 그림 같고 집앞으로 계곡이 흐르며 마을 한쪽에 위치함

010-9334-146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일산동
- 면적 2층, 55평
-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3599-997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10분거리
- 법당 약 20평, 주방거실 1, 방2, 세면장, 실내 화장실
- 벽돌조 32평 독채, 건물 개인 등기필
- 남향 교통좋음(2차선 큰길 변)
- 대지 : 공동사용 도지료 1년 35만원
- 가액 : 4천 8백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1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 KT 옆
-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 건물 2층, 옥상60평, 사용 가능
- 교통요지, 터미널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3,040만원

010-3452-1123
042)526-11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마산 남성동 어시장 번화가
- 3층 63평, 법당,대중방,스님방
- 가액:보증금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3039-885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5분거리
-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토지 300평 공유지분 7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도심 속 깊은 암자
- 가액 : 10억

010-3867-4747

울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보증금 1천만원,월세4십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동
- 상가 4층 약 5 ~ 60평
- 삼존불 :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법당, 공양간, 종무소, 스님 황토방
- 약 15년 법회(현재 법회중)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산사로 이전)

010-3305-5313

포 교 원 임 대

- 위치 : 울산시 동구
- 상가 2층 단독사용(45평)
- 바닥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
- 법당25평, 상담실, 침실, 공양간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시설 A급, 주차장 확보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7195-55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 3층 50평, 옥상 50평
- 시설 완벽
- 법당, 스님방, 공양간, 화장실, 주차장 완벽
- 가액: 보1000만. 월65만원 시설비없음. 스님 급 사정
- 몸만 오시면 됨

010-4652-6567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270평, 대웅전23평, 요사채30평
- 산신각, 용왕당, 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덕산암 및 된장, 간장,공장 매매 안내

1. 전통항아리, 100년된 전라도 항아리 800개 보유
2. 식품제조공장, 20년 운영, 보유고객 만오천명, 직원 8명 근무중
3. 백화점, 농협 마트, 인터넷 전화주문, 특판행사 진행중
4. 식품제조공장 1동, 법당 1동, 숙성실 1동, 주거용 2동, 심야보일러, 화목구들 1동, 대형 가마솥 7개, 자연수사용, 상수도 완비
5. 9,500평 (전, 잡종지)
6. 스님 및 재가자 환영
7.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명재로 332-108
8. 양도가 : 11억 5천만원

• 스님께서 원로하신 관계로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 010-4105-9099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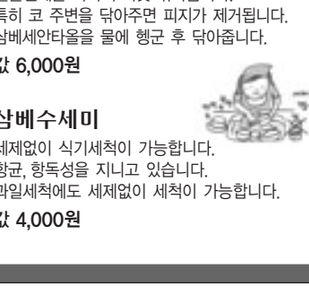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사찰(급)안내

- 위치 : 제천시내 사찰
- 토지 250㎡. 한옥 요사채 58㎡. 법당 48㎡
- 이동 인구가 많으며 깨끗하고 위치 좋음
- 방편상담 최고자리 남향임.
- 가액 : 1억 5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하천부지 약 100평 (산신각 포함)
- 직접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010-7121-303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부탄 최고의 걸승… 비정상적 광기로 깨달음 전수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연재

④ 둑빠퀸리와 남근숭배

부탄의 가장 큰 축제인 푸나카축제서 남근 형상이 달린 가면을 쓴 '아짜라'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부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새이자 성(城)인 푸나카종을 방문한 후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있는 치미사원(Chimmi Lhakhang)을 가벼운 산책삼아 걸으면 조금은 이색적인 문화를 접하게 된다. 치미사원이 위치한 마을에 들어서면 집집마다 남성 성기가 그려진 적나라한 벽화를 마주하게 되고, 남성 성기를 조성해 모신 곳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아기를 안은 젊은 부부와 약간은 상기된 얼굴의 처녀가 치미사원으로 향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치미사원을 찾아가는 것일까?

치미사원은 둑빠퀸리 스님(1455~1529)을 기리는 본산으로서 '아기 낳는 사원' '생산의 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젊은 부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치미사원에 모셔진 둑빠퀸리 스님은 부탄 최고의 걸승이자 성스러운 미치광이로 평가된다. 그는 승려이자 시인으로서 수많은 이적과 별명을 남겼으며 '용의 전승의 광인' '섹스와 술로 불교를 승화시킨 비밀수행자' '성스러운 미치광이' '인류역사상 가장 기괴한 성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둑빠퀸리 스님의 전기문과 성기를 숭배하는 부탄 전역 마을사람들은 이를 야하거나 저속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불교의 엘리트산실이었던 라룽사원 출신인 둑빠퀸리 스님은 남들이 보기엔 비정상적인 광기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수했다. 대부분 여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했는데 그의 또 다른 별명이 '5천명의 여성의 성인'이다. 당시 부탄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둑빠퀸리 스님과 잠자리를 통해서 성인의 가피를 받고자 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일반인들이 금욕하지 않은 채 성생활을 즐기면서도 충분히 깨달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종국에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전통적인 불교의 개념과 도의적인 관념을 깨는 기괴한 방편으로 불법을 널리 펼친 그를 사람들은 미치광이 괴승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괴승으로 불리는 둑빠퀸리 스님 불화.

'아기 낳는 사원' 치미사원
금욕 멀리한 둑빠퀸리 기려
악령 쫓는 정기로 받아들여
괴이한 행위에도 고승 추앙



남근과 용이 함께 그려진 벽화.

둑빠퀸리 스님의 깨달음으로 제도하는 힘 때문에 그의 성기는 '활활 타오르는 지혜의 벼락'이라고 불렸다. 높은 도력과 깨달음을 전하려는 스님을 친견하려면 아름다운 여성과 잘 담근 술을 가져와야 했다는 얘기도 전한다. 이 때문에 치미사원에는 수많은 술통이 있다.

둑빠퀸리 스님은 둑빠까규의 전승인 나로6법 수행을 통해 현교(얀트라)와 밀교(탄트라)를 공부했다. 밀교수행에는 성적에너지를 방편으로 하는 카르마무드라 수행이 있는데 생체 에너지를 이용해 근본을 깨치고 지혜를 보는 수행이다.

〈행복에 관하여〉

나는 자유로운 수행자여서 행복하다네/ 그래서 내면의 행복을 조금씩 키워간다네/ 나는 수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지지/ 왜냐하면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네/ 겉으로는 바보로 살고 내면으로는 맑은 영혼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노닐고 있네/ 겉으로는 술과 여자와 음악을 즐기지만 내면으로는 일체 중생을 위해 정진한다네/ 겉으로는 쾌락을 위해 살지만 내면으로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한다네/ 겉으로는 지저분한 거지이지만 내면으로는 더없이 행복한 부처라네/

시인인 둑빠퀸리 스님은 자신의 시에도 성적인 표현과 깨달음에 대해 강조했다. 그래서일까. 스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술의 가장 맛있는 부분은 병 바닥에 있다. 마찬가지로 행복의 가장 절정은 배꼽 아래에 있다.'

이러한 기괴한 행동과 전통불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독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둑빠퀸리 스님은 부탄에서 깨달은 고승 중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부탄왕국을 지키는 성인으로도 모셔져 있다. 그의 깨달음을 '미친 지혜'라고 부르는데, 밀교수행자들은 신심과 성적 절정감, 선정적인 유머 등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를 방편삼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고 있다.

둑빠퀸리 스님은 특히나 부정한 기운과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보인 많은 이적 중 전하는 것으로 영적인 힘으로 수천마일을 날아오는 것, 고기를 얻기 위해 동물을 죽이고 남은 뼈로 다시 살려낸 것, 원한이 있는 악귀를 제압하고 쫓아낸 것 등이 있다.

스님은 입적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잘라서 그 속에 자식을 생산하는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한다. 그의 성기모양은 철제 성물에 담겨 스님의 활·화살과 함께 치미사원을 찾는 이들에게 가피를 내려주는데, 특히 아기를 낳지 못한 이들에게 효험이 크다고 전해진다. 스님의 입적 후에도 부탄인들은 둑빠퀸리 스님을 기리기 위해 집 담벼락에 그의 성기가 힘차게 사정하는 모습을 그려넣었다. 그 그림이 여러 부정한 기운을 정화시키고 잡신과 악귀를 물리친다고 믿었다.

치미사원의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나면 스님이 딱딱하게 굳은 둑빠퀸리 스님의 성기형상을 정수리에 대준다. 사원으로 드는 길목의 치미마을은 둑빠퀸리 스님의 성기를 그린 벽화들로 가득 차 있어 유교적 관념이 강한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민망한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마치 강한 정기를 내뿜는 둑빠퀸리 스님의 성기가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한다.

깨달은 현자들은 금강승불교권에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편지 말미에 '~의 뇐빠'라고 쓰는데 이는 '~지역의 늙고 미친 수행자'라는 뜻으로 자신을 낮출 때 쓰는 관용어다. 이것은 바로 둑빠퀸리 스님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재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감정 억제가 내적 갈등 키운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⑯



에고로 인한 불편한 감정

우리는 살면서 잠시도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삶은 걱정과 근심의 과정'이라고 할 정도다. 잠시라도 걱정에서 벗어나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바로 나의 에고(ego)를 키운다. 오쇼 라즈니쉬(1931~1990)는 그의 〈성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에고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다.

한 가난한 농부가 그를 찾아온 소꿉친구에게 임금이 하사한 좋은 옷을 입히고 다른 친구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옷을 입은 소꿉친구는 마치 왕같이 보였고, 농부 자신은 하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걷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친구만을 보았으며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약간의 질투를 느꼈다. 그러나 자신은 그의 좋은 친구이고 신성한 인간이며, 옷이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애써 옷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옷은 그의 머릿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친구와 잡담을 하면서도 내내 그 옷만을 생각하였다. 드디어 한 친구 집에 도착하여 소꿉친구를 소개하였다.

"이 사람은 내 소꿉친구이고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제 것입니다."

이 말에 농부의 친구는 놀라 어리벙벙하였으며, 그들을 맞이하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무심결에 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농부는 친구에게 사과한 뒤 다시 다른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번에는 절대로 옷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다시 한 번 그는 조심스럽게 친구를 소개했다.

"이 사람은 나의 친구이고 매우 훌륭한 신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모두 그의 옷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 모두 놀랐다. 그런 소개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을 떠나면서 농부는 화가 난 친구에게 거듭 사과를 하였다. 그는 실수라고 말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함께 가지 않겠다는 친구를 만류하여 다시 세 번째 친구 집에 갔다. 농부는 옷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고 자기를 억제하였다. 그는 온통 땀을 흘리고 있었고, 극도로 불안한 나머지 지쳐있었다. 그는 천천히 친구를 소개하였다.

"제 친구는 매우 좋은 사람이고…."

그는 말을 더듬거렸으며, 그의 내면에서는 옷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일어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옷 말이죠? 실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에고란 말인가! 농부의 태도에서 보듯이 우리의 의식은 억압하면 할수록 잠재의식에서 더욱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억제하면 할수록 해방되려는 충동이 강하게 반작용하기 때문이다. 단식하려고 하면 할수록 먹고 싶은 욕망이 더 일어나며, 금욕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性)을 구하려는 열망이 솟구친다. 억제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대단한 긴장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속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에고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내 생각이 만들어 낸 가짜 '나'이다. 예를 들면 '나는 춤을 잘 춰야 해' '나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해'라든가 위의 농부처럼 '나 자신이 더 잘 보여야 해' '저 옷은 내 것이야'와 같이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낸 허상이다. 이처럼 진짜 내가 아닌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나'를 에고라고 부른다. 이러한 에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히 나타나 나를 긴장하게 하거나 보호하려고 한다. 싫어하는 동료를 보면 피해서 다른 길로 가거나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기사를 보면 욕을 하는 일, 수강생이 옆 사람과 잡담을 나누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강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느끼는 감정들이 에고와 관련 있다.

> **억제에 뒤따르는 긴장 · 욕망 잠재의식에서 더 큰 문제돼 주의 대상을 옮겨 멀어지고 감정 사라지도록 관찰해야**

내 감정부터 알아차려야

에고와 관련된 오래된 문제는 답을 찾기보다 문제 이면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위 농부의 문제는 임금이 하사한 옷을 그가 입지 않고 소꿉친구가 입게 함으로써 그 자신이 '신성한 인간'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에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에고로 인해 질투심과 열등감, 후회하는 마음과 같은 감정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농부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더욱 깊어졌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보기로 한다.

하나는 불편한 감정을 만나지 않는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감정을 회피하는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촉나라의 장수 관우의 예를 보자. 관우는 위나라와의 싸움에서 오른팔에 독화살을 맞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명의 화타는 관우의 팔을 치료하려고 그를 찾아온다. 화타는 관우의 팔을 진단한 뒤 수술을 위해서는 아픈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기둥에 매도록 권한다. 하지만 관우는 "내 팔은 그대에게 맡겼으니 치료나 잘 해주시오"라며 팔을 화타에게 맡기고 부하장수와 바둑을 둔다. 살가죽을 벗기고 뼈를 긁어내는 소리에 소름이 끼치지만 관우는 태연하게 바둑을 두고 술을 마신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다. 관우는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냈을까?

수술과정에서 관우의 1차 의식 대상은 아픈 팔이지만 그는 대상을 바둑이라는 2차 대상으로 옮긴다. 주의를 팔에서 바둑으로 옮긴 것이다. 의식이 팔에서 바둑판으로 옮기니 비록 팔이 아프다 할지라도 강한 고통의 정도가 줄게 되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명상과정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명상을 할 경우, 집중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1차로 주의를 보내야할 대상을 바둑에 둔다. 초기에는 아픈 팔로 주의가 자꾸 가지만 결국에는 1차 대상인 바둑에 집중하게 되고 2차 대상인 팔의 고통은 주의 대상에서 멀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괴로울 때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거나, TV를 보면서 괴로움에서 멀어진다거나, 산행을 하면서 원래의 고통보다 덜한 고통을 경험하는 등의 방법들이다.

다른 하나는 고통과 직면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보다 근원적인 진리를 통찰할 때 가능하다. 삼법인(三法印)의 하나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을 확연히 깨닫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는 진리이다. 아무리 모진 고통이라도 결국은 지나간다.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의식의 탈동일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통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되 그 대상과 동일시되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의 탈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고통이라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힘들지만 직면하는 기제이다.

요컨대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바라보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욕구도 바라본다. 감정은 저항 때문에 지속된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의 강도가 약해진다. 감정이 사라질 때 관련되는 생각도 따라 사라진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위 과정을 정리해 보면, 농부가 세 번째 친구를 방문할 때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는 또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더 이상 친구를 소개할 힘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린다'는 말은 매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농부의 경우 자신의 에고가 만들어낸 질투심과 열등감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다. 감정은 단지 감정일 뿐이므로 바라보기만 할 뿐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감정에 관련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도 바라본다. 잠시 후 그 감정이 사라졌는지 확인한다. 감정이 사라지면 에고도 사라진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그 감정이 진정한 나는 아니다. 감정은 에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농부가 행한 귀한 선행을 농부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더 많은 성취를 원하는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그에게 압박을 가한다. 결국 그 에고가 농부를 지배할 때 그는 자신감을 잃고 마치 스스로 무능력한 것처럼 느낀다. 에고는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내면의 심오한 평화의 느낌에서 벗어나도록 교란시킨다.

이 칼럼을 쓰면서 필자는 최근에 필자가 운영하는 명상센터의 이사장이라는 권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직원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게 보이는데 그 마음을 전하려니 속 좁은 사람 같고, 말하지 않으려니 마음에 계속 그 직원이 남아있다.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상책이요, 꺼내서 상대를 알게 하는 방법이 하책이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명상에 들어갔고 곧 불편한 감정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직원이 매사에 완벽하게 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보였다. 못마땅한 감정이 서서히 사라졌고, 동시에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라졌다.

칼럼을 끝내면서 필자의 마음은 매우 가볍고 기뻤다. 에고를 놓아버리니 이와 결부된 생각에서 해방되어 내면에 있던 행복이 밖으로 빛을 발한 것이다. 잠시나마 에고를 내려놓음으로 내안의 큰 나(self)를 만날 수 있었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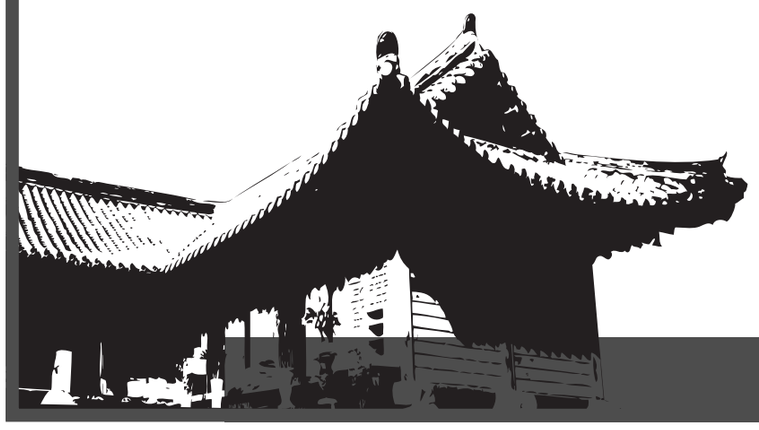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좌선!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부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형상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 불성 자체도 바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이라고 했을까? 그분이 그렇게 통달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모습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모습에 끄달리거나 고깃덩어리를 따른다면 그건 공부를 한다기에는 너무 무색할 정도고 그건 여러분이 부처님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잘 알고 아는 게 많아서,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기독교와 가톨릭교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불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죠. 나 어려서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심판이지, 하하하, 그게 거기서 말한 것처럼 그런 심판이 아닙디다, 응.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또 그런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남의 소리를 듣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아이고, 내일 죽네. 내일 죽는다는데 인생이 이런 거지, 뭐.' 그러면서 다 팔아먹고 쓰고 술 먹고 온통 나가서 사치 다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미래의 씨를 위해서, 미래의 자기를 위해서…. 아니, 자기가 죽고 없어지는 겁니까? 낙엽이 떨어졌을 뿐이지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박을 놓고 보세요. 수박이 여러분이라고 본다면 수박씨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수박씨는 수박으로 됐습니다. 그 수박 속에 든 수박씨는 미래에 또 먹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다른 교(敎)에서도 떡 하나 가지고 일체 사생(四生)을 다 먹이고도 되남았다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밥 한 그릇을 가지고 유의 생명들이나 무의 생명들을 다 먹이고도 되남았느니라." 이런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수박씨를 봄이 오면 심어서 먹고요, 일 년 내내 먹이고 수박이 열려서 또 내년에 먹이고 또 후년에 먹이고 이러니까 내년이다 작년이다 미래다 지금 현재다 이런 말 할 게 없죠, 그대로. 그러니 여러분은 수박이 돼 가지고 수박 안의 수박씨를 진짜로 믿어야지, 그래야 미래로도 참 광대무변하게 공덕이 되지, 만약에 내 씨 찾으려고 바깥으로 돌아다닌다면은, 벌써 이미 수박으로 됐는데 뭐가 있습니까, 바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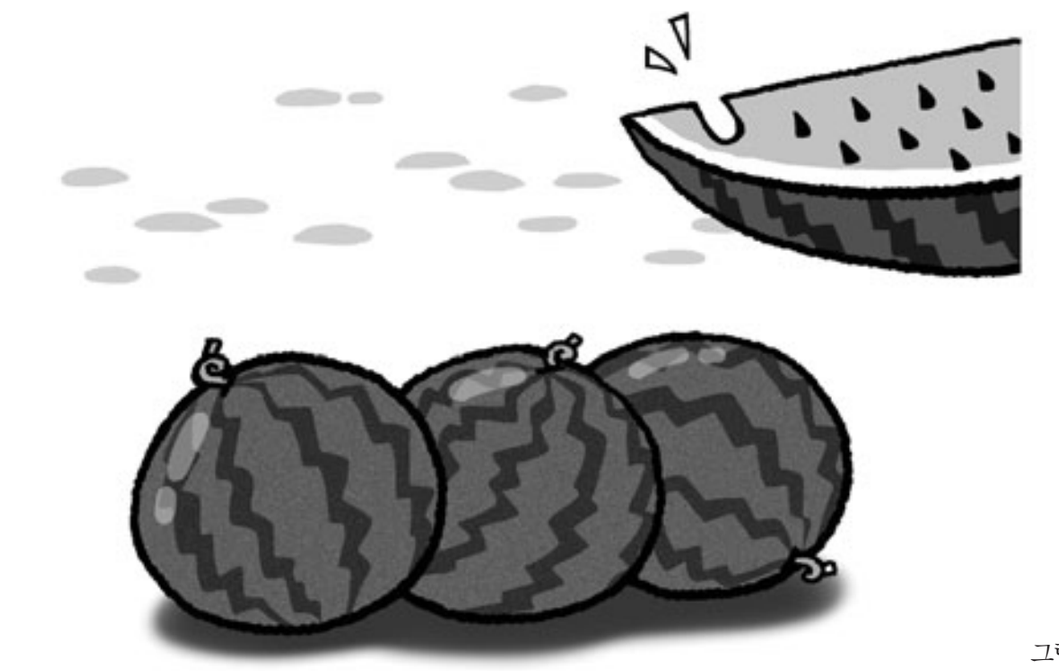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서…, 아까 얘기했죠. 우주 천지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고 세상의 근본은 전부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이런 거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작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도 있고 부처도 있고 종교도 있고 모두 있는 거지, 사랑도 있고 말입니다, 미움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니, 여러분이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부터 믿고 참 맡겨 놓고 거기서 실험을 하고 체험하고 그래야지 어디서 합니까?

그런데 옛날 부처님 당시에 유마힐 거사, 그 일승 대장부하고 부처님하고 동시에 그때 시절에 한마음으로서 자꾸자꾸 해 가면서 유발 제자나 또는 입산 제자나 다 똑같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것을 방편으로뿐만 아니라, 진실하지만 방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유발 제자와 입산 제자를 똑같이 가르치게 된 것은 부처님과 유마힐 거사가 마음이 한마음으로 동시에 그냥, 오는 사이도 없고 가는 사이도 없이 그렇게 자꾸자꾸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몸은 각각이고 이름은 각각이지만 마음은 한자리, 한마음, 그것이 바로 한 주장자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우정병을 나게 해 가지고서 오게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공부 시키는 까닭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병문안을 가라고 사리불한테 말을 했다죠. 그러니까 사리불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유마힐 거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삼계(三界)에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좌선이니라. 두 번째 멸진정(滅盡定)에서 일어나지 않고 온갖 행동을 하는 것이 좌선이니라. 마음이 안에도 바깥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좌선이니라. 외도(外道) 사견(邪見)에도 걸림이 없이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을 닦는 것이 좌선이니라.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니 이렇게 좌선을 하는 이라야만이 부처님이 인가를 하실 것이오." 하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 읽어 보셨겠죠? 그런 소리도 들으셨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듣거나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끌어 드리고 또는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도반으로서 해 나가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 그 자체는, 몸을 나타내지 않는다, 즉 "무조건 놔라." 이러는 격이죠. 여러분 한테 "무조건 당신 수박씨는 당신 수박 안에 있으니 무조건 그 수박씨에다 놔라. 거기 그냥 본래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놔라." 하는 건 그것이 나를 세우지 않고 무조건 공했으니 놓으라 하니까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좌선이다.

"멸진정(滅盡定)에서 아주 일어나지 않으면서 온갖 행을 다 하는 것이 좌선이니라." 이런 것도 보세요. 행선이 그대로 좌선 아닙니까?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딱 놓고 움쭉하지 않으면서도 행을 다 해 나간다면 그냥 좌선인 것입니다. 진짜 좌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건 공했으니까, 찰나찰나…. 내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보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듣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사는 것이 전체가 고정되지 않고 먹는 것도 고정되지 않는다. 그것이 고정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안에도 바깥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좌선이다."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외도, 사견" 하는데 벌써 모두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그 층하를 두는 그런 거를 외도라 합니다. 그런다면은 이것은 이 전체의 사무(四無) 사유(四有)를 말하는데 그것을 한데 합쳐서 걸림이 없어야 된다. 모든 걸 머무르지 않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숙달된다면은 거기에서 아예 그냥 걸리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걸림이 없이, 즉 말하자면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을 닦아야만이 좌선이다. 진짜 그럭하지 않으면 좌선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삼십칠도품은 뭐냐? 삼십(三十) 하면 과거심 · 현재심 · 미래심 전체가 한데 합쳐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삼(三)" 해 놓고 십(十)으로 돌아갑니다. 십으로 왔습니다. 삼은 십으로 한데 합쳐졌습니다, 아까처럼. 그게 시공이 없는, 바로 숫자 없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십으로 돌아왔으니까 칠품(七品), 이것은 몸 가짐가짐과 모든 계율이라든가 사는 거 전체를 한데 합친 겁니다. 그래서 칠각(七覺)을 이루면은 거기 보배가 가득 차 있고, 팔법륜(八法輪)을 그냥 굴리면은 구정토(九淨土)가 되고 이렇듯이, 그래서 칠각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그 칠품을 닦는 모든 게 좌선이니라. 나는 학술적으로 읽어서 여러분한테 고대로 얘기해 줄 수 없지만 그 뜻은 다 똑같으니깐 그렇게 잘 생각하세요. 아마 알아듣긴 더 쉬울 거예요.

그러고는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니라." 이런 거 말입니다. 우리가 망상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아이구, 번뇌 망상을 끊어야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울 텐데 이게 그냥 줄줄이 줄줄이 붙어 돌아가니 이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죽어야 이 망상을 끊지 에이, 살아 가지고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고 이걸 다 끊는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찰나기 때문에.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묶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묶어진 게 없습니다.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놓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걸 끊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야만이 오직 좌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반 길로 들어간다. 즉 해탈 길로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그러니 "그렇게 좌선하는 사람이라야만이 부처님이 인가를 하실 것이다." 하는 말을 했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배우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즉 말하자면 그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좌선이다." 하는 것도, 바로 "멸진정(滅盡定)에서 일어나지 않고 온갖 행을 다 하는 것이 좌선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벌써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둘 했을 때 하나는 벌써 이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눈도 깜짝하지 말라!

☞ A17면에서 계속

또 "마음이 안에도 밖에도 머무르지 않는 거다." 할 때에 이것은 셋인데 벌써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섯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으로 그냥 들어가는 길이다. 그것이 좌선이니라. 그것이 좌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선을 하는 사람이라야만이 부처님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 자체는 바로 끊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찰나 생활을 그냥 자재하는 것이 그대로,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인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님의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중에 맨 끄트머리 하나에 그냥 귀착이 되는 거죠. 절대성으로요. 거기에서 자기는 인제 귀착이 되고 이게 절대적으로 내 것이 됐으니까 내 거라는 것이 없이 쓰는 겁니다, 전부. 내 거라는 것이 없는 줄 알았으니까. 전부 내 거라는 것을 알게 돼서 다시금 내 거라는 것이 없이 여러분한테 다 쓰는 거죠. 왜? 전부 나이기 때문이죠. 전부 내 자리, 나, 내 아픔, 전부 나 아닌 게 없으니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유스럽고 삶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것도 여러분한테 경서(經書)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질서 정연하게 말씀해 드린다면 좋겠는데 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질서 정연하게 해 나갈 수 있고, 계율(戒律)을 지킨다는 말 없이도 한 발짝도 헛되게 떼 놓지 않으며, 한 말도 한데 떨어뜨리지 않고, 한 생각도 평등한 마음 아닌 게 없는 그러한 행을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으니 질문할 사람은 또 질문하세요. 어떠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요.

질문자1(남) 저는 오늘 스님을 처음 대합니다. 오늘 처음 대하지만 오래 전부터 대한 듯한 그런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님에 관한 서적들을 읽어 보면서 스님이 말씀하신 그 사상들이나 생각들을 조금 생각해본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느끼고 여쭈어 볼 것은 스님께서는 참자기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참자기는 거짓 자기를 죽이고 내세우지 않는 데서 참자기가 발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알기로는 불교에서는 무아(無我)를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아라는 것은 결국 거기서 자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 자기가 없다는 이야긴지, 안 그러면 참자기도 없다는 이야긴지, 안 그러면 둘 다 없다는 이야긴지, 참자기는 무엇이며 결국 무아는 뭘 말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러죠. 하하하. 없다는 것은, 아까도 '공(空)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보는 걸 고정되게 보고 사십니까? 듣는 걸 고정되게 한 소리만 듣고 사십니까? 하나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도 거기에 고정되게 있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공해서 그냥 그저 쉴 사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세울 게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다 없습니다. 다 없고 지금 마이크를 쥐고서 자기가 지금 말하는 그 장본인, 그겁니다. 순간 지금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물론 세울 게 없기 때문에 예전에 스님네들은 '무무역무(無無亦無)'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없고 없고 또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지금도 모두 없습니다. 이거 뭐, 눈도 깜짝거리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니 뭐 어떤 거 생각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없는 거죠, 모두. 그러니 자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중생이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이 중생이라 그러고, 자기 소견이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고, 자기 소견이 나쁘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 본래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자기가 할 따름입니다. 지금 빨리 부지런히 가셔서 색경을 보시고 한 팔 들어 보십시오. 거기 그림자가 어떻게 보이나. 그래서 자기부터 알아야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알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불(佛)은 어디 있다는 건가? "불이 어떤 겁니까?" 하니까 해골 쪽을 딱 던져 주거든. "이놈아, 이거야." 그러고 주니까 아무리 몇날 며칠을, 몇 달을, 아니 한 이삼 년 지나니까 아, 해골이 말을 하더랍니다. "야, 이놈아! 너 나처럼 눈도 빼 버리고 귀도 빼 버리고 코도 없애 버리고 혀도 없고 네 몸뚱이도 없고 다 없어야지, 임마! 그래야 너 어떤 걸 알 거다, 임마!"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해골을 붙잡고 "야, 임마!" 그러고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 싸우다가 홀연히 알게 됐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의식만 빼면 송장인데 그 해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그대로 지금 육근(六根)의 작용으로써 우리가 육진(六塵)의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바로 육식(六識)도 거기 포함해서 둘이 아니게 절대적으로 자기 참자기를 발견할 겁니다. 과거의 자기와 현실의 자기가 상봉할 겁니다, '짝'(손뼉을 한 번 치시며) 이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묶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묶어진 게 없습니다.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놓고 가는 겁니다, 그냥.

질문자2(남) 저는 제 나름대로 단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황을 하던 중에 제가 종교를 믿으려고 하기보다 종교를 알아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저한테 미심쩍은 것이 많았었습니다. 한데, 오늘은 큰스님을 두 번째 제가 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아니면 비디오를 통해서 큰스님을 이렇게 친견하고 있는 동안은 제가 아주 왜소하게 보이고 그때 그 순간은 정말로 저의 아버지 어머니 이상으로 하나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끼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옳고 그름이 정말로 제대로 서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자신의 중심이 서 있지 않습니다. 스님의 어떤 설법이 이해는 되나 제 자신이 정착되지 못해서 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 것이 되어야만이 저 스스로 우러나서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그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중심이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스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말을 배우고 있고 생각을 배우고 있다고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요, 제가 주인공한테 맡기면서 해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진짜 주인공인가, 그것도 모르면서 또 그렇게 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불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 잘은 모릅니다마는 불경도 하나의 끄달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스님한테 얘기드리면서 인연에 대한 의미를 스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큰스님 이 종교라는 건 첫째, "불교" 이런 다면은 어떠한 국한된 불교인 줄 아세요, 모두. 그런데 불교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라는 것은 지금 좋은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거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합한 말입니다, 불교가. 그런데 거기 어떻게 국한된 어떠한 개별적인 용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뭐라고 그랬죠, 또? 인연에 따라서도 그렇고?

질문자2(남) 예, 그걸 저는 인연에 따라서 제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연도 불교의 하나의, 제가 불경의 말을 빌린 어떤….

큰스님 간단간단하게 조금씩 말을 해야 내가 대답을 해 주지. 하하하.

질문자2(남) 그냥 인연에 대한 의미를 스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인연은 뭐, 인연이라는 것, 아까 얘기했죠. 눈으로 본다면 귀로도 듣죠. 간단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귀와 눈이 인연이거든, 허허허, 어때요? 코도 인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그릇 안에, 즉 말하자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것도 인연이요. 그게 돌아가니까 십이처로, 십이인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십이인연(十二因緣)으로 돌아가는 것도 말로다가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왜? 십이인연만 되고 십이처(十二處)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 용어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그건 사람 살아나가는 법칙 속에서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비행기 프로펠러, 이 표현을 내가 잘하죠. 프로펠러처럼 막 돌아가는데 어디 거기 십이처가 붙을 자리가 있고, 어디 십이인연이 붙을 자리가 있고, 인연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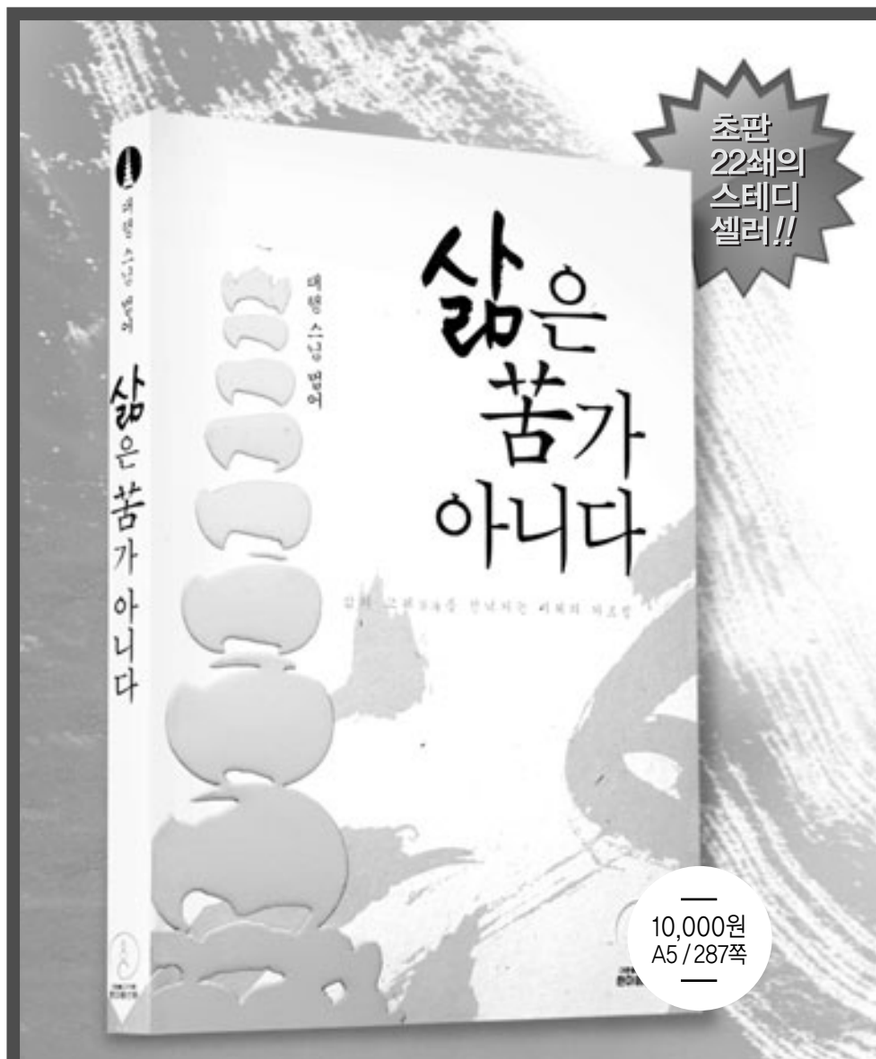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는 게 아니라 가을 잎 떨어지는 거와 같다 이러는 겁니다. 가을 잎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뿌리가 죽고 나무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는 뿌리가 보이지마는 그 나무가 자기 나무를 볼 때는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럽니다. 우리 인간 뿌리는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뿌리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말을 하고 지금 그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응? 자기 마음 내는 게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 불법승 삼보(三寶)가 자기한테 있지 딴 데 있는 겁니까, 어디? 남이 잘못한다 잘한다 하기 이전에 자기부터 알라 이겁니다. 지금 소용돌이 속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이것 보고 저것 끄달리고 그러면 거기 순응을 못해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것도 다 그렇게 걸려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북하면 내가 그러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하지 말아라. "너 자체가 공해서 없는데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거기 개입될 게 뭐 있겠느냐?" 하는 것만 안다면 그대로 영원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뜻을 모르실는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빨리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갸륵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부 법신(法身), 화신(化身), 보신(報身), 약사(藥師), 뭐 여기 전부들 계십니다. 그게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한생각에서 보현(普賢)도 있고 문수(文殊)도 있는 겁니다. 한생각에서 지장(地藏)도 있고 관세음(觀世音)도 있는 겁니다. 이 한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과거의 한생각에 다 계셨었는데 지금 한생각에도, 그것이 삼천 년 전의 한생각이 지금 한생각이고 지금 한생각이 미래의 한생각이자 지금 한생각입니다. 그러니 숙명통은 바로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그러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자기가 산 대로, 과거에 짊어진 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은 앞서의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느냐 이 소립니다. 여북하면 이름도 모르는 컴퓨터까지 대동했겠습니까? 하하하.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네 가지 요소가 탐지기지, 무전통신기지, 팩스지. 아, 그게 다 붙어 돌아가지 않남?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날까지 잘하니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래 본 예도 없고, 내가 못하니까 그냥 '에이, 이거 못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한탄을 해 본 예도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누가 나쁘다 좋다 하거나 말거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못난 대로 사는데, 진실하게 사는데 누가 뭐랍니까? 그러거나 말거나지.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아는 대로, 체험한 대로, 실험한 대로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법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백지 속에 연필을 드십시오. 그러면 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0년 7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불자 세상보기 |

말은 마음의 초상



법현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모범 보일 지도층 甲질 편승
최근 막말 구설 인사 많아져

거친 말은 성을 내서 하는 말
성내면 절대 '成佛' 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법구경에선 "말의 악업 버리고
말로서 선업을 쌓으라"고 했다
연꽃 향내나는 말을 하며 살자

날도 덥고 경기도 좋지 않다. 탄핵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은 골이 패였다. 남북관계가 매우 사나우며 사드다, 반핵이다 해서 매우 복잡한 요즘이다.

이런 때에는 더운 날 산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들이키는 시원한 냉수가 몸에 좋다. 마음에는 귀를 통해 들려오는 음악소리와도 같은 고운 말 속에 조촐하고도 사이를 이어주는 바른 말이 들리면 비단옷에 꽃을 꽂은 격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바라는 대로 가지는 않는다. 이곳저곳에서 삶이 퍽퍽하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니 삶이 퍽퍽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말을 해서 그 말들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나 옮겨 들은 사람들의 삶을 더 퍽퍽하게 하고 있다. 사장님들과 아름다워야 할 여인들까지 난리다. 가뜩이나 힘든데 말이다.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우리가 짓는 업은 마음으로 셋, 몸으로 셋인데 입으로는 넷이나 된다고 한다. 그만큼 입으로 하는 말의 중요성을 일러주신 것이다. 나머지 셋은 옆으로 두고 거친 말 즉 욕설에 관해 살펴보면 정말 하지 말아야 한다.

추악한 말을 버리고 추악한 말을 삼간다. 부드럽고 귀에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와 닿고, 점잖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쾌한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신분과 지위 또는 관계의 윗자리에 선 사람들이 거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냄은 가장 나쁜 것이다. 거친 말은 성을 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나쁘다. 성내는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행복을 이룰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말이다. 부처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산속에서나 종교단체에서나 쓰이는 말이고 고리타분하며 손해 보기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남에게 잘 해주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명예나 지위와 경제적 이익형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성내서 나쁜 말을 하면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한 것이며 그 때 눈이나 몸으로도 나쁜 행위를 하면 좋지 않은 것들이 세 쌍이나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말의 성냄을 다스려라. 말을 절제하라. 말의 악업을 버리고 말로서 선업을 쌓으라(〈법구경〉)"고 하신다.

사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하지만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도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태운다. 모든 뭇삶(衆生)들의 불행은 입에서 생긴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법구경〉)"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거센 불길은 한 세계, 재물만을 태울 뿐이지만 말의 업은 한량 없는 세계, 성재를 태운다(〈보은경〉)"고 한다.

"제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나쁜 별명을 지어 비웃고 욕해서 있던 사람은 떠나고 올 사람은 오지 않았다(〈악구형명경〉)"고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오는 거친말의 불이익이다. "고운 말,부드러운 말을 해야 내가 이익이다. 거친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하기를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하라(〈법구경〉)"고 했다.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고운 말의 향기를 넘치게 하여 다른 이도 즐겁게 하고 나 스스로도 기쁘고 이익이 되는 삶을 살자. 살고 있는 누리를 향내 나는 연꽃 밭이 되도록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자.

社說

태고종 새로운 도약 계기되길

폭력사태까지 불거졌던 태고종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임 총무원장 선출 이후 종단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었다.

태고종은 8월 2일 춘천 베어스호텔 소양홀에서 '태고종 종단발전과 종도화합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 참가자들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시도교구종무원장 29명과 선암사 · 봉원사 · 백련사 · 청련사 · 법륜사 주지 5명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 인사추천위원들은 차기 집행부 인사를 3배수로 오는 8월 15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제26대 총무원장 당선자인 편백운 스님은 선거 당시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서의 태고종 위상강화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종단 부채 해결을 중심에 두고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밖에도 △기초교육제도 개혁 △권역별 지방 초심원 설치 △사설사찰 보장 △독자적인 대외협력체계 구축 등을 실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선자의 리더십은 필수이다. 그 리더십은 조직 인선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선인은 교구 종무원장들과 조직 인선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좋은 총무원장의 요소는 자기가 일을 잘 하기보다는 좋은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라는 편백운 스님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리더십과 더불어 종도들의 원력 동참도 필요하다. 그간 내홍으로 몸살을 앓은 태고종이 변화를 위해서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 현재 태고종은 변화의 시험대에 올랐다. 첫 가늠자는 신임 총무원장 집행부 인선이 될 것이다.

청년회 네트워크, 흩어진 佛心 잡아라

창립 100주년을 3년 앞둔 대한불교청년회가 올 하반기부터 사찰청년회 간 네트워크를 조직해 미래 불자 결집에 나선다. 최근 불교계 화두로 떠오른 '미래세대 포교'에 발맞춘 적극적인 행보에 지지를 보낸다.

대불청 미래세대위원회가 이 같은 사업계획을 세운 데는 최근 급격한 불자감소를 비롯해 불자의 고령화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실감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대불청 구성원 대부분이 과거의 청년들이라는 뼈아픈 내부진단도 있었다. 역사를 간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 또한 미래세대 없이는 이어질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명 청년불자는 타종교의 젊은 세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적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진 청년불자들이 또래와의 교류를 원하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통한 불교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불교계는 이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등한시한 업보를 받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현장에서 청년회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불자들은 불교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불교를 알아가야 할지 막막해한다고 전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이미 오랫동안 제기돼왔고, 이제라도 실천에 옮겨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렇기에 대불청의 행보는 여느 단체의 활동보다 값지다. 게다가 미래세대위원회는 대불청에 종속된 기구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활동하며, 20~30대 청년들이 이끌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부디 대불청이 신행 · 포교단체로서 흩어진 청년불심을 한 데 모으는 마중물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삶은 운명 아닌 因緣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7월말, 중국 절강(浙江)대학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13년 만에 항저우를 다시 찾았다. 그런데 중국에 가기 일주일 전에는 유럽으로 2주간의 출장이 있었고, 돌아와서 여독을 풀 여유는커녕, 내 게으름으로 인해 마무리하지 못한 학회 발표 논문을 손질하느라 쉬지 못했다.

그렇게 학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자 한 달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옴을 느꼈다. 나는 다음날 늦게까지 잠에 취해있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학회가 '항저우'에서 열린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리운 이를 찾듯이 꼭 들러야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곳이 있었다. 결국 다음날 늦잠을 자겠다는 다짐은 버리고 호텔과 그리 멀지 않은 영은사(靈隱寺)로 향했다.

중국 선종 10대 사찰 중 하나인 영은사는 천년고찰답게 입구부터 시대를 달리하는 많은 불상들이 석벽에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긴 역사보다 내겐 처음으로 영은사를 찾았던 13년 전 기억이 더 소중한 '역사'로 자리 잡고 있다.

금강대학교 신입생 시절, 학교에서 상하이~항저우 일대로 신입생 수련회를 보내주었기에 영은사에 와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서른이 넘은 '늙은 신입생'인 내게는 스무 살의 동기들처럼 새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설렘이 있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러한 내 선택에 대해, 나이를 먹으면서 짊어져야만 하는 의무로부터의 도피라는 주위의 질타를 부정할 수 없었기에 여행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복잡한 심경 탓인지 대웅보전에 모셔진 20m가 넘는 풍채 좋은 부처님을 뵙고는 가장 원초적인 '기복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선택이 잘못된 길이 되지 않게 해달라며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시작된 서른 살의 대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불교학을 알게 되고 불교학과로 전과하면서 불안했던 마음은 안정을 얻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 여러 고마운 인연들을 만나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불교학은 그렇게 내 업이 되었다.

유학시절, 같은 지도 교수님 아래에서 함께 공부한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중국으로 돌아가 절강대학의 강단에 서게 되었고, 이번 학회는 그녀의 초정으로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인연은 다시 나를 항저우로 오게 하였기에 영은사를 꼭 찾아가고 싶었다. '불교학'의 인연은 상상도 못했던 그때의 내 모습과 '불교학회' 때문에 항저우를 다시 찾게 된 묘한 삶의 인연이 왠지 영은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었다.

대웅보전에 들어서서 13년 만에 뵙는 부처님께 합장 드리며 여쭤보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우울한 마음으로 소원 빌던, 수많은 관광객 중 한 명이던 나의 미래를 알고 계셨었는지…. 물론 부처님께서는 삶에 대한 운명론도, 숙명론도, 그리고 신의 의지도 단호히 거부하셨다. 인생은 그저 자신이 심은 행위의 씨앗이 싹을 터가며 만나는 여러 상호 작용들의 흐름일 뿐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심을 인생의 씨앗들은 1년 뒤, 10년 뒤 또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갈 것이다. 가는 곳을 알 수 없다 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무명(無明)의 씨앗은 고통으로, 지혜의 씨앗은 즐거움으로 데려가리니, 늘 지혜를 탐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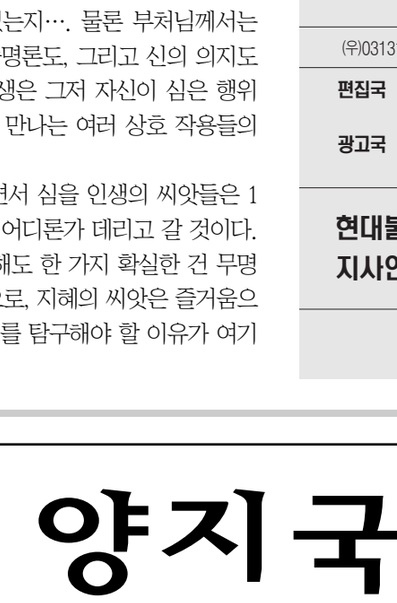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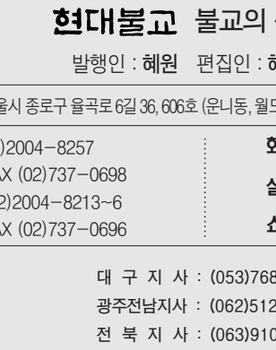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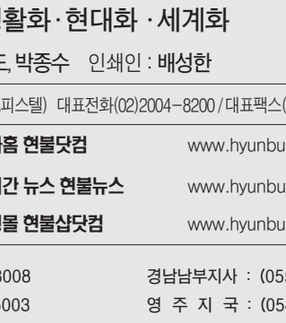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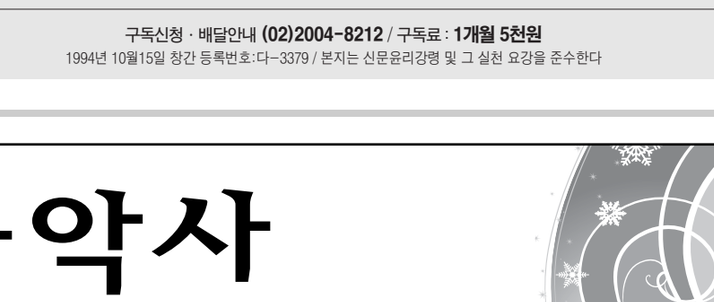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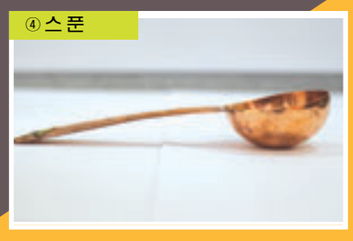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 × 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 × 120(h) × 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 × 140(h) × 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향나무향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단)



(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잔까를로 크로세티(Giancarlo Crocetti) 씨는… 컴퓨터 공학박사로,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베링거 잉겔하임 미국 지부의 IT 부총괄 이사 겸 세인트 존스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매일 금강경을 읽는 수행을 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미국 도서관과 대학 등에서 열리는 한국 알리기 활동을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INSIDE

B4 출판 수안 스님의 신간 〈행복 주머니〉

B5 문화 장욱진 화백 회고전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공경하는 마음이 인생을 변화시켜

미국서 날아온 수행편지

잔까를로 크로세티(베링거 잉겔하임 이사 · 48)

오늘날 한국의 불자들에게 가장 널리 읽히는 〈금강경〉은 '지혜의 보고'로도 불린다. 삶 속에서의 고뇌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강경〉 속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푸른 눈의 불자가 있다. 바로 잔까를로 크로세티 씨다. 본지는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 회원으로 미국에서 수행정진 중인 잔까를로 크로세티 씨와 조금은 독특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임원으로 고속 승진의 비결이 바로 〈금강경〉 수행이었다는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편집자 주〉

저는 베링거 잉겔하임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마음살림살이 여섯 가지인 △남의 허물은 내 허물처럼 덮어 주고 내 허물은 남의 허물처럼 파 뒤집는 마음을 연습하라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게 곧 내 허물인 줄 알라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연습하라 △누가 뭐라든 '예'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하라 △누구를 만나든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라 △올라오는 마음을 부처님 전에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라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마음살림 살이를 읽고 다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 때, 부처님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마음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아 부처님, 제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라고 부처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한 점을 보았을 때 마음살림살이를 실천하다보니 다른 사람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라는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 나는 저것을 하지 말아야 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한다거나, 작은 실수지만 회의실을 중복해서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을 꾸짖기 보다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 제 잘못을 그분들이 알려 준 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잘못하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동료가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서없이 정리 안 된 이메일을 보내올 때 화가 난다' 는 상사의 말을 들으면, 그 속에서 배우는 마음을 연습하면서 '아 그렇겠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면 보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겠다.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이메일을 써서 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연습을 했습니다.

또 상사들이 잘하고 있는 행동을 관찰해 보니, 회의를 할 때 회의 시작 전에 시간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어떤 주제나 안건에 대해서 회의할지 목표 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생긴 두가지 변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배우는 마음을 연습하다보니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일을 효율적으로 굉장히 더 잘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초기에는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아 부처님으로 보는 게 어렵지만 그분들을 부처님으로 여기고 그 분들께 삼배 드리는 마음을 연습해야 되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마음으로 삼배 드리는 마음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삼배 드리는 마음을 연습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회의의 대화를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한 분 한 분 삼배 드리는 마음을 연습하기도 했고, 또는 그 분들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 모두에게 삼배 드리는 마음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제 상사나 동료나 제 비서나 직위에 상관없이 연습했습니다.

'이분들이 부처님이시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 분이 부처님이시라면 내가 시봉을 잘 해올려야 할 텐데, 어떻게 잘 대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같은 직급의 동료가 컴퓨터로 무엇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일이었고, 새벽 두세 시까지 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동료에게 너는 잘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 살림이 진정한 리더십

만나는 이들이 바로 '부처님'

타인 잘못보며 본인 잘못 고쳐

하심 · 공경에 신뢰 · 우정 쌓여

조직운영에 지혜 발휘, 승진도

저와 동료가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상사도 좋아했습니다. 각자 일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협력해서 일하는 모습을 좋아했고, 또 그 동료에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교체하는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을 통해서 일주일 걸릴 일이 몇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때 동료가 너무 좋아하면서 막 춤을 출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1주일 걸릴 일이 몇 시간 만에 끝나니까, 키도 크고 배도 많이 나온 덩치 큰 미국 남자가 너무 좋아서 아이같이 춤췄습니다. 상사도 제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처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 때 제가 상사분한테 말하기를 "아닙니다. 존이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도와준 것 뿐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사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또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정말 자네가 한 일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일주일씩 걸리고 자주 일어나는 일은 몇 시간 만에 처리해줘서 이게 금전으로 환산하면 수천달러 일을 자네가 해낸 거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렇게 저랑 제가 도와줬던 존이 잘 지내면서, 팀 전원이 서로를 도와주고 협동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제 상사가 이 일이 있은 후 몇 주 동안 매일 복도에서 저와 마주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아주 기분 좋아했습니다.

B2면에 계속

‘상대방 입장서 생각’, 또 다른 나를 만들다

‘잔까를로 크로세티 씨’ B1면에서 계속

보수를 3배 벌어주는 것, 바로 ‘마음’

스승이신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의 김재웅 법사님은 보수의 3배를 벌어주는 마음을 연습하라고 하십니다. 회사에 3배를 벌어주려고 노력하다보니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또 누가 뭐라든 ‘예’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상사가 하는 말에 항상 ‘예’라고 하니, 상사도 “내가 자네한테 이야기 할 것이 있는데, 넌 분명 또 예스 라고 할꺼지?”라고 농담할 정도로 협조하고 돕는 마음으로 연습했습니다.

그 때부터 상사가 중요한 일이나 큰 프로젝트를 맡을 때 저를 참여시켜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매년 임직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1)계속해야 하는 것 (2)멈춰야 되는 것 (3)시작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분석해서 평가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사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사도 저에게 마음을 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새롭게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상사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업무 효율과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직원들 평가를 받습니다. 이 중 ‘가장 비범함’ (outstanding)이란 등급이 있는데, 이 평가를 받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 평가등급을 3년 연속 받게 됐습니다. 이 평가를 받으면 회사 내 지명도는 물론이고, 보너스를 받고, 승진에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급에서 몇 단계를 뛰어넘어 이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창립 이래 매우 이례적인 승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진을 할 때, 회사의 높은 분 중 한 분에게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사로 승진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끌고 있는 팀이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팀원들은 다르게 하고 싶어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 의견이 있더라도 팀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의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바침 해주고 싶습니다.”

그 상사분이 제 대답을 듣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베링거 잉겔 하임에는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 들이 대부분이고,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겠다는 제 대답을 굉장히 맘에 들어 하셔서, 40대 초반에 여러 직급을 뛰어 넘어 결국 전 이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로서 여러 직원들을 이끌게 되면서, 내가 잘 해야 된다, 내가 잘 되어야한다는 생각으로 일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가, 우리 회사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우수직원상을 3년 연속 받고난 다음, 상사로 만난 분의 이름이 ‘샌디’ (Sandy)였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처럼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셨습니다. 이 분은 의도적으로 “그래 네가 3년 연속 최우수 직원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로 저를 코너에 몰때가 많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비참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분은 저에게 아래서 두 번 째 등급인 ‘기대를 겨우 충족함’이라는 평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살림살이를 연습하다보니, 어느날 그 분에게 제 속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수직원으로 뽑혔지만 지금의 이런 자극이 없었다면 오만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 제게 부족한 점을 고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상사가 계속 아주 조그만걸 가지고 꼬투리잡고 지적하면서 보고서를 10번이나 다시 쓰게 한 적도 있는데 10번을 다시 쓸때마다 마음살림살이 중 “예”하는 마음을 연습하면서 견뎠습니다.

매일 금강경 읽고 마음살림살이 실천

매일 금강경을 읽고 마음살림살이를 실천하면서 계속 업무 성과도 나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제가 지원한 컴퓨터공학과에서 딱 20명의 박사과정 학생들만 받았고, 그 20명을 4명씩, 다섯 팀으로 나눴습니다. 각 팀이 연구 과제를 협동해서 완수해 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 박사과정을 끝내려면 팀원들이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희가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매주 만나서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매주 만나 소통하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분과 같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람도 같이 팀원으로 같이 잘해 나가길 바랬습니다. 그 분에게도 발언 기회를 많이 주면서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끼리 소통이 잘 되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여러 팀들 중에서 저희 팀이 굉장히 잘 나가게 되었고, 교수님 눈에도 저희 팀이 돋보였습니다. 저희 팀이 잘 나가자, 다른 팀들도 경쟁심을 가지고 저희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구 주제를 정해주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줄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지도교수님이 있었는데, 매우 엄격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악명 높은 분이 있었습니다. 학생을 불러 60초안에 지금 연구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게 하고 설명을 60초안에 못하면 쫓아내고 또 불시에 부르는 일이 많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부단히 연습하면서,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을 때, 그 분에게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어떻게 공부해야 교수님한테 통과할 수 있을지 막막한데, 좀 조언을 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사과정은 굉장히 벅찬 과정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자만심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는데, 교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심을 연습하고 또 그분의 조언을 받고 노력하다 보니,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 주셔서 박사과정을 3년 안에 끝냈습니다. 150년 학교 역사에서 3년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3번째 학생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해에 최고 박사학위 학생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저의 부처님

마지막으로 St. Johns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일하면서 마음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분들을 부처님으로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강연 첫날 인사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시봉하기 위해서 있습니다(I am here to serve you).”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학업에서 성공을 하고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그 책임은 잘 못 가르친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맡은 학생들은 대학원생들 20명이었는데 다들 국적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서 이런 학생들을 제가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20명이 학생들이 누구 하나 낙오되는 사람 없이 다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그중에 한두 명이 진도를 못따라 오고 쳐지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보충수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는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대학원 학생들을 이끌어 주느라 기진맥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나쁜 점은 무엇인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묻고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학생들은 순수해서 자신들이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다음 수업 때 좀 더 발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의 강연을 평가할 때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제 점수는 4.9점입니다. 학생들은 저한테 고마워 하지만, 또 저는 학생들 덕분에 제가 성장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학생들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 전임교수가 아니라 회사 일을 하면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완전히 소속 되어서 일하는 전임교수들은 학교에서 힘도 있고 학교생활에 더 충실하지만 보통 다른 사회활동을 하면서 겸임교수를 하는 사람들은 학교 내에서 별로 영향력도 없고 바쁘기 때문에 수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급을 주는 대학에, 그리고 등록금을 내서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학교에 어려운 과목을 수업 2개를 맡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다른 겸임 교수들은 강의를 하나 맡는데 저는 까다로운 강의를 두 개 개설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어려운 과목들이라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비디오로 찍어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복습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세인트 존스 대학원에서 ‘올해의 최고 교수상’을 받게되었습니다. 겸임교수가 이 상을 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로운 점이 있었고 참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심하고 공경심으로 부처님 시봉을 잘 해 올릴 수 있기를, 크나큰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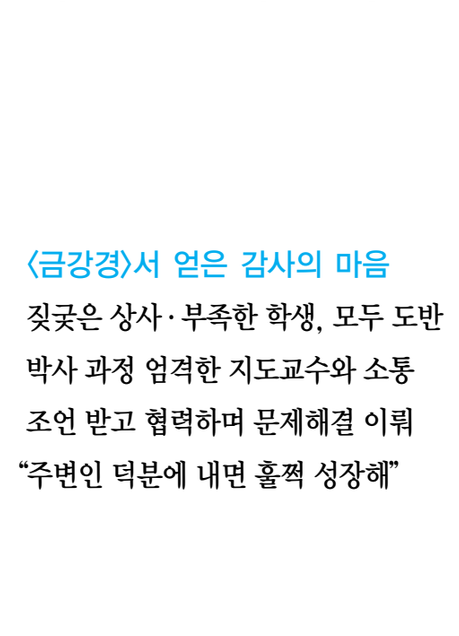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잔까를로 크로세티 씨는 한국알리기 활동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공주 한일고 한국알리기 행사. 바쁜 일정에도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그는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고 말했다.

〈금강경〉서 얻은 감사의 마음

짚궂은 상사·부족한 학생, 모두 도반
박사 과정 엄격한 지도교수와 소통
조언 받고 협력하며 문제해결 이뤄
“주변인 덕분에 내면 훌쩍 성장해”


〈금강경〉을 독송하는 잔까를로 크로세티 씨.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홀연 夢서 깨다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⑯ 정토종 제11조 성암 대사

믿음(信)과 원력(願)과 염불행(行)은 윤회계를 벗어나 정토에 나는 양식이 되는데, 양식만 준비하면 정토에 나기가 어렵지 않고, 정토에 나면 삼계윤회를 벗어나므로, 석가여래께서는 여쭙는 제자 없이 〈아미타경〉을 스스로 말씀하시어(無問自說) 염불 발기의 인연이 된 것이다.

중국 청나라 때 태어나신 성암 대사(省庵大師, 1686-1734)는 부처님께서 염불법문을 열어 중생들로 하여금 발심 염불하여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는 불지견에 깨쳐들게 한 이러한 도리를 몸과 입과 뜻으로 여실하게 보여준 선지식이다. 청나라 강희 25년(1686) 8월 초파일 태어나 훗날 정토종 제11대 조사로 추존된 대사의 본명은 실현(實賢), 자(字)는 사제(思齊), 강소성 상숙(常熟)사람이다. 속성은 시(時)씨로서 대대로 유교의 선비 집안에서 자랐다.

7세에 동진출가… 15세에 불교 · 유교 통달

대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어린시절부터 총명한 지혜와 온화하고 부드러운 본성을 드러냈다. 마치 여러 생을 통해 오염된 세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탈속의 뜻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부친이 일찍 사망하자 모친 장(張)씨는 아들이 불연이 깊음을 알고 출가 수도의 길을 열어주었다. 대사는 일곱 살이 되자, 모친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청량암(淸涼庵) 용선(容選) 화상을 배알하고 스승으로 모시게 했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스승으로부터 불전의 가르침과 규율을 배우는 동시에 유교 등 세상의 학문도 함께 익혔다.

대사는 15세(1700)가 되자, 정식으로 비구계를 수지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미 불교와 유교에 두루 달통하여 시문에 능할 뿐만 아니라 서예에도 정밀한 기예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대사는 절대 다른 업에는 탐닉하지 않았으며 나고 죽는 큰일(生死大事)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세간의 문장과 이치에 달통한 대사는 충과 효를 돈독히 여겨 모친이 서거하자, 불전에서 무릎을 꿇고 49일간 〈불설부모은중난보경(佛說父母恩重難報經)〉을 독송하기도 했다. 더불어 매년 모친의 기일(忌日)이 되면 공양을 베풀고 경을 독송하며 어머님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화두 타파

어느 날, 성암 대사가 우연히 선인사(善仁寺)에 들렸는데, 홀연히 한 스님이 땅에 머리를 박고 입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문득,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신을 경책하며 부지런히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로부터 대사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발(衣鉢)을 놓지 않고 하루 한 끼 만을 먹으며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고 정진했다.

이후 사방으로 선지식으로 참방하러 운수행각을 다녀온 후, 25세(1710)가 되자 대사는 거성(渠成) 스님과 소담(紹曇) 스님으로부터 불교교리를 배우고, 대승의 성종(性宗)과 상종(相宗)을 연구하는 한편, 소승 방등경전을 공부하였다.

이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자 천태종 삼관(三觀) · 십승관법(十乘觀法)의 종지와 성상(性相) 2종의 교학을 두루 막힘없이 관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암 대사의 경학이 경지에 오르자 소담 스님은 그에게 천태정종(天臺正宗) 영봉(靈峰) 선사의 제4세 법맥을 전했다.

강희 53년(1714), 29세에 대사는 숭복사(崇福寺)의 영취(靈鷲) 화상 문하에서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念佛是誰)?’ 는 화두를 치열하게 참구하다가, 120일이 지나자 홀연이 크게 깨닫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我夢醒矣)”고 말했다. 이때부터 대기대용이 자재했으며, 변재가 막힘 없이 터져 나왔다. 영취 화상이 성암 대사가 불문의 법기임을 알고 법맥을 전하려고 하자, 대사는 완곡히 사양하며 예를 갖추고 떠났다.



성암 대사 사리가 모셔진 아육왕사.

숭복사 영취화상 문하서 참구
진적사서 치열한 무문관 수행
연지공양, 서방발원문 주해

3년 무문관수행으로 염불삼매 증득

이듬해, 대사는 진적사에서 폐관(閉關: 무문관)수행에 돌입했는데, 낮에는 대장경을 열람하고, 날이 저물면 ‘아미타불’ 명호를 지송했다. 밤을 지새우며 정진한지 3년이 지나자 대사는 마침내 염불삼매를 증득했다. 이러한 삼매 증득이 정토법문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불가사의한 지혜를 낳게 되자, 대사께서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연지 대사의 ‘서방발원문(西方發願文)’에 주해를 달게 된다. 3년간의 폐관정진을 성공적으로 회향하자, 진적사의 대중들은 성암 대사에게 〈법화경〉을 강의해 줄 것을 공손히 청했으며, 대사는 법좌에 올라 막힘없는 변재와 혜안을 갖춘 설법으로 승속 대중의 진실한 찬탄을 크게 받게 된다. 이 일이 있은 후 소담 스님의 하명에 따라 항주 융흥사(隆興寺)에서 경과 율을 대신 강의하도록 했는데, 강의를 들은 대중들이 찬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로부터 대사의 명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연지공양하며 48대원 발하자 방광

강희58년(1719), 절강성 영파시 도옥에 소재한 아육왕탑(阿育王塔)의 부처님 진신사리 앞에서 손가락을 불살라(燃指) 공양하며 48대원을 세우시자, 그에 대한 감응으로 부처님 사리가 찬란한 광명을 내셨다. 이로부터 매년 부처님 열반일에 대사께서는 승속의 대중을 모아놓고 경전을 독송하며 불공을 올렸다. 이때 대사는 〈유교경(遺敎經)〉과 〈불설아미타경〉을 강의했는데, 선종의 종지인 “시심시불(是心是佛: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의 깊은 뜻을 결합시켜 예리하고 둔한 상중하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얻도록 대중법문을 설하였다.

청나라 세종 옹정2년(1724), 불혹(40세)의 나이에 이른 대사는 항주 범천사(梵天寺)에 가서 주석하면서 유명한 작품인 〈권발보리심문(勸發菩提心文)〉을 짓게 된다. 이후 대사는 항주 선림사(仙林寺)에 은거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며 염불에 전념하면서 절 밖을 나가지 않고 모든 인연을 단절한 채 전수염불(專修淨業)에만 매진하였다. 아울러 사중의 대중을 격려하고 지도하면서 오로지 깊은 신심, 견고한 발원, 전수염불을 통해 서방정토에 왕생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때 함께 정토수행을 한 대중들은 한결같이 성암 대사를 “(아미타불의 화신인) 영명연수 선사께서 원(願)을 타고 사바세계에 다시 오신 분(永明延壽禪師 乘願再來)”이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 “부처님께서 염불법문을 열어 보여주심은 중생들로 하여금 육근을 거두고 깨끗한 생각으로 계속하여 아미타불 명호를 불러 생각의 경계가 고요하고 마음이 텅빈 데 이르면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서 곧 부처님 지견(佛知見)에 깨쳐 들어가 자성이 저절로 드러나서 각자 자기에게 갖추어 있는 자성미타(自性彌陀)를 친견하여 한 가지 출세의 큰 인연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
> -〈권수염불문(勸修念佛文)〉



칭명염불 위주의 염불결사 창립

만년의 대사는 다시 대중의 간청을 받아들여 항주 봉산(鳳山)의 범천사로 돌아와 주석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정토법문을 전하고 중생을 구제하여 이롭고 편안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대사는 옹정 7년(1729)에 전수염불 단체인 연사(蓮社)를 창립했다. 정토왕생에 뜻을 두고 신원염불(信願念佛)을 하는 이들이 명을 마칠 때까지 염불결사에 동참할 것을 문서로 기록해 서원을 하도록 하였다. 매일 수행일과를 20이라 할 때 10은 칭명염불, 9는 관상(觀想)염불, 1은 예배와 참회로 나눠 밤낮으로 쉼 없이 정진하도록 했다. 대사의 영향 아래 결사 대중이 함께 염불수행을 하니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재가 염불행자가 출가득도한 자도 수백 명에 달할 정도였다.

매일 10만 편 염불… 서방삼성 친견

옹정 11년(1733) 음력 1월 8일 성도일, 대사는 대중을 모아 말씀하시길 “나는 내년 4월 14일이면 이 세상을 떠나 왕생극락을 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대사는 향을 피우고 방 문을 걸어 잠그시고 매일 십만편(遍) 씩을 염불했다.

이듬해 4월 2일, 대사께서 출관(出關)하신 후 10일이 되자 대중에게 “내가 10일 전에 서방삼성(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께서 허공에 강림하신 모습을 친견하였고 지금 다시 보노라. 나는 정토에 왕생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곧 이어 사원의 사무를 부촉하시고는 다시 성 안의 여러 호법거사 등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시자가 유훈을 내려주실 것을 청하자, 대사는 글로써 대중에게 설했다.

“내가 14일로 왕생을 결정하였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 모여서 염불을 해다오.”

“극락에서 중생구제 위해 다시 오겠다”

13일에는 음식을 들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좌선했고, 14일 새벽 3시 경이 되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서쪽을 향해 가부좌를 하고 염불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멀고 가까운 곳에 사는 신도들이 모여들어 눈물을 흘리며 예를 갖춰 대사는 세상에 머물러 중생을 제도해 줄 것을 간절히 청하였다. 이때 대사가 다시 눈을 뜨고 대중을 둘러보고는 “내가 왕생극락하여 부처님의 수기(授記)를 받고 나서 곧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올 것이다. 생사가 큰일이니, 각자 마음을 맑혀 염불하는 것이 가하리라”는 말을 마치시고는 합장한 채 부처님 명호를 부르시며 편안하게 왕생했다.

이때가 청나라 옹정 12년(1734) 4월 14일이었다. 세수 49년, 승랍 25세로 대사의 삶은 길지 않았으나, 정토종에 끼친 공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넓었다.

대사가 입적한 12월 8일 제자들이 대사의 영골(靈骨)을 상숙 금천의 불수암(拂水岩) 서쪽에 모셨다. 청나라 건륭 7년 2월 15일, 항주 일대의 제자 등이 다시 대사의 유골을 아육왕사(阿育王寺)의 오른 편 탑에 봉안했다. 대사의 저작으로는 〈권발보리심문(勸發菩提心文)〉 〈정토시집〉 〈성암대사어록〉 〈성암법사유서(省庵法師遺書)〉 등이 있다.

발보리심 일향전념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7.27~2017.8.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2	불화의비밀	자현	조계종출판사	7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3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8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4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9	꽃도꽃피우기위해애를쓴다	정목	수오서재
5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10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부처 눈으로 본 세상 禪書畵로 담다



선서화 시집 〈행복 주머니〉

글 · 그림 수안 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1만7천원

禪서화가 수안 스님이 선서화 시집 〈행복주머니〉를 새롭게 출간했다. 책 소개를 부탁하자 수안 스님은 〈화엄경〉을 언급했다. 책 〈행복주머니〉에는 도반, 입동, 행복한 빈손, 여래화, 어머니, 아버지, 큰 스님의 수선화, 나 그리고 세월호 등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접하는 소식과 물건 그리고 사람들이 주제다. 저자는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바로 화엄경이다. 온 세상의 만유개불이다. 즉 부처님 아닌 것이 없으니 어머니도 부처요, 도반도 부처며 겨울에 내리는 차가운 서리도 부처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선서화 집 〈행복주머니〉는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향한 사랑을 순수한 언어로 그리고 극진함으로 담아 두었다"고 출간 취지를 덧붙였다.

도반, 어머니, 세월호 등 일상소식, 사람들이 주제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은 사랑하는 사람 미소띤 얼굴"



〈행복 주머니〉를 펴낸 수안 스님이 선서화를 그리고 있다.

"꽃 가운데/ 제일 예쁜 꽃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짓는 얼굴" 시화집 〈행복주머니〉 가운데 '화중화(花中華)'라는 제목의 시다. 짧고 단순하지만 저절로 행복해진다. 사랑하는 이의 미소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화엄경〉은 온갖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한다는 뜻의 '잡화엄식(雜華嚴飾)서 나온 말로 '잡화장엄(雜華莊嚴)'을 줄인 말이다. 그래서 〈화엄경〉을 〈잡화경〉이라고도 한다. 수안 스님은 시 '화중화'에서 꽃 가운데 제일 예쁜 꽃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짓는 얼굴이라고 노래했다. 그리고 이번에 펴낸 선서화 시집 〈행복주머니〉를 "부처님의 안목으로 본 화엄경의 세상이다"라고 재차 설명한다. 곧 부처님의 눈으로 본 우리 중생은 꽃 가운데 가장 예쁜 꽃이란 것이다. 부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며 고백이다.

시와 함께 주목할 것은 수안 스님의 선서화(禪書畵)다. 시 한편에 선서화 하나가 장식되어 조화를 이뤘다. 수안 스님의 그림은 화려하되 순수하고 거침없되 담백하다. 스쳐보면 어린이의 장난기 가득한 그림 같고 선의 눈으로 보면 군더더기 없는 법문으로 깊이가 한량없다. 스님은 자신의 그림을 '현중현(玄中玄)'이라 표현했다. 즉, 선사의 '할(喝)'과 '내리치는 몽둥이' 처럼 언어도 학문도 떠난 경지란 것이다. 수안 스님의 은사인 불화장 석정 스님이 쓴 '조도현로(鳥道玄路)'가 떠올랐다. 새의 길(道) 처럼 허공 속에서 자유롭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투명하게 가벼우나 아득하게 깊은 도의 길을 일러준다. 이화입도선화일치(以畵入道 禪畵一致), 그림을 통해 도의 경지에 오르며 그림과 선(禪)이 일치한 세상을 평생 꾸려온 결과다.

현재 수안 스님은 통도사 인근 암자 문수원에 주석한다. 1940년 경남 통영서 출생했으며 1957년 불화장 석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4년 통도사 월하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하고 이후 통도사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정진했다.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때 이재민돕기 선화전을 열면서 주목 받았다. 이후 파리 초대전, 유럽순회전 등 유럽과 러시아, 남미 등에서 전시를 가져 한국 불교 문화를 알렸으며 특히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성미 기자

향곡 스님 '진면목' 70편 일화로



봉암사의 큰 웃음

법념 스님
(그림 서주 스님)
답게 펴냄
1만 5천원

"니는 밥은 잘 묵나?" "아니오, 오전 불식합니다." "야, 니도 대데 빠-ㅈ네(덜 떨어졌네). 밥은 거르지 말고 잘 무야 하니라." "밥 안묵는 기 무슨 공부가?"

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은사이자 1940년대 후반 성철 · 자운 · 청담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이끈 선지식 향곡 선사(1912~1979)는 평소 식생활이나 식습관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실제로 선방서 누군가가 아침이나 저녁을 안 먹는다고 하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공부를 힘써 할라 카몬 뭐든 동묵어야 되니라. 하라는 정진은 안하고 묵는거 갖고 야단을 지기네. 허허."

경주 흥륜사 회주 법념 스님〈사진〉이 1972년 출가 직후 부터 3년여 동안 부산 묘관음사서 시봉한 향곡

저자, 1972년부터 3년간 모셔 인간적 풍모, 가르침 등 소개

스님에 관한 70여 일화를 생생히 엮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봉암사의 큰 웃음〉이다. 저자는 "큰 스님은 공부하기 위해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먹고도 잘 졸지 않고 버틴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 공부에 하나도 보탬이 안된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고 회고했다.

그동안 향곡 선사의 도반인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일화에 대한 내용은 제자 원택 스님에 의해 많이 알려졌지만, 향곡 스님에 대한 저술은 거의 없었다. '죽으면 사리도 안 남길 것이다' 라는 수행자적 단호함에 제자들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입적 후에는 변변한 영정 사진하나 없어 제자들이 애를 먹을 정도였다.

저자인 법념 스님은 "불조 법맥 78조 이신 향곡 대선사는 일찍이 깨달음을 얻어 젊은 시절부터 선풍을 드날린 분이다. 사자의 풍모와 천성을 갖추고 한번 화두에 들면 삼칠일(21일) 동안 무심삼매에 들어 침식을 잊고 확철 관통하신 대선사"이라며 "아직도 많은 이들의 그리움 속에 남아 계신 향곡 큰 스님의 소박한 일상 이야기들을 통해 대도인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살피고 배우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출간 취지를 피력했다.



이번 책을 펴내기 위해 법념 스님은 경주 동리목월문학관서 고희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를 직접 배웠다. "50년이 가까이 지났어도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큰 스님의 가르침이 선한데, 일반인들에게는 관련 저술이 없다보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게 제자된 도리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려고 보니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글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책 속에는 향곡 선사의 인간적 풍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소개했다. 가령, 신도들이 보내준 속옷과 양말 등을 모았다가 한 번씩 대방출하는가 하면, 동네 노인들과는 잘 어울리면서도 관공서 사람만 오면 '없다 해라' 며 만나지 않는 등 격식을 원하지 않았다.

법념 스님은 "향곡 스님은 수행과 공부를 하는데는 엄격하신 분이었지만, 어느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일단 참회를 하면 다시는 거론 하지 않으셨을 만큼 너그러운 분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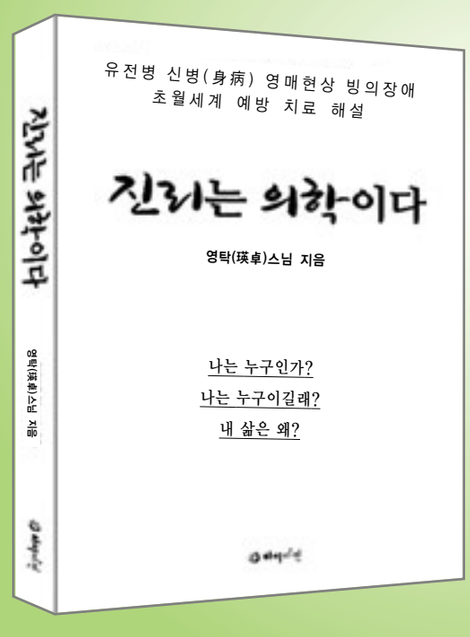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 성북구청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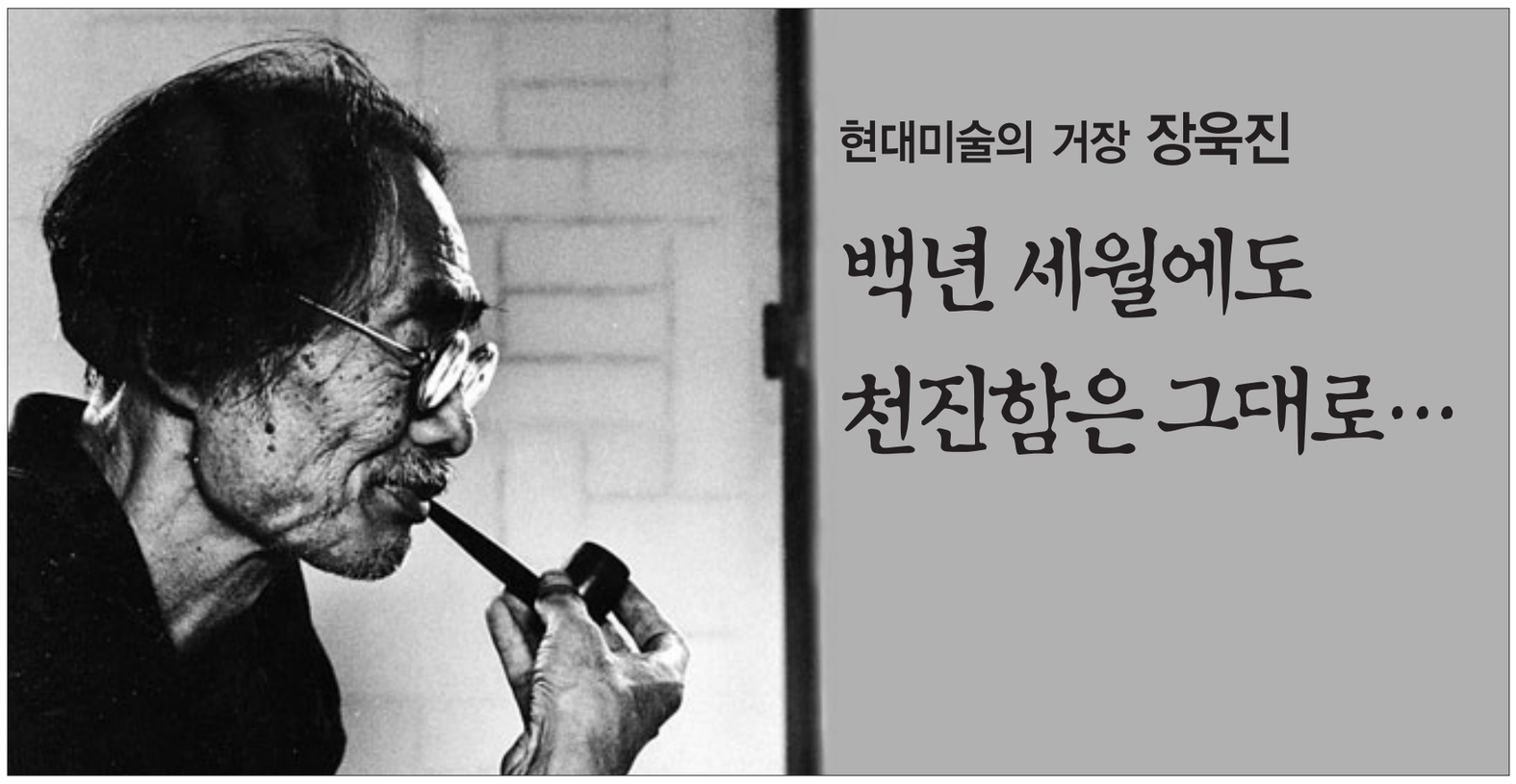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젼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



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

백년 세월에도 천진함은 그대로…



진진묘, 33×24.6cm, Oil on canvas, 1970.

장욱진 화백 탄생 100주년 회고전
'인사동 라인에 서다' 인사아트센터서

가나문화 · 장욱진문화재단 주최
유화 및 먹그림 등 100여점 전시
'진진묘' '팔상도' 등 불교 작품도
'배와 고기' 등 일반에 최초 공개

"다른 화가들은 아내 초상을 많이 그리던데 왜 당신은 안 그리느냐"는 투정 섞인 말에 붓을 잡아들고 일주일을 매달려 아내 초상화를 완성했다. 그런데 아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고행에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입상불(立像佛) 뿐이다. 그림 속 적힌 '진진묘'라는 법명을 보고서야 아내는 그 부처의 모습이 자신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 그림을 완성한 후 남편이 3개월을 앓아누워서 얼마나 속상했던지, 아직도 '진진묘'는 아픈 손가락이다. 장욱진 화백이 불심 깊은 아내 이순경 여사를 그린 '진진묘'(1970)에 얽힌 일화다. 2014년 10월 경매에서 6억 원에 낙찰된 이 작품은 장 화백이 직접 제목을 붙인 몇 안 되는 그림 중 하나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장욱진 화백(1917-1990 · 사진)의 예술 활동을 조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가나문화재단과 장욱진미술문화재단이 '장욱진 100년, 인사동 라인에 서다'展을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것. 장욱진의 유화 및 먹그림 100여점이 전시되며, 여기에는 '진진묘' '팔상도'(1976) 등 불교적 해석이 돋보이는 작품도 포함된다. 특히 미국 소장가가 보내온 '나무와 새와 모자'(1973)와 '배와 고기'(1960)는 그동안 유족들도 보지 못한 작품으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장 화백은 박수근 · 이중섭 등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힌다. 까치, 가족, 새, 나무, 마을, 아이 등 지극히 소박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동심과 순수함, 선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생전 "나는 심플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체면과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애썼고, 그 성향은 작품 속에도 녹아들었다. 새끼를 많이 낳은 돼지, 아침을 깨우는 닭, 우공(牛公)이 오가는 정경이 그것을 대변한다. '장엄함'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이란 말이 그의 작품에 더 잘 어울리는 이유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화가로서 본격 활동을 시작한 덕소 시절(1963-1975), 명륜동 시절(1975~1979), 수안보 시절(1980~1985), 신갈 시절(1986~1990) 등 총 4시절로 나눠 구성된다. 장 화백은 크게 4차례 아틀리에를 옮기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찾았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도 흥미로운 요소다.

1960년 초 덕소 시절은 6.25전쟁 이후 앵포르멜(Informel)의 영향을 받은 듯하지만, 마티에르 질감을 비교적 강렬히 표현함으로써 이상적이며 평화로운 공간을 묘사하는 등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했다. 명륜동 시절에는 더욱 간결하고 선명한 색상을 통해 강한 평면성을 나타내는데 화면의 단순미가 기하학적인 형태와 어우러지며 독특한 재미를 자아낸다.

이후 명륜동 시절의 영향을 받아 담담하고 소담한 표현이 주를 이룬 수안보 시절을 지나, 자유롭고 편안한 선염기법의 화풍이 돋보이는 신갈 시절에 이른다. 이 시기 장 화백은 화면의 도상들을 자유롭게 변화시키고 단순화시킴으로써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정신적 해방감을 고스란히 표출했다.

장 화백은 경성사범부속초등학교 시절 '전일본소학생미전'에서 1등상을 수상하며 미술계에 발을 들였다. 1930년 경성 제2고보에 입학했지만 일본교사의 왜곡된 행동에 항의하다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림 공부를 탐탁지 않게 여긴 집안 어른들의 반대로 수덕사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초 여류화가 나혜석(1886-1948)을 만나 "좋은 화가가 될 것"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그러다 스무 살이 되던 해 조선일보 주최 '전조선학생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수상, 1939년 일본 도쿄 제국미술학교(현 무사시노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했다. 유학 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취직하기도 하고,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및 국전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지만 모든 사회적 명성을 뒤로하고 작품 활동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장욱진 화백의 명륜동 시절 작품 '소와 나무', 33.5×24cm. Oil on canvas, 1978.

김형국 가나문화재단 이사장은 "그는 비록 일흔 몇 해 이승을 살다 갔지만 그의 예술정신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줄곧 높이 평가 받아온 것으로 진정한 인생 백년을 이룩했다"면서 "그의 그림 미덕은 우리의 과거와 살아갈 미래까지 한 번에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시는 8월 27일까지. 한편 이 전시 외에도 장 화백의 탄생 100주년 회고전이 곳곳에서 열린다. △양주 시립 장욱진미술관서 9월 12일~12월 3일 '장욱진 먹그림과 도자-선 · 선 · 선(線 · 禪 · 善)' △양주 시립 장웅진미술관서 8월 27일까지 '장욱진과 나무전' △장욱진 가옥서 11월 26일까지 '장욱진 드로잉전'. (02)736-102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색의 공간' 불일미술관서 더위 잊다

정상엽 작가 옻칠화전 외 8월 전시 '풍성'

무더운 여름, 빌딩숲을 피해 사색의 공간에 젖어들고 싶다면 법련사 불일미술관을 찾아가자. 다양한 주제의 8월 전시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정상엽 작가의 상엽 옻칠화전을 비롯해 8월간 매주 새로운 주제의 전시들을 마련했다.

11~23일에는 신진작가 공모전 5번째 전시로 정상엽 작가의 상엽 옻칠화전 '절로 가는 길'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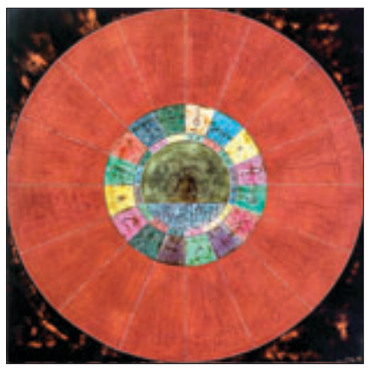
옻칠예술은 수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예술분야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독특한 문화다. 생활문화는 물론 회화장르 및 종교용품에 이르기까지 두루 활용되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제작 공정과 고가의 재료로 인해 대중화 및 상업화에 어려움이 있다.

시간과 타협, 칠하고 기다림의 연속인 옻칠 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정 작가는 삶의 치열함에서 한 발짝 물러나 멀리서 지켜보는 미덕을 배운다고 한다.

이번 전시는 정 작가가 유년시절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절로 가는 길을 떠올리며 준비한 것으로, 어떻게 종교에 다가서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하는지에 대한 그의 고민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한 16일까지는 2017 신진작가 공모전의 4번째 전시로, 프로젝트 M의 '숨 그리고 쉼'展이 진행된다.

이 전시는 불교 경전 사경, 명상, 선무도 수련 등을 통해 경험한 내외적 세계를 북아트로 구현하는 도원 작가와 사진을 통해 명상을 표현하는 이호진 작가가 '명상과 수행'이란 공통 주제로 여는 단체전이다.



休, 정상엽, 75×75cm.

이호진 작가는 '한 시간 동안의 명상' 시리즈(1~10)와 프로젝트 참가자 인터뷰 영상을 소개한다. 이 작가는 "명상 과정의 시각화를 통해 명상이 결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수행법 중 하나로 명상을 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원 작가는 '반야심경' '고양이의 시간' '숨' 등 12작품을 전시한다. "일상서 수행을 늘 염두에 두고 작업하며 북아트를 창작하는 자체가 명상이자 수행이었다"고 말하는 도원 작가는 경전 내용을 자수를 놓듯 종이에 실로 바느질한 작품도 선보인다.

이밖에 현지영 작가의 초대전 '무상! 무아? 공?'이 10일까지 진행된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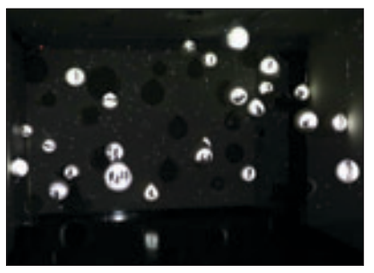
'별의 눈물'에 담긴 영적 세상 이야기

로터스갤러리, 8월 1~29일 이재원 작가展

"우리들의 눈물은 별이 되고 죽은 자는 별로 돌아간다" –이재원 작가노트 中

2017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이재원 작가의 전시가 8월 1~29일 열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서 영상작품 1점과 설치작품 1점을 선보인다.

첫 번째 작품은 '유성우-별비가 내리다'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닌 '어딘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후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했다.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이 작가는 작품 속에서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봐주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흰색 오브제는 눈물, 빗방울, 행성을 뜻하며 그 하나하나에 죽은 자과 산 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재원 작가의 영상작품 '유성우-별비가 내리다'

두 번째 작품은 '떠 있는 창문-꽃비가 내리다'로, 창문 너머 내리는 꽃비를 통해 꽃처럼 피고 지고 다시 순환하는 누군가의 인생을 말한다. 이 작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루의 일부분이고, 인생의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쉬는 시간조차 두려움을 느끼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현대사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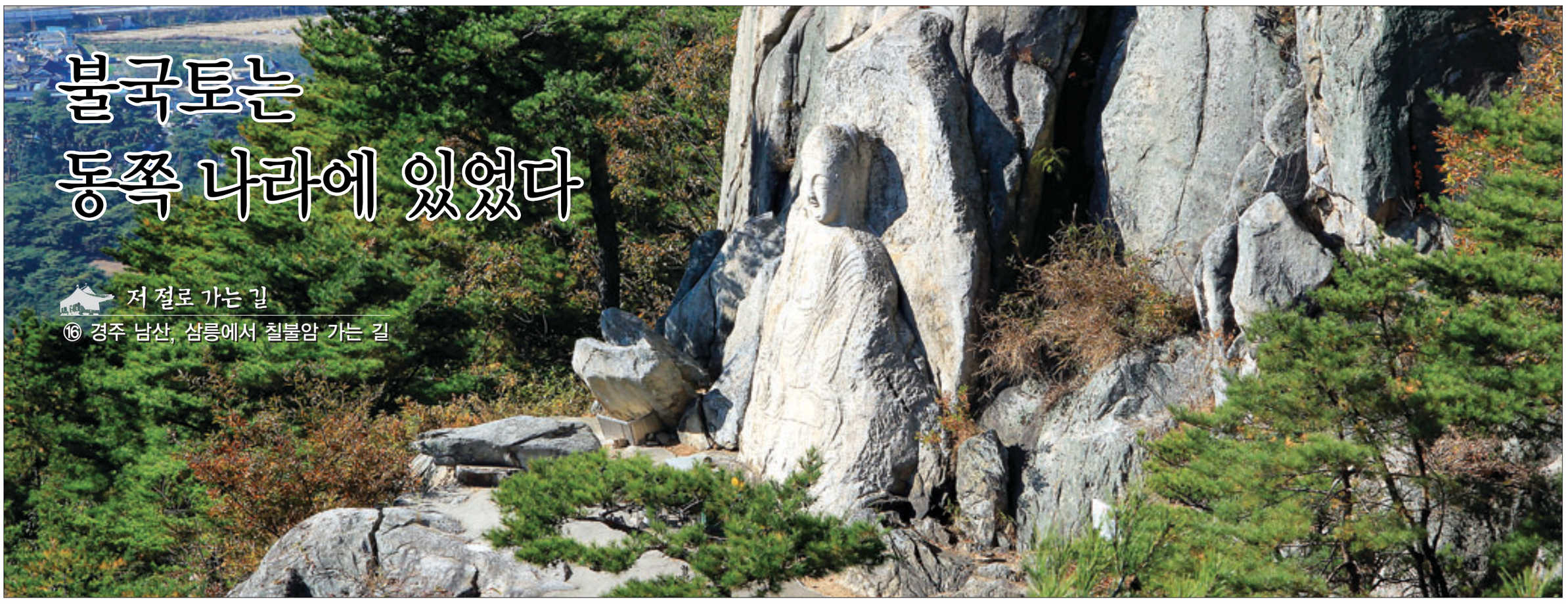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불국토는 동쪽 나라에 있었다

저 절로 가는 길

⑯ 경주 남산, 삼릉에서 칠불암 가는 길



경주를 내려다보는 남산 상선암 마애불. 속세의 들판을 옆에두고 반개한 눈으로 맞은편 산을 바라본다. 자연에 내맡겨진 그 모습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한다.



삼릉계곡의 목없는 석불.



삼릉계곡의 선각마애불.

시간을 초월한 공간, 남산

노동과 수행 흔적 뒤섞여

중생에 다가간 부처 닮아

- 걷는길 : 삼릉 – 석조여래좌상 – 마애관음보살상 –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 상선암 마애여래좌상 – 금오봉 – 용장사곡 삼층석탑 – 용장사곡 마애여래좌상 –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 신선암 관세음보살상 – 칠불암 – 남산동
- 거리와 시간 : 10km 정도, 8시간



'미스 신라' 로 불리는 마애관음보살.

목 없는 부처였다. 삼릉 숲길, 구불구불한 소나무들 곁을 지나면서 헐거워졌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다. 경주 남산에 드는 길에서 처음 대면하는 석불 곁을 무심코 지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본래 목이 없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깨버렸다니까 정확히 목이 떨어진 석불좌상이다.

그 없는 목 위에서 부처는 미소 짓고 있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임을 아는 신라의 불상들처럼. 그러나 그것은 내 상상일 뿐, 참수의 잔혹사를 빈 페이지로 남겨 놓고 남산의 불상들은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한 시대에 광범위한 훼불이 저질러졌음이 틀림없지만, 얼굴이 없으니 무엇인들 증언할 수 있을까. 얼굴 대신 허공을 올려놓았기에 바람이 전하는 말밖에 들리지 않았다.

바람, 봄바람이 전하는 소리를 들으러 나온 여인처럼 마애관음보살상은 어디 먼 곳에 한눈팔고 있었다. 목 없는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기슭이었다. '미스 신라' 라는 별명이 어울리게도 이 석조상의 입술에 붉은색이 감돈다. 화강암에서 우연하게 배어 나온 산화철분이리란 추측은 그 별명 앞에서 진부한 과학으로 전락한다. 목 없는 부처에서 립스틱을 칠한 관음보살로 건너간 야릇한 감정이 이 돌 속의 여인에게 화장할 자격을 부여한다. 눈썹이 살아나고 뺨도 발그레하게 부풀어 오른다. 이같이 육감적인 관음보살을 돌에 새긴 석공은 누구였을까?

스님도 속인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을까. 문득 '고달' 이란 석공이 떠오른다. 고달사에서 탑을 쌓는 일에 치중하던 고달은 그 사이 가족이 굶어 죽는 줄도 몰랐다. 불사를 완성하고서야 그 사실을 안 고달은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자의 길을 떠났다. 가족의 아사도 모른 채 불사에 매달렸던 고달처럼 남산의 산기슭에서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삶을 살았을 석공들이 내 눈에 어른거린다. 정을 치고 끌을 잡아당기는 동안 목탁소리와 염불이 어우러진다.

삼릉계곡 선각마애불을 보면 노동과 수행이 한데 어우러진 현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암벽을 끌로 파서 선으로 연결한 육존불은 격식을 떠난 자유로운 노동인 동시에 수행이다. 육존불의 수많은 선은 암벽을 둘러싼 구불구불한 소나무들과도 닮았다. 면 대신 선을 채택해서 선각마애불을 완성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나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고작 내가 생각해낸 것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었다. 가벼움이 무거움을 전복해버리는 세계에서 질서란 아무런 소용도 의미도 없다. 노동자의 삶과 수행자의 삶이 뒤섞인 세계에서는 모든 질서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의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은 무슨 책무라도 짊어진 양 세상의 사물들에 질서를 부여하기에 급급하다.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은 그런 조바심에 두 번이나 깨어진 조각을 접합해서 얼굴을 복원했다. 예전에 고증도 없이 성급히 복원한지라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땅에 굴러다니던 10개의 조각을 잇고 없어진 부분은 새로 조각했다. 그렇게 해서 광배도 살려냈다.

원형 복원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독 접합 이전의 얼굴을 보고 싶다. 복원한 불상이라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며, 목이 없는 불상이라 해서 잊혀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부처는 말했다. 경주 남산의 불상이 목 없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변했다. 때로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혁명이란 이름으로 변하는 세상을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은 부처가 남긴 말이지 불상이 아니다. 나는 목 없는 불상으로부터도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느낀다. 생겨난 것은 생몰을 거듭하므로 언젠가 경주 남산의 불상과 불탑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해도 폐허는 폐허로서 아름다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없듯이 완전한 것도 없다. 경주 남산의 불상은 그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규격과 질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 상선암 마애여래좌상은 돋을새김한 얼굴을 빼고는 나머지 부분이 선각에 가깝다. 깎아지른 벼랑을 불과 몇 미터 앞두고 마애불은 어찌 보면 바위 바깥으로 나오는 동작이고, 어찌 보면 바위 안으로 잦아드는 동작이다. 그러나 어찌 부분만 볼 것인가. 크게 보아 상선암 마애불은 남산의 다른 불상과 마찬가지로 자연에 내맡겨진 존재이다. 부처가 살던 시대의 수행자처럼 탁발을 하러 다니거나 숲 속에서 들어앉아 선정에 잠겼던 바로 그 자세이다. 뜨거운 햇볕과 세찬 비바람을 견디는 전정각산의 싯다르타처럼 상선암 마애불은 속세의 들판을 옆에 두고 반개한 눈으로 맞은편 산을 바라본다.

속세는 상선암 마애불에서보다 상선암에서 상선암 마애불로 오는 산길에서 더 잘 내려다보였다. 전망대까지 설치한 그곳에서는 형산강을 끼고 발달했을 신라의 수도 서라벌이 한눈에 들어왔다. 왕궁이 있던 월성(月城)도 오른쪽으로 보였다. 천 년의 도시 서라벌은 인구 백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였다고 삼국유사는 신라의 전성기를 전한다. 당나라 수도 장안과 맞먹는 인구다. 대부분 집이 기와를 얹었고 금으로 치장한 집인 금입택(金入宅)도 35채나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도곡동 타워펠리스에 해당하는 호화주택이다. 이 집들 사이에 황룡사, 임천사, 천관사, 미탄사, 보림사 같은 큰절들이 그 규모에 어울리는 시주를 받았음이 틀림없다. 또한, 그 같은 세속의 절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응당 공양을 받는데 별 곤궁함이 없었을 것이다. 말로만 토굴이지 호화 아파트에 살더라는 소문이 지금의 승가에 떠돌기도 하지만, 금은비단에 묻혀 사는 스님이 그때라고 왜 없었겠는가.

남산의 불상들은, 적어도 삼릉에서부터 상선암 뒤쪽 능선에서 내가 만난 불상들은 속세에서 비켜난 자세로 어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면으로 세속을 내려다보지도 등을 돌려 아예 외면하지도 않은 눈길이다.

우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생각한다.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삶도 곤란하지만, 세속을 등지고 혼자만 고고한 것도 수행자의 길이 아님을 암시하는 자세라고. 요컨대 남산의 불상들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에게로 다가간 부처의 삶을 닮았다.

물론 지나친 의미 확산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생명이 없는 돌일지라도 성주괴공(成住壞空)하는 우주의 구성원이므로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연계의 다른 생명이나 무기물과 서로 끊임없이 작용 · 반작용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돌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다만 사람보다 훨씬 늦게 마모될 뿐이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결정적 순간

우리 마음은 습관적으로 고통을 찾습니다.

생각으로 고통을 만들기 시작할 때가 결정적인 때입니다.

마음이 고통 쪽으로 움직일 때 힘 빼고 릴렉스!

생각은 지나가는 환영입니다. 생각으로 고통을 만들지 마세요.

생각으로 무엇을 많이 만들면 고통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무엇을 조금 만들면 고통이 조금 있습니다.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만들면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 사이다'

③ 힐링이 곧 웰빙

그대는 '있는 그대로' 충만하고 완전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 열풍이 불더니 요즘에는 힐링이 트렌드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 이는 곧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생겨난 웰빙 또는 힐링 관련 상품 및 콘텐츠는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진짜 웰빙이고 참된 힐링일까?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웰빙이란 '잘 있고, 잘 존재한다'는 뜻으로, 즉 '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사를 하면서 늘 웰빙에 대해 묻고 답한다.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안녕함을 묻지 않는가? 만났을 때에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그동안 '웰빙' 했는지를 묻는다. 헤어질 때에는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웰빙' 하라고 염원한다. '안녕하다'는 것은 평안한 상태이며 그것이 곧 '웰빙'이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잘 가꾸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곧 '웰빙'이다. 여기서 '잘 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달성과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웰빙'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기 보다는 본래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이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와 행위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만족감과 평온 그리고 행복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존재만으로 완전하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느껴보자.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감각이 깨어나야 한다. 그 깨어난 감각으로 들어오는 숨과 머무는 숨, 그리고 나가는 숨을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몸의 움직임과 피부의 촉감, 세세한 감정상태와 변화를 알고 느낄 수 있다. 그래야 존재 그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탄생에서부터 완전한 존재였다.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엄마의 자궁 안에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 졌다. 쌍둥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3~5억 중 하나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와 만난다. 우리는 3~5억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고귀한 존재이다. 특히, 나를 제외한 나머지 3~5억의 생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협력하고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치 마라톤에서 함께하는 선수들처럼 말이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할지 몰라도 자연은 1등을 있게 한 그 모든 존재를 존중한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완전한 존재로 진화하고 거듭나 탄생한다. 우주 자연의 이치 안에서 어긋남 없이 태어나며 생물학적으로 결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 내 한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와 과정을 알면 나 스스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숭고한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웰빙, 인간 존재에 대한 것
좋은 무언가 얻는 것이 아닌
'완전한' 본래 존재 깨닫는 것

힐링, 관계에 바탕을 둔 것
두 존재 사이 '사랑' '에너지'
상대 입장 고려해야 진짜 '힐링'

다음으로 '힐링'에 대해 살펴보자. '웰빙'이 존재에 대한 것이라면 '힐링'은 관계를 바탕에 두고 일어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힐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두 존재 사이에서 사랑이나 에너지가 오간다.

'힐링'은 해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 2가지로 나뉜다. 그렇다면 각자 어떤 입장에서 해주어야 할까?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힐링'을 해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엇의 결핍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종의 봉사정신을 갖고 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상대를 위하는 마음 가운데 나는 사라진다. 내가 사라진 자리에 충만한 생명력이 채워지며 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만일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를 위한 방식으로 실행한다거나 이기심이 바탕에 깔려있다면 참된 '힐링'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비워진 상태에서 나는 그저 통로가 된다. 그 통로에 '힐링'의 에너지가 흐르며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힐링'을 받는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이 주는 치유의 에너지를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에너지의 흐름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힐링'은 '웰빙'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 존재를 떠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웰빙'을 떠난 '힐링'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힐링' 없이는 '웰빙'은 점차 힘을 잃어간다. 원만한 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재하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에베레스트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베이스캠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힐링'이라는 등산을 위해서 '웰빙'이라는 베이스캠프가 필요하다.

진정한 '힐링'을 위한 '웰빙'의 상태는 비워짐이다. 비울수록 가득한 상태가 최상의 웰빙 상태이며 진정한 힐링을 가능케 한다. 비울수록 가득한 마음은 힐링여행을 떠날 때 느끼는 상쾌함과 비슷하다. 아직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데,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의 무거움과 집착을 떠나 새로운 길에 들어선 것이 곧 비움이다. 그리고 비움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이루어진다.

비움을 통해 일어나는 치유의 에너지는 에고로 꽉 채워져 있는 자기 자신을 비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과 에고로 고여서 썩는 우물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남을 위하는 이타심으로 상대방에게 흐르며 스스로를 비운다. 그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하게 된다. 상대방을 위하는 '힐링'이 자신을 온전하게 존재케 하는 '웰빙'의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 따라서 진정한 웰빙은 힐링이고, 힐링은 곧 웰빙이 되는 것이다.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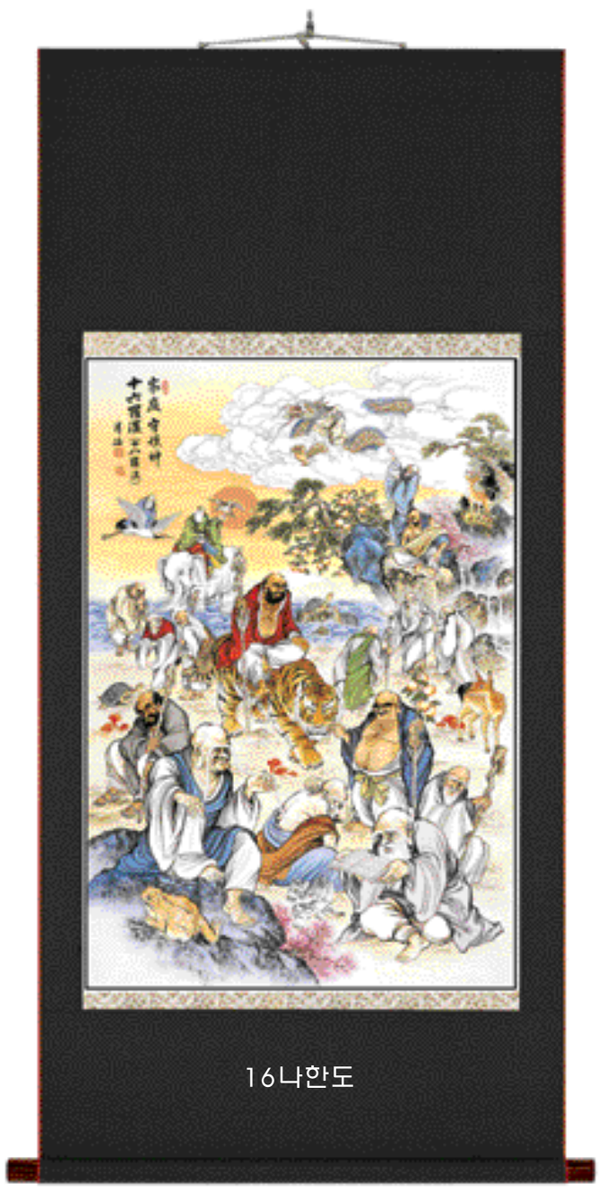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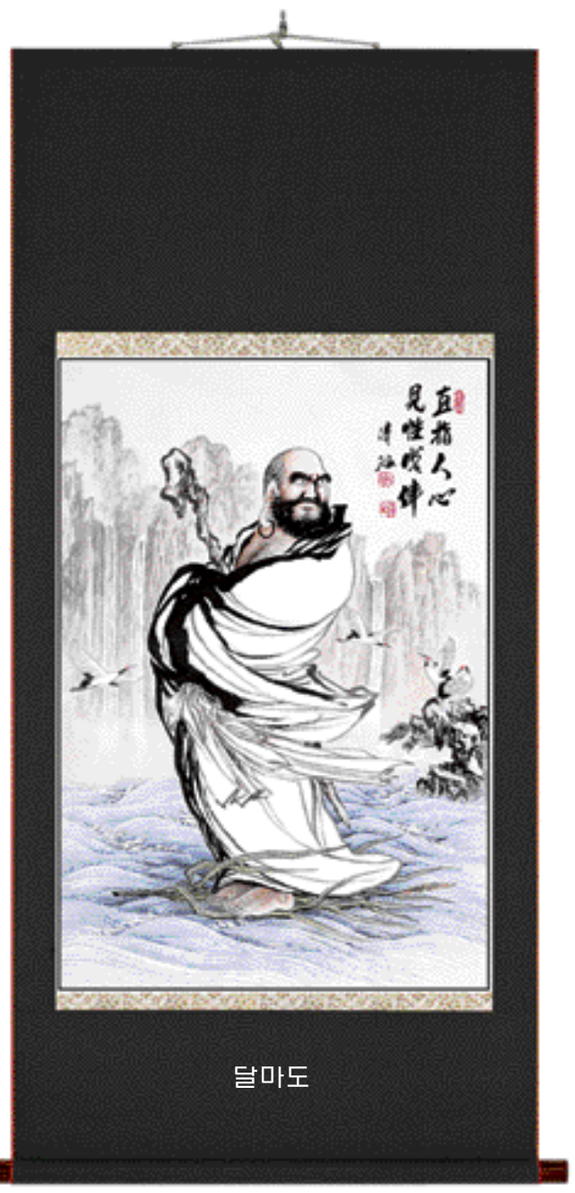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